

Ольга АЛІМЕНКО
Анна ТОГОБИЦЬКА
Дар'я ЄВЕНКО

ДВОСТОРОННІЙ КОРЕЙСЬКО- УКРАЇНСЬКИЙ КІНОПЕРЕКЛАД



— 2026 —



Міністерство освіти і науки України
Київський національний лінгвістичний університет

Ольга АЛІМЕНКО, Анна ТОГОБИЦЬКА, Дар'я ЄВЕНКО

ДВОСТОРОННІЙ КОРЕЙСЬКО-УКРАЇНСЬКИЙ КІНОПЕРЕКЛАД

Електронний навчальний посібник
для студентів I курсу
другого (магістерського) рівня вищої освіти
денної форми навчання
факультету східної і слов'янської філології

Київ
Видавничий центр КНЛУ
2026

**Друкується за рішенням вченої ради
Київського національного лінгвістичного університету
(протокол № 8 від 23 лютого 2026 року)**

- Рецензенти:**
- КІМЧОЙ Анна** – викладач корейського освітнього центру в Україні;
- КІНДЖИБАЛА Оксана** – доктор філософії, доцент кафедри мов і літератур Далекого Сходу та Південно-Східної Азії Навчально-наукового інституту філології Київського національного університету імені Тараса Шевченка;
- ПАК Антоніна** – доктор філософії, старший викладач кафедри германських і східних мов та методики їх викладання ДЗ "Південноукраїнського національного педагогічного університету імені К. Д. Ушинського";
- УРЯДОВА Вікторія** – кандидат філологічних наук, доцент, доцент кафедри корейської і японської філології факультету східної і слов'янської філології Київського національного лінгвістичного університету.

Укладачі:

- Аліменко, О. С.**, канд. філол. наук, доцент кафедри корейської і японської філології;
- Тогобицька, А. І.**, старший викладач кафедри корейської і японської філології;
- Євенко, Д. С.**, викладач кафедри корейської і японської філології.

Двосторонній корейсько-український кінопереклад: електрон. навч. посіб. / уклад. О. Аліменко, А. Тогобицька, Д. Євенко. Київ : Видавничий центр КНЛУ, 2026. 147 с.

ISBN 978-966-638-440-2

Електронний навчальний посібник призначений для студентів другого (магістерського) рівня вищої освіти, які навчаються за спеціальністю В11 Філологія спеціалізацією В11.066 Східні мови та літератури (переклад включно), перша – корейська, за освітньо-професійною програмою «Східна філологія: корейська мова і література, переклад, методика навчання».

ISBN 978-966-638-440-2

© Аліменко О. С., Тогобицька А. І., Євенко Д. С., 2026

© Київський національний лінгвістичний університет, 2026

ПЕРЕДМОВА

Сучасні процеси глобалізації, активізація міжкультурних контактів та розширення співпраці між Україною та Республікою Корея зумовлюють зростання потреби у фахівцях, здатних здійснювати якісний двосторонній переклад між корейською та українською мовами. Перекладач сьогодні виконує не лише функцію посередника у передаванні інформації, а й відіграє роль інтерпретатора культурних смислів, соціальних норм і комунікативних стратегій. Саме тому підготовка майбутніх перекладачів потребує комплексного підходу, що поєднує мовну, культурологічну та професійно-практичну складові.

Пропонований електронний навчальний посібник із двостороннього корейсько-українського перекладу створено з метою формування у студентів системних знань і практичних навичок перекладацької діяльності в обох напрямках — з корейської мови на українську та з української на корейську. Особлива увага приділяється розвитку перекладацького мислення, умінню аналізувати текст оригіналу, визначати його функціональний стиль, прагматичну мету та культурні особливості, а також обирати адекватні стратегії відтворення змісту засобами іншої мови.

Посібник орієнтований на студентів другого (магістерського) рівня вищої освіти, які навчаються за спеціальністю В11 Філологія спеціалізацією В11.066 Східні мови та літератури (переклад включно), перша – корейська, за освітньо-професійною програмою «Східна філологія: корейська мова і література, переклад, методика навчання» факультету східної і слов'янської філології Київського національного лінгвістичного університету, і студентів інших закладів вищої освіти, які вивчають корейську мову як іноземну, а також він може бути корисним аспірантам, викладачам і всім, хто цікавиться проблематикою корейсько-українського перекладу. Матеріал структуровано таким чином, щоб поєднати теоретичні засади перекладознавства з практичними вправами різного рівня складності. Завдання спрямовані на формування навичок роботи з текстами різних тематичних напрямів.

У процесі укладання посібника враховано специфіку граматичної будови корейської та української мов, зокрема відмінності у синтаксичній організації речення, категорії ввічливості, системі часових форм, способах вираження модальності та аспектуальності. Значну увагу приділено перекладу культурно маркованих одиниць, реалій, фразеологізмів, етикетних формул і прагматично зумовлених мовних засобів, що часто становлять найбільшу складність у двосторонньому перекладі.

Окремим завданням посібника є розвиток навичок самостійного редагування перекладу та критичного аналізу власних перекладацьких рішень. Практика показує, що успішний перекладач повинен не лише володіти мовами, а й уміти аргументувати обрані стратегії, враховувати комунікативну ситуацію та очікування адресата.

Укладачі сподіваються, що цей посібник сприятиме формуванню високого рівня професійної компетентності майбутніх перекладачів і стане надійною основою для подальшого вдосконалення їхньої майстерності. У світі, де міжкультурна комунікація набуває дедалі більшого значення, якісний переклад є запорукою взаєморозуміння, партнерства та культурного діалогу між народами України та Кореї.

Усі фрагменти аудіовізуальних творів, використані у цьому посібнику, наведені виключно з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згідно зі ст. 22 Закону України «Про авторське право і суміжні права». Майнові права на ці твори належать їхнім законним правовласникам.

ЗМІСТ

시청각 번역의 주요 특징	6
РОЗДІЛ 1. ТВОРИ РОМАНТИЧНО-КОМЕДІЙНОГО ЖАНРУ	13
РОЗДІЛ 2. ТВОРИ КРИМІНАЛЬНОГО ЖАНРУ	38
РОЗДІЛ 3. ТВОРИ МЕДИЧНОЇ ТЕМАТИКИ	64
РОЗДІЛ 4. ТВОРИ В ЖАНРАХ МІСТИКИ, ФЕНТЕЗИ І НАУКОВОЇ ФАНТАСТИКИ	92
РОЗДІЛ 5. ІСТОРИЧНІ ФІЛЬМИ	120
ДЖЕРЕЛА ІЛЮСТРАТИВНОГО МАТЕРІАЛУ	146

시청각 번역의 주요 특징

시청각 번역은 단순히 한 언어의 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 복합적인 기호 체계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시청각 콘텐츠는 언어적 요소뿐 아니라 영상, 음악, 음향 효과, 카메라 움직임, 색채, 배우의 표정과 몸짓 등 다양한 기호가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형성한다. 따라서 번역가는 언어 차원의 등가성뿐 아니라, 이러한 시각·청각적 요소들과 조화를 이루는 번역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시청각 번역이 일반 문서 번역과 구별되는 핵심적인 특징이다.

특히 자막 번역에서는 번역가가 원문의 모든 내용을 그대로 옮길 수 없다는 점이 본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한다. 발화의 속도는 대개 읽기 속도보다 빠르며, 일상 대화에는 반복, 감탄사, 주저 표현, 불완전 문장 등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자막에 반영하면 가독성이 떨어지고 화면 이해를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번역가는 의미 전달에 필수적인 정보와 부차적인 요소를 구분하여 선택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미의 압축(compression)과 응축(condensation)은 자막 번역의 대표적인 전략으로 간주된다.

또한 자막 번역은 관객의 인지적 처리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관객은 한정된 시간 안에 자막을 읽고, 동시에 영상 정보를 해석하며, 원어 음성을 부분적으로 청취한다. 이러한 다중 처리 환경에서는 정보의 명확성과 직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지나치게 복잡한 문장 구조나 생소한 어휘는 이해를 지연시키고 몰입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번역가는 문장을 가능한 한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구성해야 하며, 구어체적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읽기 쉬운 형태로 조정해야 한다.

자막 번역에서 화자의 사회적·정서적 특성을 반영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등장인물의 연령, 성별, 사회적 지위, 지역적 배경은 언어 사용 방식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존댓말과 반말의 선택, 어휘 수준, 방언 사용 여부 등은 인물의 성격과 관계를 드러낸다. 우크라이나어와 한국어는 모두 높임 표현 체계를 갖고 있지만,

그 구조와 사용 규칙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어는 특히 복잡한 경어 체계를 가지고 있어, 번역가는 인물 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말하기 수준을 선택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의미 전달을 넘어 인물의 사회적 정체성을 재현하는 작업이다.

감정 표현의 번역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분노, 슬픔, 기쁨, 놀람과 같은 감정은 억양, 음량, 표정, 몸짓 등 다양한 비언어적 요소와 결합되어 전달된다. 자막은 이러한 감정의 강도를 언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감탄사나 강조 표현은 부자연스러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번역가는 영상 속 감정의 강도와 목표 언어의 표현 관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잡힌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

유머의 번역 또한 시청각 번역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 중 하나이다. 언어유희, 동음이의어, 문화적 배경지식에 기반한 농담은 직역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자막에서는 설명을 덧붙일 공간이 없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주는 표현으로 대체하거나 완전히 다른 방식의 유머로 재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창의적 판단을 요구하며, 때로는 원문의 형식을 포기하고 효과 중심의 번역 전략을 택해야 한다.

음악과 노래 가사의 번역도 별도의 문제를 제기한다. 노래가 서사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가사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운율과 리듬을 유지하는 것은 자막 번역에서 거의 불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 의미 중심 번역이 이루어진다. 만약 노래가 감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능만 수행한다면, 자막에서 일부를 생략하거나 요약하는 전략이 사용될 수 있다.

문화적 요소의 번역과 관련하여, 세계화 시대의 관객은 점차 다양한 문화에 노출되고 있으며, 외국적 요소에 대한 수용성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문화적 차이를 완전히 중화시키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이질성을 유지하는 전략도 고려될 수 있다. 이는 관객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작품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낮은 표현은 이해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번역가는 문화적 보존과 이해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자막 제작 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자동 자막 생성 시스템과 기계 번역 도구가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이들은 문화적 맥락과 미묘한 뉘앙스를 완전히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간 번역가의 역할은 여전히 핵심적이다. 전문 번역가는 기술적 도구를 활용하면서도 최종 결과물의 품질을 통제하고, 맥락에 맞는 세밀한 조정을 수행한다.

결론적으로, 시청각 번역, 특히 자막 번역은 언어적, 기술적, 문화적, 인지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다. 번역가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의미를 재구성하고, 감정과 문화적 정체성을 전달하며, 관객의 이해와 몰입을 보장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어와 한국어 사이의 번역에서는 종교적 전통, 예절 체계, 사회적 위계 구조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자막 번역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두 문화 사이의 다리를 놓는 창의적이고 책임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정확성, 간결성, 자연스러움, 문화적 적절성의 조화는 현대 시청각 번역의 핵심 원칙이며, 이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상호문화적 소통을 실현하는 기반이 된다.

시청각 번역은 세계화, 디지털화, 그리고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급속한 증가라는 환경 속에서 활발히 발전하고 있는 현대 번역학의 가장 역동적이고 수요가 높은 분야 중 하나이다. 이는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비디오 게임, 인터넷 콘텐츠, 교육 플랫폼 등 다양한 형태의 시청각 자료 번역을 포괄한다. 시청각 번역의 주요 목적은 콘텐츠 제작자와 외국어권 수용자 사이에서 완전한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을 보장하는 데 있다.

시청각 번역의 주요 유형으로는 더빙, 보이스오버 번역, 자막 번역, 수어 통역, 음성 해설(오디오 디스크립션) 등이 있다. 각각의 방식은 고유한 특성과 기술적

요구 사항, 그리고 원본 자료에 대한 개입 정도를 지닌다. 예를 들어, 더빙은 원래의 음성 트랙을 번역 언어로 완전히 대체하는 방식으로, 배우의 입 모양과의 동기화가 요구되며 종종 상당한 수준의 각색을 수반한다. 보이스오버 번역은 원음을 부분적으로 유지하면서 그 위에 번역된 음성을 덧입히는 방식이다. 반면 자막 번역은 원래의 음성 트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화면에 제시되는 문자 텍스트를 통해 내용을 전달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한국 영화 상영 환경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번역 방식인 자막 번역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선호는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외국어 콘텐츠의 원음을 유지하려는 문화적 전통과도 관련이 있다. 한국 관객은 배우의 실제 목소리를 듣는 데 익숙하며, 이는 작품의 진정성과 사실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자막 번역은 등장인물의 발화와 동시에 화면에 간결한 문자 텍스트를 제시하여 시청각 콘텐츠의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의된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어려움은 시각적 정보와 청각적 정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관객은 화면의 영상과 원어 음성을 인지하는 동시에 번역된 텍스트를 읽어야 하므로 인지적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자막은 간결하고 명확하며 읽기 쉬워야 한다.

자막 번역의 주요 기술적 요구 사항에는 자막의 위치, 줄 수, 각 줄의 길이, 노출 시간, 음성과의 동기화, 읽기 속도,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텍스트 분절이 포함된다. 이러한 모든 요소는 기능적 근거를 지니며, 시청각 콘텐츠의 수용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막은 일반적으로 화면 하단 중앙에 배치된다. 이는 중요한 시각적 요소를 가리지 않으면서 관객의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나 화면 하단에 이미 자막, 표지판, 그래픽 요소 등 중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자막을 일시적으로 위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한국의 전통적인 문자 문화에서는 역사적으로 세로쓰기 방식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타이포그래피적 특징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현대 영화 상영 환경에서는 가로쓰기가 일반적이다.

한 자막은 일반적으로 두 줄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는 화면과 텍스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세 줄 이상의 자막은 화면을 과도하게 점유하여 영상 이해를 방해할 수 있다. 한 줄 자막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대화 장면에서는 두 줄 형식이 가장 보편적이다.

각 줄의 길이는 독자의 생리적 읽기 능력을 고려하여 제한된다. 평균적으로 공백을 포함하여 35~40자를 넘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이를 초과할 경우 읽기 속도가 저하되어 중요한 영상 정보를 놓칠 위험이 있다. 또한 두 줄의 길이를 가능한 한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시각적 균형과 가독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자막의 노출 시간은 텍스트 분량과 평균 읽기 속도에 따라 결정된다. 현대 기준에 따르면 초당 약 12~15자를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한 줄 자막은 2~3초, 두 줄 자막은 4~6초 정도 제시된다. 최소 노출 시간은 1초 이상이어야 하며, 너무 짧으면 읽을 수 없고, 반대로 너무 길면 ‘빈 화면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음성과의 동기화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자막은 대사의 시작과 동시에 또는 최소한의 지연과 함께 나타나야 하며, 발화가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 사라져야 한다. 음성과 텍스트의 불일치는 인지적 불협화를 일으키고 번역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 빠른 대화 장면에서는 자막 전환이 부드럽게 이루어져야 하며, 깜박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텍스트 분절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자막은 문법적·통사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단위를 임의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주어와 서술어, 동사와 목적어, 관용 표현 내부에서의 분리는 피해야 한다. 올바른 분절은 이해를 돕고 원문의 억양 구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타이포그래피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장식적이지 않고 읽기 쉬운 글꼴을 사용해야 하며, 충분한 글자 크기와 배경 대비(예: 흰색 글자와 어두운

외곽선)를 확보해야 한다. 이탤릭체는 강조 표현이나 화면 밖 발화를 표시할 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문장부호 역시 목표 언어의 규범에 부합해야 하며, 의미의 모호성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자막 번역의 기술적 요구 사항은 복잡적이며, 가독성과 명확성, 자연스러움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시청각 콘텐츠의 성공적인 현지화와 효과적인 상호문화적 소통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한편 자막 번역에서 특히 어려운 과제는 문화적 표지가 강한 언어 요소의 번역이다. 여기에는 종교적 요소를 포함한 예절 표현, 민속적 표현, 그리고 문화적 특수성을 지닌 고유 개념(레알리아)이 포함된다. 이러한 표현들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한 민족의 세계관, 역사적 경험, 가치 체계, 집단적 기억을 반영한다. 따라서 그 번역에는 언어적 능력뿐 아니라 심층적인 문화 이해가 요구된다.

우크라이나어의 종교적 요소를 포함한 예절 표현 (예: “*Слава Богу*”, “*Дай Боже*”, “*З Богом*”, “*Спаси Господи*”, “*Боже помози*”)은 오랜 세월 기독교 전통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으며, 감사, 안도, 기원, 격려, 위로 등의 의미를 전달한다. 많은 경우 이러한 표현은 관습적으로 사용되며, 화자에게 종교적 의미가 항상 의식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문화권의 수용자에게는 과도하게 종교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한국어의 예절 표현 체계는 유교, 불교, 그리고 현대 사회 규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응 표현이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Слава Богу*”는 맥락에 따라 “다행이다” 또는 “감사합니다” 등으로 기능적으로 번역될 수 있다.

민속적 표현은 속담, 관용구, 전통적 호칭, 비유 표현 등을 포함하며, 특정 문화권 내에서 공유되는 이미지에 기반한다. 이러한 표현은 자막 번역에서 설명을 덧붙이기 어렵기 때문에 기능적 등가 표현으로 대체되거나 이미지가 중립화되는 경우가 많다.

레알리아는 특정 문화에 고유한 사물, 현상, 제도 등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음식명, 전통 의상, 역사적 사건, 사회 제도 등이 이에 속한다. 자막 번역에서는 공간 제약으로 인해 음차, 일반화, 또는 기능적 대응어 선택 등의 전략이 사용된다.

이와 같은 문화적 요소들은 높은 의미적·정서적 밀도를 지니며, 등장인물의 사회적 배경, 연령, 지역 정체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자막의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모든 뉘앙스를 완전하게 전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막 번역에서 번역가는 직역, 기능적 대체, 문화적 적응, 축약 등의 전략 중에서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한다. 특히 우크라이나어와 한국어의 종교적·문화적 배경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어의 문화적 표지 요소를 한국어로 자막 번역하는 작업은 언어적 정확성, 문화적 감수성, 기술적 이해를 모두 요구하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번역의 질은 원문의 의미와 정서를 유지하면서도 목표 문화의 규범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정확성, 간결성, 문화적 적절성 사이의 균형이야말로 현대 시청각 번역에서 효과적인 상호문화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이다.

РОЗДІЛ 1
ТВОРИ РОМАНТИЧНО-КОМЕДІЙНОГО ЖАНРУ

Вправа 1. Перекладіть діалоги із серіалу "힘센 여자 도봉순" українською мовою. Зверніть увагу на способи перекладу виділених фрагментів тексту:

1.

- 운전기사: 없네? 아니, 어떤 썩을 놈이 차를 이따위로 대 났어, 이거 어?아니, 이거...
- 현동: 뭐예요?
- 운전기사: 이 트럭 운전기사세요?
- 현동: 아니, 지금 식사 중인데.
- 운전기사: 아니, 여기 이렇게 길을 막고 있으면 어, 어떡해요?
- 현동: 이, 씨, 이 영감탱이가, 씨. 여기는 못 가는 길이야.
- 운전기사: 아니, 이런 경우가 어, 어디 있어요? 여기가 당신들 땅도 아, 아니고?
- 현동: 어이, 영감 좋은 말로다 할 때 돌아가요. 개소리하다가 개처럼 맞는 경우가 생겨.
뭐 하는 짓이야, 이씨.
- 운전기사: 아이, 저, 저,저. 아이고, 내 핸드폰.
- 현동: 이 영감탱이가 사람 될 기회를 줬는데도 놓쳐 붙었어, 어?
뭐, 아이고, 뭐, 아이고, 뭐? 아이고.
이리 와, 빨리 와, 빨리, 빨리. 어여,어여,어여, 자, 자.
(연락하는 중...)
- 도봉순: 여보세요? 아, 저 신고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도봉동...
어,어? 아, 뭐예요? 주세요.
- 광복: 어허... 뭘 놈의 여자들이 이렇게 먹는 사진을 올려 쌓을까? 얼레?
남친이야?
- 도봉순: 왜 남의 핸드폰을 보고 그러세요? 그냥 빨리 주세요.
- 광복: 근데 이년이 겁대가리를 씹 싸먹었나. 어디서 신고질이야? 확 뒤지려고, 이 씨. 어, 네가, 뭐 모범 시민이다, 이거야? 어? 확, 씨. 그럼 나는 모범 깡패야.

도봉순: 아니, 아저씨들이 먼저 힘없는 할아버지 막 때리시고
그러셨잖아요.

광복: 당사자여? 네가 처맞은 당사자냐고? 확. 아유, 새끼 아주
뻔질하게 생겼네, 씨.

도봉순: 어? 아, 깨졌어, 씨. 아저씨, 이거 물어 주세요.

광복: 아따, 씨.

도봉순: 아, 저 이거 3년 약정인데요. 3개월밖에 안 쓴 거거든요. 아저씨,
진짜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건데요. 이거 물어
주세요.

광복: 아따, 요새 년들은 어째 이래. 겁대가리가 없을까잉, 으이?
갈기갈기 확 걸레짝을 만들어 갖고 느그 집 빨랫줄에 넣어
줄까나, 응?
아따, 요거 조막만 해 가지고 어디 때릴 데도 없고...

안민혁: 뭐야?

광복: 한주먹거리도 안 되겠고, 아, 씨.

도봉순: 때리지 마세요.

안민혁: 경찰을 뭐 하는 거야? 이러니 내가 경찰을 안 좋아하는 거야.

아이: 저 누나 어떡해?

광복: 얼굴이 어떻게 요따시만 해? 얼굴이 뭐 CD 여? 아야, 눈 깔아야.
눈 깔아, 눈 깔으라고, 씨. 눈 깔아.

안민혁: 여보세요? 그, 여기가 도봉동 재개발 현장인데요. 경찰차 한 대랑
기동대 차량 한 대 있어여겠는데요. 그 사람이 많아서 여자랑
노인이 건달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봉순: 내가 다시 힘을 쓰지 못하더라도, 온몸에 호환마마가 퍼지더라도
난 오늘 이 자식을 그냥 지나칠 순 없다.

안민혁: 도대체 경찰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조직원 1: 형님, 형님!

조직원 1: 관찮으십니까?

현동: 성님, 성님!

도봉순: 아저씨, 저 이거 핸드폰 물어 주세요. 너 뭐여?

광복: 개기지 말아!
도봉순: 아니, 아저씨도 사회생활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핸드폰, 여기 안에 전화번호가 다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되면 얼마나...
광복: 뒤져! 뒤...
도봉순: 못 받아요. 이렇게 되면.
광복: 그거 미친년이네.
현동: 아, 이거 완전 개또라이 아니야? 이게
안민혁: **119** 를 불러야 되나?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힘쎈 여자 도봉순" (2017, режисер 이형민, автор сценарію 백미경),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Netflix.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2.

안민혁: 예, 아인소프트 안민혁입니다.
혁박범: 경고했을 텐데 "알베르탄 연대기"는 이제 없애라고. 안 그럼 네가 죽는다고
안민혁: 야, 이 자식아. 너 지금 몇 시인지 아니? 아니, 협박도 잠을 재워 가며 해야 효과가 있지. 이런 건 제정신에 들어야 무섭지. 아, 답답하다, 진짜, 아.
혁박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무 놀라지 마. 네가 자초한 거니까. 아인소프트는 망한다. 내가 그렇게 만들...
[휴대 전화를 탁 던진다]
안민혁: 에이, 씨, 어떤 새끼야, 이거?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힘쎈 여자 도봉순" (2017, режисер 이형민, автор сценарію 백미경),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Netflix.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3.

공 비서: 아니, 도대체 뭐 일이길래 경찰서까지...
안민혁: 와, 내가 살다 살다 별 희한한 걸 다 봤다.
저, 이봐요. 나한테 "생큐" 뭐, 이런 거 안 해요?
도봉순: 왜 뺑 치셨습니까? 경찰서에서
안민혁: 아, 뭐냐, 이게? 당신 폭행으로 구속될 뻔한 거 내가 막아 줬는데, 이게 "생큐"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뭐지, 이게?

도봉순: 그러게 왜 막아 준 겁니까?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답게 사세요.
여자가 나설 동안 구경만 한 주제에 남자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안민혁: 뭐냐, 저 여자?

공 비서: 상당히 독특한데요.

안민혁: 아, 씨, 되게 섹시해.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힘쎈 여자 도봉순" (2017, режисер 이형민, автор сценарію 백미경),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Netflix.*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4.

경찰청장: 그 자식 그거 말도 안 통하는 완전 또라이야. 아휴, 머리 아파.

안민혁: 진짜 제대로 된 경찰이네요.

경찰청장: 근데 여자 번호 알아서 뭐 하게?

안민혁: 제 타입이라서요.

경찰청장: 아, 그거 청춘사업에 필요한 거였어?

안민혁: 뭐, 말하자면요.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힘쎈 여자 도봉순" (2017, режисер 이형민, автор сценарію 백미경),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Netflix.*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5.

도봉순: (통화 중) 어, 국두야.

이국두: 본청에서 파견된 경찰 하나가 너한테 붙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 지금 어디야?

도봉순: 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국두: 야, 그러다 네가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래? 공무 집행이야. 넌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지금 어디야? 그리로 보낼게.

도봉순: 국두야, 나 취직했어. 아인소프트 비서실.

이국두: 그래? 뭐, 하루 종일 회사 안에 있는 거야?

도봉순: 아니야, 막 여기저기 쏘다며 우리 대표님이 워낙 바쁘시거든.

안민혁: 재 욕하는 것 같은데.

이국두: 최시원야야, 그 경찰 이름. 그 사람 도착하면 나랑 통화하게 해
줘.

도봉순: 알았어. 국두야, 밥 잘 챙겨 먹어.
이국두: 어, 끊어.
안민혁: 누구냐?
도봉순: 경찰대 수석 졸업한 제 친구요.
안민혁: 어, 인국두?
도봉순: 어떻게 아셨어요?
안민혁: 내가 방금 "국두야" 이랬잖아.
도봉순: 전 인국두라고는 안 그랬는데요.
안민혁: 너랑 내가 제일 처음 만난 곳이 어딘지 기억 안 나? 그때 그 경찰이잖아. 야, 너 그 경찰한테 말할 때랑 나한테 말할 때랑 인격이 달라진다. 아주.
도봉순: 대표님은 갑이지만요. 이쪽은 제 친구라서요.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요.
안민혁: 너 지금 친구는 갑처럼 대하고 갑인 나는 막 대하고 그러고 있는 거 너는 아니?
도봉순: 아닌데. 그거 대표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안민혁: 너 그 경찰 좋아하지.
도봉순: 어떻게 아셨어요?
안민혁: 넌 그냥 다 티 나. 뭐든 티가 나. 뭐, 잘 생겼더라. 완전 내 타입이더라. 너 그렇게 좋아하는 거 티 내면 남자들 흥미 없어. 내 눈에 보이니 그 친구 눈엔 더 보이지.
도봉순: 경찰 싫어하신다면서요. 그냥 쪽 싫어하세요, 쪽.
안민혁: 내가 예쁜 경찰은 또 예뻐하지.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힘쎈 여자 도봉순" (2017, режисер 이형민, автор сценарію 백미경),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Netflix.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6.

도봉순: 제발 깨어나세요, 대표님. 깨어나시기만 하면요. 제가 진짜 말도 잘 듣고요. 어떤 갑질도 제가 진짜 다 받아들일게요. 아,안 덤비고요. 안 갑죽거리고. 제가 안... 어? 대표님.
안민혁: 다행이야. 내가 대신 칼에 찔려서. 네가 다치지 않아서.

도봉순: 대표님.

안민혁: 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 지금. 어? 아, 내 꼬라지가 이게 뭐냐? 아, 널 경호원으로 두고 나서부터 내 인생은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어?

도봉순: 어, 어, 괜찮으세요?

안민혁: 야,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됐지? 마치 몇 년은 된 거 같은 이 피로감...아,아.

도봉순: 아, 야, 뭐야?

안민혁: 이거 왜 이렇게 아프냐? 야, 나 몇 바늘이나 꿰꿨니?

도봉순: 아, 그게... 열두 바늘. 대표님이 하도 촌촌하게 꿰매라고 난리 치셔 가지고요.

안민혁: 내가?

도봉순: 예.

안민혁: 아, 씨. 아, 내 몸을 이렇게 박음질을 당하다니 내가 어떻게 보존한 몸뚱아리인데 아, 맙소사!

도봉순: 죄송해요.

안민혁: 넌 괜찮은 거지?

도봉순: 네, 덕분에요.

안민혁: 그럼 야, 너 이 은혜를 뭐로 다 갚을래?

도봉순: 네?

안민혁: 아, 야, 야.

도봉순: 많이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안민혁: 야, 혹시 뭐, 수술하면서 의사들이 내 몸에서 뭐 빼갔니? 뭐 빼가거나 그러지 않았어?

도봉순: 몸에서 뭐, 뭐, 뭘 빼요?

안민혁: 아, 근데 왜 이렇게 아프지? 야, 나 몸에서 뭐 하나 없어진 거 같아. 속이 비었어, 콩팥인가?

도봉순: 아이...

안민혁: 아! 아파!

도봉순: 아니, 어, 어떡해?

공 비서: 대표님!

안민혁: 아, 공 비서, 아...

공 비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칼에 맞다니.

안민혁: 아, 됐어. 아직 몰라. 뭐, 과상풍으로 죽을 수도 있고. 각종 합병증도 우려되고. 그러니까 미리 울지 말고. 마칠 있다 울어. 내 상태 봐 가면서. 울지 마, 똑. 야, 도봉순!

도봉순: 네? 어,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안민혁: 너 밥 먹고 와. 하루 종일 굶었을 거 아니야.

도봉순: 아, 대표님이 이렇게 아프신데 음식물이 어떻게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안민혁: 네가 굶는다고 내가 낫니? 그러니까 밥 먹고 와. 그리고 나서 나를 성심성의껏 간호해. 나 지금 막 헛게 보이고 환청도 들려.

도봉순: 예, 저, 저, 정 그러시면 제가 그럴게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안민혁: (도봉순이 나가자마자) 나 괜찮아. 나 병원에서 며칠 놀다 갈 테니까 너 회사 가 가지고 일 좀 신경 쓰고 있어.

공 비서: 정말 괜찮은요?

안민혁: 괜찮다니까 깊게 찢린 거 아니라 괜찮아. 아, 그리고 내가 칼에 찢린 거 직원에게 알리지 마라.

공 비서: 네.

안민혁: ㅋㅋㅋ. 이순신 장군이 이런 심정이었구먼.
TV 좀 틀어 줘.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힘쎈 여자 도봉순" (2017, режисер 이형민, автор сценарію 백미경),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Netflix.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7.

안민혁: 너 아직도 인국두 좋아하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 아니. 나 같은 남자를 두고 어떻게... 야... 너 혹시 막 그런 거냐? 어? 그거 있잖아. 어머, 저렇게 완벽한 심지어 인품까지 좋은 다 가진 남자가 날 어떻게 좋아하겠어? 그럴 리 없을 거야. 나까짓 게 어찌 감히, 흥. 이런 거.

도봉순: 치, 놀고 있네. 아, 그런데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안민혁: 아, 나 진짜...자, 너 우리 회사 들어오고 싶어했잖지.

도봉순: 네.

안민혁: 봐 봐. 너 같은 애조차 입사가 로망인 회사를 만들려면 내가 여자를 사귄 시간이 있었겠니?

도봉순: 어머. 그럼 왜 소문을 그냥 그렇게 막 내버려 뒀어요?

안민혁: 아, 그거야 노이즈 마케팅이니까. 뭐, 그거조차 비즈니스 전략이라고 한다고 한들. 네가 뭐,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 넌 뇌 회로가 단순해서 이해하기 힘들 거야. 그냥 이해하지 마. 내가 이해할게.

도봉순: 그렇게 말 많이 하면 안 아파요?

안민혁: 아, 야, 웬지 아프더라. 아, 씨... 야, 어찌 됐건 얘기를 종합해서 정리해서 마무리를 해 보자. 나는 여자 아주 환장해. 막 보면 눈이 헤까딱 헤까딱 뒤집혀. 아, 뭐냐, 그 눈빛은?

도봉순: 이 호텔 가운 진짜 눈에 거슬려요.

안민혁: 일잖아, 나 획일화되는 거 굉장히 질색하는 거.

도봉순: 아, 그럼요, 당연하게 알죠. 대표님이 누군데. 이게 칭찬 같니?

안민혁: 너 지금 방금 나 따라 한 거니? 야, 그리고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 너 미쳤니? 아, 이게, 어?

도봉순: 해 봐요. 그럼.

안민혁: 너는 맛을 못 살려, 자. ‘이게 칭찬 같니?’ 탁 뒤집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도봉순: 아, 자랑입니다.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힘쎈 여자 도봉순" (2017, режисер 이형민, автор сценарію 백미경),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Netflix.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Вправа 2. Перекладіть українською мовою подані речення, звертаючи увагу на способи відтворення звуконаслідувань:

1. 버스 문이 **쑹** 닫힌다. 2. 새가 **짹짹** 지저귈다. 3. 입김을 **후** 분다. 4. 마우스 휠을 **드르륵** 내린다. 5. 소가 **음매** 운다. 6. 손을 **탁탁** 튄다. 7. 의사가 **털썩** 쓰러진다. 8. 키보드를 **탁탁** 두드린다. 9. 화장실 문을 **꽝** 찬다. 10. 안전 벨트를 **딸깍** 푼다. 11. 차 문을 **달칫** 닫는다. 12. 혀를 **뚝** 튕긴다. 13. 코를 **홀쩍**이다. 14. 뼈가 **우둑** 꺾인다. 15. 눈을 **뽀드득** 비빈다. 16. 입 냄새를 **콩콩** 맡는다. 17. 손가락을 **딱** 튕긴다. 18. 금고를 **짤그랑** 연다. 19. 친구가 **킁킁** 웃는다. 20. 음료를 **쭉 빨아** 먹는다. 21. 수화기를 **달그락** 놓는다. 22. 포크를 **잘그락** 든다. 23. 멀리서 개가 **왈왈** 짖는다. 24. 책상을 **꽝** 내리친다. 25. 문이 **덜컹** 닫힌다.

Вправа 3. Перекладіть корей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евфемізми:

1. Ви живий? А ми вже подумали, що ви побачили світло в кінці тунелю.
2. Я тобі зараз покажу, як з мене вар'яти робити.
3. Якщо ти будеш під мухою, то на тобі можна ставити хрест.
4. Ця дівчина пішла по рукам.
5. Вау, невже сіра речовина нарешті почала працювати?
6. За що ти мене вдарила? – За те, що я ледве там свої лобутени не склеїла. Не готель, а дім з химерами!
7. І який же придурок цей номер зробив? – Що ти сказав, повелитель кров'янки? А ти не боїшся, що тебе у витяжку затягне? Я можу це організувати.
8. Сподіваюсь, мені для підвищення не треба буде ні до кого стрибати у ліжко.
9. До мене вчора залицялася дівчина легкої поведінки.

Вправа 4. Перекладіть україн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сталі вирази:

1. 고생이 많다. 2. 이게 말이 되냐? 3. 내가 명수 엄마한테 쪽팔려서 고개를 못 든다.
4. 야, 나 그냥 시집 가! 돈 많고 정신없는 놈 하나 붙잡아 가지고, 알았어? 5. 너 엄마한테 입만 뽕긋기만 해 봐.
6. 내가 멀쩡하다. 7. 그 담당 경찰이 엄청 뽕세게 굴더라고요. 8. 참, 그 사람 끝까지 찌질하네요. 할 말 있으면 본인이 직접 와서 하면 되지. 왜 사람을 시켜서 이래? 9. 어때? 죽이지. 10. 그것조차 정보가 샀어. 11. 세상은 나쁜 놈들 투성이야. 그러니 방어력을 길러야 되는 거고.
12. 티 안 나게 열두시 방향 한번 봐봐. 좀 자연스럽게. 아무 눈치 못 챌 듯이.

13. 완전 채수 없는 타입이야. 14. 댐 굴뚝에 연기 안 나네. 15. 개는 왜 정이 안 떨어지냐? – 네가 정을 안 떼는 거지. 16. 먹어! 을은 식욕의 자유가 없어. 갑이 먹으랄 때 먹어 줘야 돼. 17. 네가 기대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으니까 마음을 비워라. 18. ‘오비이락’이란 말 있죠. 오해할 만한 행동은 만들지 않는 게 좋아. 19. 너 하나 때문에 지금 신경외과가 **쑥대밭** 됐는데 정신 못 차릴래? 20. 돈 냄새에 신물이 났지.

Вправа 5. Перекладіть корей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сталі вирази:

1. Тут все тримається на **чесному слові**. 2. Нам тут взагалі **нічого не світить**. 3. **Вдихнемо** у готель **друге життя**. 4. А стосовно Олесі, вона тобі **не по зубам**. 5. **Це удар нижче пояса**. 6. Не треба **переводити стрілки** на мене. 7. У мене таке відчуття, що це весілля **вилізе нам боком**. 8. От недаремно кажуть, **риба гниє з голови**. А в нашому готелі, вона ще й з хвоста. 9. **Ти мені мізки не пудри**. 10. Я в формі. Впораюсь. Я **ще ого-го-го, хоч куди**. 11. Тобі не здається, що **ти забагато на себе береш**? 12. Ви що, з **дуба впали**? Замість того, щоб заманювати клієнтів, ви їх відлякуєте. 13. Головне, що у неї від тої влади **дах не знесло**. 14. Ще раз пояснюю, що таке **збивати пилюку з клієнта**. Широко посміхатися – це збивати пилюку з клієнта. Піднести клієнтові валізи – це збивати пилюку з клієнта. Пригостити його кавою – це збивати пилюку з клієнта. Всім ясно?! 15. На відміну від інших я **думаю на декілька кроків уперед**. 16. Знаєте, є такий вираз: «**Гусь свині не товариш**». – Та я гусь ще той. 17. Ми маємо вивести її **на чисту воду**. 18. **Содом і Гомора**. Ви що, не могли до дому дотерпіти? 19. Наче доросла жінка, а **ума – палата**. 20. Мені з ним **дітей не хрестити**.

Вправа 6. Перекладіть україн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гру слів:

1. 여자랑 닭싸움을 합니까? 말싸움도 아니고. 2. 제가 얼마나 ‘팜므 옴탈’인데요. – ‘팜므 옴탈’은 뭐야? 야, 너 ‘팜므 파탈’이랑 ‘옴므 파탈’을 두 개 섞었니? 와, 죽인다. 언어의 마술사네. 3. ‘스톱 모션’ 있습니까? – ‘스톱 모션’이 뭐니까? 혹시 스톱옵션? – 아, 예, 그거요. 4. 안녕하세요? – 예, 보시다시피 전혀 안녕 못

합니다. 5. 너 이제 네가 게이라는 사실을 로그아웃해 버려! – 야, 무슨 로그아웃이야? 로그인이지. 아유, 창피해, 그만해! 6. 너 그 영화 ‘킹콩’ 봤냐? 내가 그 영화의 여자 주인공이 된 기분이야. – 아니, 그럼 뭐, 제가 킹콩이란 소리예요? – 아주아주 특별한 킹콩이지. 땅콩 같은 킹콩. 7. 야, 게 이거 완전 아기다, 아기. 그럼 게 새끼네, 이거. 8. 아저씨 뭐예요? – 저 안중대인데요. – 진짜. 뭘 준대요? 누가 달래요? – 다들 갔어요? 왜 나만 두고 갔지? 저기요, 라면 있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출출해서. – 안 줄 거예요, 안 준대 씨! 9. 와, 형, 진짜 줄 잘 샀어요. 아마 교수 되실 거예요. 피 교수, 피 교, 피 교. – 넌 돼 교. 돼지 교수.

Вправа 7. Перекладіть корей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гру слів:

1. Може це був знак? – Можливо. І в знак цього знаку ще раз вам дякую.
2. Якщо у нас напередодні була близькість до близькості, це не означає, що я готова приймати такі подарунки і бути тобі чимось зобов’язана.
3. Наполегливо раджу пошукати вашу заколку у номерах з першого по дванадцятий. Там ще тільки кінць з прибиранням не валявся. А якщо добре пошурувати під ліжками, то можна знайти і заколку, і приколку, і виколку.
4. *(Перекладають рецепт)* Тут по-угорськи написано: “Умрюхрен”. Якийсь хрін. – Додати хрін? – Що за хрєнь? А, так тут ще й німецькою написано.
5. *(Перекладають рецепт)* Потрібна свиня, що жила у розкоші. – А може просто потрібен розкішний шматок свинини? – Можна і так перекласти.
6. Не дратуйте мене, я все таки з гострими предметами працюю. – Вітаю, а мені доводиться працювати з тупими.
7. У нас на вивісці букви "Г" та "А" перегоріли, і залишилося тільки "ліція". Люди думають, що це "Поліція" і переходять на інший бік вулиці. То я викликала майстра.
8. Ви бармен? Дайте мені, будь ласка, "Секс на пляжі". – Ні. Я можу тільки секс на кухні запропонувати. – До речі, дуже бородатий жарт.
9. А ось і ти, мій улюблений старпер. – Стартапер! – Сьогодні стартапер, а у майбутньому старпер.
10. Покажи мені, як танцювати. – Ми вже другий день топчемося на місці і на моїх ногах.

Вправа 8. Перекладіть україн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порівняння:

1. 저 여잔 동네에 사고가 났는데도 저 놈의 **미스코리아 미소**야. 2. 오늘 삼촌 너희 집에서 좀 자자. – 왜 우리 집에서 자? 늘씬한 모델 있는 집 놔두고. – 그 모델이 있어서 집에 안 가려고. 결혼하재. 내가 헤어지자니까 집에 **붙박이장처럼** 딱 붙어서 안 나간다니까. 3. 근데 그 말끔하게 생긴 총각이 진짜 게이까? – 아, 그렇다잖아. **남의 집 나무에 열린 빨간 사과나무처럼** 탐스러웠는데 그게 못 먹는 사과라니, 진짜. 4. 이거 **피** 같은 돈이다. 5. 난 **하늘하늘한 코스모스** 같은 여자가 좋아. 지켜 주고 싶잖아. 6. 대표님 아버님이 대표님한테 회사 물려준다고 발표 비슷한 걸 하셨는데 형제들은 **벌레 씹은 표정**이었어. 7.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어찌 그렇게 약하니? 8. 사랑은 흔들리는 거다. 사랑은 **시소처럼 오르락내리락, 그네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움직이는** 거다. 9. 나 아주 오래전부터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 같아. 그걸 **바보처럼** 이제야 알게 됐어. 10. 지금 데리러 갈게. 깨끗한 옷 입고 머리 감고 **사람 같이** 하고 기다려! 12. 내가 **전광석화처럼** 쫓아 나갔는데 인과 속에 숨어버린 거죠. 그 새끼가. 13. 내가 널 친구로 믿지 않았으면 여기 따라오지도 않았어. – 난 너한테 **악세사리** 같은 거잖아. 14. 머리가 **당 떨어진 것처럼** 무겁고 어지러워. 15. 아이고, 개가 **활아 놓은 밥그릇처럼 뻘뻘** 잘생겼네. 16. 네 꼴을 좀 봐, 어?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이 그냥 축 늘어진 데친 시금치** 같다고. 야, 세상의 어떤 남자가 데친 시금치랑 사귀고 싶겠냐?

Вправа 9. Перекладіть корей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порівняння:

1. Овва, знайомі всі обличчя. Знаю всіх, **як облуплених**. 2. Що це ти сяєш, **як шабля Франца-Йосифа**? 3. Мила моя, може я трошки невдаха на амурному фронті, але наблюдатель з мене такий, **що ОБСЄ відпочиває**. 4. З тебе актор, **як з гімна куля**. 5. Я не можу малювати, коли клієнт вертиться, **як карась на сковорідці**. 6. По ходу, ті будівельники зникли, **як роса на сонці**. 7. Ну що ти розкис, **як бочка після молодого вина**. 8. Ти не груба, а тоща, **як коти з сусідського смітника**. 9. Що це? – Це книжки з історії України. Так що, щоб через тиждень з тебе історичні факти вилітали, **як ядра з гармат гетьмана**

Сагайдачного. 10. Агов, Миколо, ти мене чуєш? Миколо, коли я звідси виберусь, то ти в мене будеш, **як вчитель сільської школи**, дуже бідний.
11. Альо, мала, охолонь. Ну чого ти завелася, **як городська фіфа із шоу ‘Міняю жінку’?!** 12. А що це у вас такі червоні очі, **як калина на снігу?**
13. Спалили її [на вогнищі]? Шкода. Така симпатична. – Хто, Роза? Була страшна, **як чупакабра.** 14. Що це за бардак?! Живу, **як на якомусь звалищі.** 15. Ні, ця помада тобі не пасує. Виглядаєш, **як повія.** Багата, але повія.
16. Не робота, **а каторга якась.** 17. Я не можу зрозуміти, ти що, покрасилась чи голову помила? – Косички розплела. – Красива, **як принцеса.** Принцеса Фіона.

Вправа 10. Перекладіть полілоги із серіалу "Готель «Галіція»" корейською мовою. Зверніть увагу на способи перекладу виділених фрагментів тексту:

1.

Ян Францович: Доброго дня, Мироне Степановичу.
Мирон Степанович: Доброго, Яне Францовичу. Як у нас справи?
Ян Францович: Якщо не враховувати платіжку за газ і ціни в аптеці, то було б чудово.
Мирон Степанович: А як ваша мама?
Ян Францович: **В своєму репертуарі.** Вчора проїздила на таксі останні 100 гривень, щоб купити помідори на 20 гривень дешевше. Тішить лише те, що сьогодні в мене зарплата. Так?
Мирон Степанович: Уже сьогодні? Яюсь швидко **летить час.**
Ян Францович: А от я ледве дочекався. **Як сказав Енштейн: "Це відносно".**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Готель «Галіція»" (2017–2018, режисер А. Бурлака, автори сценарію Т. Стадницький, В. Кремінь, О. Семенюк, С. Сидорчук),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2.

Стефа: Так. Слухаю. Що? Який **секс по телефону?** Це готель. Побачу Олесю – вб’ю.
Олеся: **Не вбивайте мене, я вам ще пригоджусь.**
Стефа: Так. Ану геть звідти! Я з тобою не розмовляю.
Олеся: Ну, пані Стефа. Ну в чому я винна? В тому, що малий Фаркаш **не заслуговує на вас**, до речі, як і на цей готель?

Стефа: Ти що, ще й натякаєш, що я ровесниця цього готелю?
Олеся: Ой, пані Стефа, та що ви чіпляєтеся за ті слова, **як хабарі до обласного прокурора.** Ви – гарна панянка, на престижній роботі.
Стефа: Все одно я тебе колись вб'ю.
Олеся: **Та на здоров'я.** Але давайте домовимось, що це буде не раніше, чим закінчиться оцей парфум.
Стефа: Боже, мої улюблені.
Олеся: **То я реабілітована?**
Стефа: Ага. Поки живи.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Готель «Галіція»" (2017–2018, режисер А. Бурлака, автори сценарію Т. Стадницький, В. Кремінь, О. Семенюк, С. Сидорчук),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3.

Олеся: Пані Стефа, до вас можна?
Стефа: О, Олеся. Я щось задрімала трохи.
Олеся: І що, малий Фаркаш дозволив вам сидіти у кріслі?
Стефа: Так. До речі дуже зручне.
Олеся: Не сумніваюсь. **Але є один нюанс.** Наступного разу ви вже можете засідати тут безробітною.
Стефа: **Тіпун тобі на язика.** Чого це?
Олеся: **Бо вас звільнять за невиконання службових обов'язків. Я вже задовбалася відповідати на телефонні дзвінки.**
Стефа: А що, їх забагато було?
Олеся: Ні, один. **І то помилились номером. Але то не міняє суті.**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Готель «Галіція»" (2017–2018, режисер А. Бурлака, автори сценарію Т. Стадницький, В. Кремінь, О. Семенюк, С. Сидорчук),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4.

Стефа: Вид з вікна чудовий. Прямо на ратушу. Що? **Та тут така тиша, що було чути, як відлітала душа колишнього господаря...** Трубку кинули. Чому?
Олеся: Того що люди тут збиралися жити, а не вмирати.
Стефа: Так? Може бути.

Олеся: Як я маю цю пляму вивести? Е-е-е, Альо, пане Миколо, а що це там з вас капає?

Микола: Де? Так це фура з яйцями перевернулася. Я назбирав пару десятків майже цілих. Тістечок напечу.

Олеся: Так. Давайте **дуйте** до себе на кухню і там капайте. Блін, от що за готель?! Знову терти... І коли ми ту нову люстру повісимо? **Дев'ять днів минуло, а всіх пофіг.**

Стефа: Точно. **Дев'ять днів. Це ж треба сісти за стіл, пам'янути.**

Микола: До речі, я можу приготувати **кров'янку** за рецептом Фаркашів. Було б дуже символічно.

Олеся: Воно знову тута?! **Капає разом мені на підлогу і на мозги! Згинь, Микола! Боже, Мирон Степанович, як нам вас не вистачає!**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Готель «Галіція»" (2017–2018, режисер А. Бурлака, автори сценарію Т. Стадницький, В. Кремін, О. Семенюк, С. Сидорчук),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5.

Олеся: Ну що ж, я думаю, що **всі в курсі**, чого ми тут зібралися.

Толік: А що, малий Фаркаш втік з психушки у костюмі Наполеона?

Олеся: Нагадую, що у пана Андрія тимчасовий розлад. Нічого серйозного. Просто **на людину навалилося дуже багато всього.**

Толік: Хотів би, щоб на мене так навалилося. Я б все продав і поїхав би на Канари.

Олеся: Тому **слава Богу**, що він – то не ти. До речі, наш новий власник реально хотів **втримати готель на плаву**. І ми в цьому маємо йому допомогти.

Толік: Судячи з того, в якому стані готель, **він навряд чи потоне.**

Стефа: Так а що ми маємо зробити? Ми ж не знаємо, що робити.

Олеся: Ось і я так думаю. Тому нам потрібні вибори.

Ян Францович: Що? Кожних два роки вибори. Та дайте тим депутатам хоч трохи попрацювати.

Олеся: Ян Францович, я маю на увазі, що нам треба вибрати нового розпорядника, поки немає пана Андрія.

Толік: (Співає) **Вибори, вибори. Кандидати...**
Олеся: Я б на твоєму місці так не співала, того що всі кандидати тут.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Готель «Галіція»" (2017–2018, режисер А. Бурлака, автори сценарію Т. Стадницький, В. Кремінь, О. Семенюк, С. Сидорчук),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6.

Олеся: Ну як справи?
Стефа: Вже закінчуємо.
Олеся: Добре. [Весільна арка] дуже гарна. Пряма як я і уявляла.
Стефа: Дякуємо.
Ян Францович: Олесечко, коли ми вже для вас щось подібне **забабахкаємо?**
Олеся: Ой, Ян Францович, я вас прошу. Я ще дуже молода для тих усіх перформенсів.
Стефа: Повір мені, Олеся, з **таким відкладати не треба**. Я он **довідкладалася**.
Ян Францович: Зате маєш тепер на утриманні п'ять **товстих котів**.
Стефа: Із задоволенням поміняла їх би на одного **худесенького чоловіка**.
Олеся: Слушайте, а може вам тойво і під арку.
Стефа і Ян Францович: Він/ Вона **не в моєму смаку**.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Готель «Галіція»" (2017–2018, режисер А. Бурлака, автори сценарію Т. Стадницький, В. Кремінь, О. Семенюк, С. Сидорчук),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7.

Заступник мера: Замахався, Андрюша? Мої вітання. Скучив?
Андрій: А що, мерію сміттям завалило, що ви до нас завітали?
Заступник мера: От знаєш, що мені в тобі завжди подобалось? Це твоє почуття гумору. А ще ти непогано вивчив українську.
Андрій: Намагаюсь. Ось вам із новенького: **"Чого пришкандибали?"**
Заступник мера: Ну, розумієш, було у мене натхнення. Сидів я за келихом мартіні і несподівано зрозумів, що **життя пливе поруч, а я стою на березі та гаю час**.

Андрій: Вас що, звільнили?
Заступник мера: Та ні, ви що. Я просто...
Андрій: **Турнули?**
Заступник мера: Взагалі-то нема такого слова в українській мові.
Андрій: **Дали копняка. Послали під три чорти? Блін**, я починаю вірити у справедливість.
Заступник мера: Ну гаразд. Я просто почув, що у вас посада адміністратора звільнилась.
Андрій: Ну звільнилась і що?
Заступник мера: А просто з моїм талантом управління та комунікації...
Андрій: Так, не продовжуйте. Тим більше, що я вже прийняв рішення.
Заступник мера: Так швидко?
Андрій: **А чого тягнути?** Ходімо, я познайомлю вас з персоналом.
Заступник мера: Сюди?
Андрій: Мг. Ян Францович, знайомтесь. Це **персона нон грата** нашого готелю.
Заступник мера: Дуже приємно. А? Тобто?
Андрій: Запам'ятайте. Цього чоловіка до нашого готелю ніколи не пускати.
Ян Францович: Зробимо.
Андрій: Знаєш що, Андрюша. А я з першого разу і не сподівався. Але, Андрюша, **ще не вечір.**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Готель «Галіція»" (2017–2018, режисер А. Бурлака, автори сценарію Т. Стадницький, В. Кремінь, О. Семенюк, С. Сидорчук),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8.

Олеся: Ян Францович, що ви **круги намотуєте, як лічильник за світло взимку?**
Ян Францович: Того що трапилося страшне. В одного нашого гостя дещо пропало.
Микола: Дещо що?
Ян Францович: Дресерований павук.
Олеся: Павук? Бе-е-е.

Ян Францович: Ну що, допоможете його знайти?

Толік: Співчуваю, Францовичу, але я з дитинства боюсь павуків і до того ж я не щеплений.

Микола: Я теж.

Олеся: А я тільки одного слова "павук" боюсь.

Ян Францович: Друзі, ми ж одна команда. **Один за всіх і всі за одного.** І решта того, що нас вчили на тому тренінгу.

Толік: То був безкоштовний тренінг.

Ян Францович: А інтереси готелю? Пані Олеся, от якби у нас був готель з привидами і з тарантулом.

Олеся: Зачекайте. Ви сказали, що пропав павук.

Ян Францович: Павук. Тарантул.

Олеся: А-а-а-а!!!

Так панове, будемо вважати, що ми всі видихнули і приступимо до пошуку того скорпіона.

Толік: Скорпіона?

Олеся: Тфу-ти, тарантула.

Толік: Все одно легше не стало.

Олеся: Полегшає тоді, коли ми його знайдемо.

Ян Францович: Дякую, Олеся.

Олеся: Потім будете дякувати. Ще не вистачало, щоб когось із постояльців **Кондратій вхопив.**

Ян Францович: **Не Кондратій, а Теодор Олексійович.**

Олеся: Так, Миколо, ти дивишся на кухні, Толік – на барі, а ми з Францовичем у холі пошукаємо.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Готель «Галіція»" (2017–2018, режисер А. Бурлака, автори сценарію Т. Стадницький, В. Кремінь, О. Семенюк, С. Сидорчук),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9.

Толік: Це **розвод!** Я на таке вже разів 20 потрапляв. Повірте, більше мене не розвести.

Микола: Я взагалі не розумію, питання в чому.

Адміністратор: Та я ж вам кажу. Мені на електронну пошту прийшов лист від короля Нігерії. І скоро він перерахує мені багато грошей.

Микола: І все?

Адміністратор: Ні. Мені ще треба перевести йому 300 євро. І він одразу переведе мені свої гроші.

Микола: Все одно нічого не зрозуміло.

Толік: Я ж кажу, це точно розвод.

Ян Францович: Ну, молодий чоловіче, тут з вами я не можу погодитись. От у однієї подруги моєї мами була подібна ситуація. Десь там прийшов якийсь лист.

Адміністратор: Так-так-так. І що?

Ян Францович: Тепер вона **в шоколаді**. **Живе** десь на Карибах **на дуже широку ногу**.

Адміністратор: Я знав. Я знав, що таке існує. Він же все ж таки король, а не президент якийсь. **Точно не кине**.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Готель «Галіція»" (2017–2018, режисер А. Бурлака, автори сценарію Т. Стадницький, В. Кремінь, О. Семенюк, С. Сидорчук),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10.

Олеся: Добрий ранок, коханий.

Андрій: Воу-воу-воу. Що це таке? Кава у ліжку?

Олеся: Ну не **вечір в хату**.

Андрій: Несподівано. Ммм. А що за привід? Ти що, розбила нашу автівку?

Олеся: У нас немає автівки.

Андрій: Це тимчасово. **Колись** давай уже.

Олеся: Ну ОК. Але для початку маленька прелюдія.

Андрій: Хм. Я згодний. Поїхали.

Олеся: Та не така прелюдія! Отже, по-перше, я вважаю, досить сносно говориш українською .

Андрій: Спасі... Тобто дякую.

Олеся: По-друге, ти вже **просунувся** у вивченні історії України.

Андрій: Так, і що це визначає?

Олеся: Ох. Це визначає, що прийшов час зробити нам весілля для моїх батьків і родичів.

Олеся: Отже підготовку до весілля почнемо з мого **дівішніка**, бо його перед розписом не було.

Андрій: Зачекай. Мого **мальчішніка** теж не було.

Олеся: Да-а? А мені здалося, що...

Андрій: Тобі тільки здалося.

Олеся: Ну тоді добре. Робимо і то, і то. Я планую дівішнік робити сьогодні на барі.

Андрій: Чому саме там? На бар – це заклад для **брутальних мачо**, таких як твій чоловік та його друзі.

Олеся: Це ти про Францовича?

Андрій: Не важливо. А ось твоїм подружкам дитяча кімната в Макдональдсі – саме то.

Олеся: Окей, мачо. Я все зрозуміла. **Тоді будемо кидати монетку. Чур я решка.**

Андрій: **Орел.** Згодний. (*Ловить монетку*) Орел!!!

Олеся: Е-е-е! Так нечесно!

Андрій: Чому не чесно. Я колись в дитинстві впав з дерева на їжака і мене одразу прозвали ‘фортовий’.

Олеся: Ну коханий!

Андрій: Я теж тебе кохаю, люба. Але мій мальчішнік буде на барі.

Олеся: Тук-тук-тук. Є хто?

Привид: Фактично, я ніби є, але з наукової точки зору мене не існує.

Олеся: **Тфю-ти на тебе. Підкрадається так непомітно, як старість.**

Привид: Взагалі-то бути непомітним – це суть мого існування. А ти чого сьогодні якась **дьоргана**?

Олеся: Бо ми з Андрієм не поділили бар.

Привид: О, розподіл майна. Так ви вже розлучаетесь?

Олеся: **Тфю-ти на тебе ще раз.** Я просто хотіла робити у барі дівішнік, а він у мене **в орел і решка** виграв.

- Привид: А, так от чого ти така похмура. Послухай мене, мала, на світі є безліч місць, де можна **напитися в зюю**. Наприклад...
- Олеся: Якщо ти скажеш про дитячу кімнату в Макдональдсі, я тебе вб'ю.
- Привид: Ну це був мій другий варіант, але найкраще місце для твого дівішніка – це **мої скромні апартаменти**.
- Олеся: Тут?
- Привид: Та ти тільки уяви. Старовинний автентичний інтер'єр, який дихає таємничістю, де кожна річ має свою історію, кожна річ має свою легенду. І головне, тут є те, чого немає ніде.
- Олеся: Що?
- Привид: Я. Пара моїх потойбічних фокусів і твої подружки від заздрощів...
- Олеся: Обдзюряться! А-а-а!!! Я згодна. Ти тільки Андрію не кажи, бо зараз знов **захоче монетку кидати, бо профукав реально афігенний варіант**. Ти геній!
- Привид: А я і справді геній. Стільки молодих дівчат **під шафе**. Хочу на таке ще раз подивитися. Ха-ха-ха!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Готель «Галіція»" (2017–2018, режисер А. Бурлака, автори сценарію Т. Стадницький, В. Кремінь, О. Семенюк, С. Сидорчук),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Вправа 11. Доберіть еквіваленти серед поданих корейських і українських виразів:

- | | |
|-----------------------|--|
| 1. 전혀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 | ● Я це і маю на увазі. |
| 2. 내 말이 그 말이다. | ● У мене немає жодного наміру це робити. |
| 3. 약속이 틀리잖아요. | ● Тобі не здається, що ти занадто драматизуєш. |
| 4. 넌 내 손바닥 안이야 | ● Критика корисна для здоров'я. |
| 5. 쓴소리가 몸에 얼마나 좋은 건데. | ● Я знаю тебе, як свої 5 пальців. |
| 6. 너무 각색이 심하지 않냐? | ● Ми так не домовлялися. |
| 7. 먼저 등을 돌린 건 그쪽이었다. | ● Пригріли на грудях змію. |

- | | |
|------------------|------------------------------------|
| 8.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 | ● Початок – половина справи. |
| 9. 호랑이를 키웠다. | ● Він першим відвернувся від мене. |
| 10. 시작은 반이다. | ● Книгу судять по обкладинці. |

Вправа 12. Перекладіть україн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вульгаризми:

1. 어이가 없네, 진짜. 2. 저런 새끼가 다 있어, 씨. 3. 나 바보 아니야. 4. 우리 아버지가 원래 깡패였어. 5. 이게 제멋대로 남의 집에 기어들어 와서 웬 개소리야?
6. 형님! 그년이 나타났습니다. 7. 남자는 친절하면 바람둥이, 불친절하면 사기꾼, 그런 종족들이야. 8. 아휴, 한심한 년! 아휴, 똥개 멍청이 같은 계집애! 9. 이 병신 새끼 왜질까? 10. 무슨 이런 개털 일반덩이 다 있어? 삼천 원만 있다, 이 등신아, 씨. 11. 갑자기 네 친구 생각난다. 특히 엉덩이. 엉덩이가 예쁘더라고 애플 힙, 죽여. – 와, 진짜 알짬없이 저질이시네요. 12. 왜 내가 만나본 회사 사장들은 하나같이 악덕 기업주 아니면 변태 아니면 이런 또라이일까? 13. 제가 뭐? 이 새끼, 이 자식, 이 미친놈, 이 변태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 인간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멍에 훼손이라는 겁니까? – 이 인간이란 표현은 상대를 인간 이하로 폄하하고 싶으나 자신의 인격적 레벨을 유지시키는 선에서 겨우 참아 내는 순화된 표현이지. 14. 너 뭐냐? 원하는 걸 말해, 이 개자식아! 15. 우주를 괴롭히는 악당들아,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16. 그 사람이 대가리에 똥만 박혔다고 그래, 그래 쌍욕을 해 쌓더만 기생오라비 같은 게 옷에 환장했다 쟤나, 안 쟤나? 17. 그 새끼 친구인 척하면서 되게 거슬리네.

Вправа 13. Перекладіть корей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вульгаризми:

1. Оце малолітнє **чувирло**. Воно ще і російськомовне. 2. Воно ще й **криворуке**.
3. А він **підлабузник**. 4. Таких **роздовбаїв**, як він, треба ще пошукати.
5. Він розводить тебе, як Толік каву на барі. Покажи йому **дулю**. Якщо погодишся, будеш **лох**.
6. Останній раз ви нас збирали, щоб сказати, що всі мужики – **козли**.
7. Такий же **невдаха**, як ти, але широкої душі людина.
8. От **нероба**. 9. Я ту **байду** другий раз їсти не буду. 10. А тебе бджоли в **попу**

не кусали, бо мені здається, там щось злиплося. 11. Після вчорашнього якось з Андрієм порозумітися треба. – Ой, я вас прошу. Вмикайте **дурня**, ніби нічого не було. Або **дурепу**... 12. Ти подивись на нього – який **мордоворот!** 13. Це не елітне вино, а якась **бормотуха**. Перестань продавати клієнтам усякий **шмурдяк**. 14. Ну ти подивись на нього, він реально **малолітка**. 15. От **сучка**, купила вже дачу, а позаздрити не покликала. 16. От **холера!** Останній раз така розлючена жінка була в цьому готелі у ХІХ сторіччі, але цю **відьму** спалили, дякувати Богу.

Вправа 14. Перекладіть україн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реалії:

1. 여자랑 밤에 단둘이 라면 나눠 먹으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하다. 2. 엄마, 그 사람 여자한테 관심이 없다니까. 내가 몇 번 얘기해? – 나도 춘심이 키우기 전에는 개를 무척 싫어하던 사람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개고기였거든. 사람은 다 변하게 돼 있어. 3. 뭐야? – 그냥, 뭐, **화이트 데이**인가. 그래 가지고. 먹어 봐. 4. **소복** 입고 머리 풀고 명석 깔고 사장 집에 가서 석고대죄해! 5. 현대의 의학보다는 진짜 **똥술**이 직방입니다. 6. 왜 너만 토스트냐? 초콜릿에? – 저는 어제 술을 안 먹었기 때문에 **해장국**이 필요 없습니다. 7. 너 진짜로 **도봉구 도봉동**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름을 **도봉순**으로 지은 거야? 8. 오늘 절에 가자. 가서 부처님한테 눈도장 찍고 오자. 부처님이 우리 얼굴 잊어버렸겠다. 9. 봉순이 취직했다매. – 아휴, 두고 봐야 알지. 개 **사주팔자**에는 한곳에서 진득하게 일을 못 한대. 역마살이 켜 갖고. 10. 쌤, 출근하셨네요. **두부**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 내가 감옥 갔다 왔냐? 11. 내가 **닭똥집** 구워요. **꿀맛탕**. **닭발** 먹을래?

Вправа 15. Перекладіть корей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алюзії:

1. Нічого собі **Санта Барбара**. Від кого від кого, а від Олесі я такого не чекав. 2. Ну що, **Геракл**, не зміг зробити свій перший подвиг? 3. Я зараз викличу вантажників і хай вони ту **каменюку Сізіфову** догори і пруть. 4. Не хотів я відкривати цю **скриньку Пандори**, але ти мене змусив. 5. Щось ви не схожі на

Ноєвого голуба і самі на себе не схожі. 6. Щось ви якось дивно виглядаєте. Таке враження, що загубили **Наполеонівську шапку**. 7. Не треба бути **Вангою**, щоб побачити, куди пливе цей наш **‘Титанік’**. 8. Давай виженемо їх всіх, як **Ісус** торговців з церкви. 9. А у цієї **Барбі** нормальний удар. 10. Теж мені, **принцеса на горошині**. 11. Господар і покоївка – **мексиканські серіали** відпочивають. 12. Божечко мій милий, я надіюсь, мені премію дадуть за ці масштаби гармидеру. Тут можна продовження **‘Мальчішніка в Вегасі’** знімати прям зараз. 13. О, яка шафа велика. Прям можна в ній жити. Нагадує **гробницю Тутанхамона**. Я її звісно не бачила, але думаю, що така сама. 14. Оце жестяк. Куди це я потрапила? Вау. Круто. Так, **Лара Крофт**, і чи можна пожитися в цій гробниці, зараз подивимося. 15. Слухай ти, **Фреймут** для бідних, закінчуй хаяти мою резиденцію. 16. **Вічно можна дивитися на вогонь, на воду, і як людина добровільно розлучається зі своїми грішми.**

Вправа 16. Перекладіть україн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фольклоризми і лінгвокультуреми:

1. 뭘 믿고 이렇게 까불어? 목숨이 십팔 개 정도 되냐? 2. 우리는 오늘 백일이다. 3. 그냥 짝사랑만 평생 들입다 하게 생겼어요. 4.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인사나 합시다. 5. 우리 엄마는 워낙 여왕 병이 좀 심하신 분이래 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밥이고 반찬이고 그런 거 다 하고 자라서. 6. 표정이 왜 그러냐? 꼭 짝사랑하는 남자 애인이라도 본 사람마냥. 넌 다 보여.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여. 7. 진짜 그 점쟁이 눈깔 봤나? – 진짜 무섭더라. 꼭 여장군 신이 들어온 것 같았어. 8. 아이고, 동생이 많이 컸다. 삼각관계도 다 만들 줄 알고. 9. 옛날에 떡장수가 왜 호랑이한테 잡아먹혔는 줄 알아?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할 때 떡을 덩석 내주니까. 그래서 잡아먹힌 거야. 먼저 협상을 했었어야지.

Вправа 17. Перекладіть корей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ають сленгові слова:

1. Попрошу вас не домахуватися до нюансів. 2. Поки ти роздуплишся, там уже стриптиз закінчиться. 3. Опа, назріває махач. 4. Щось я вчора назююкалася. 5. Прикинь, я теж купився. 6. Мені немає коли фігньою займатись.

7. Я зараз йому влаштую **вирвані роки**. 8. Ну чого ти **кіпішуєш**?
9. Що конкретно тебе **напрягає**? 10. Якщо я правильно розумію мову жестів, то тобі **набивають стрілу** у затишному місці. 11. Кажі, що згоден. **Не гальмуй**.
12. Щось пішло не так? – Так. Там портал **заключив**. Поки його не полагождать, мені доведеться **потусуватися** з вами. 13. І давно у вас ці **шури-мури**?
14. **Посьорбайте**, будь ласка, чайок в автоматі. Мені треба одне питаннячко вирішити. 15. А на останній слайд можна поставити якийсь цікавий **мемасік**.
Прогресивні точно **зацінять, вангую**.

РОЗДІЛ 2 ТВОРИ КРИМІНАЛЬНОГО ЖАНРУ

Вправа 1. Перекладіть діалоги із серіалів "힘센 여자 도봉순" і "수상한 파트너" українською мовою. Зверніть увагу на способи перекладу юридичної лексики:

1.

- 남자: 들어와. 어, 너 약 하나? 아, 그래, 내 취향 들었지? 한번 해 봐.
야, 그만해! 그만해! 뭐야, 이거?
- 이국두: 당신은 목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도 할 수 있습니다.
- 남자: 야, 너 경찰이야? 너 이 새끼 영장 있어?
- 이국두: 영장은 선체포 후 24 시간 내 청구할 생각이요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일단 체포하겠습니다.
- 남자: 너 내가 누군지 알아?
- 이국두: 아저씨, 그걸 내가 알아야 돼?
- ***
- 국가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법 61 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이든 간접이든 불문하고 사례, 증여 혹은 향응 수사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명시하고 있잖아요. 아니,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고 해서 한 거고. 잡고 보니 국회 의원인데 그게 제 잘못이에요?
- 경찰 1: 야, 이 경위, 작작 좀 해. 너 이러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한 방에 훑 간다.
- 이국두: 어디 한번 해 보십시오!
- ***
- 경찰청장: 아니, 뭐 이런 또라이 같은 새끼가 다 있어? 지금 윗선에서 난리 났어.
- 경찰 2: 저, 이게 살짝 맛이 간 녀석이라. 개가 경찰대 다닐 때도 그 유명한 꼴통이라고. 저, 그,그, 그러더라고요.
- 경찰청장: 하, 그 새끼 그거 매연에 질식해서 아주 죽어 버리게 교통과로 보내!
- 경찰 2: 아니, 그건, 저, 보는 눈이 많이 있어서 그건 좀...

경찰청장: 그럼 너희 서 제일 실적 안 좋은 데다 갖다 쫓든가!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힘센 여자 도봉순" (2017, режисер 이형민, автор сценарію 백미경),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Netflix.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2.

방 계장: 딱 17분 붙이셨어요. 감사님은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불명증과 전쟁이세요.

지옥: 잠 좀 폭 자게 해주는 사람 나타나면 내가 몸도 영혼도 다 갖다 바칠지도 몰라요.

방 계장: 침대가 너무 넓으면 그럴 수 있대요. 좋은 짝 만나시면 꿈잠 주무실지 모르는데, 유후!

지옥: 짝은커녕 만나면 안 될 여자 꿈을 꿨네.

방 계장: 만나면 안 될 여자요?

지옥: 네. 어렸을때 우리 동네에 사이비 뺑중이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무슨 그때 되도 않는 웃긴 얘기를 했는데. 아이, 까먹고 있었는데 꿈에 나타났네. 뭐라 그랬더라. 무슨 내 인생에서 만나면 안 될 여자가...

(휴대전화 진동한다).

은봉희?

방 계장: 만나면 안 될 여자가 은봉희래요? 그걸 어릴 때 맞혔대요?

지옥: 뭐야, 이 시간에? 어.

봉희: 그게요. 감사님.

지옥: 아, 뭐야, 빨리 말해. 간략하게 용건만...

봉희: 제가 긴급 체포가 돼서요.

지옥: 긴급 체포? 너 술 얼마나 먹었어?

봉희: 안 마셨어요.

지옥: 뭐, 술도 안 먹고 긴급 체포? 뭐야, 폭행?

봉희: 아니요.

지옥: 절도?

봉희: 설마요.

지옥: 공연 음란?

봉희: 그럴 리가요.
지옥: 아이, 대체 뭐야, 종목이?
봉희: 살인입니다.
지옥: 참 나. 살인...
봉희: 어떡해?

(경찰서에서)
지옥: 야, 온봉희! 너 정말...야, 도대체가 너는... 너 일로 와, 야!
너 죽었어, 진짜!
봉희: 제가 사고를 친 것 같긴 한데...
지옥: ‘했어요’도 아니고. 뭐, ‘한 것 같긴 한데’, 어?
봉희: 그, 뭐가 잘못됐구나. 여기까진 알겠는데 대체 뭘 잘못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지옥: 고개 돌려.
봉희: 싫은데, 왜요?
지옥: 아, 그 뻔뻔한 얼굴 좀 보게 고개 좀 돌려 봐.
봉희: 의도친 않았어도 결국 사고를 친 거니까 그건 잘못했다 치고요.
그치만 난 그냥 한밤중에 목이 말라 맥주 사러 나갔던 것뿐이고.
갔다 왔더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고. 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고. 실감 안 나고 무섭고. 근데 또
의지할 사람은 검사밖에 없고.
지옥: 왜 날 의지해? 하지 마.
봉희: 할 거예요. 검사님밖에 없잖아요. 내 주변에 법 알고 힘 있는
사람.
지옥: 너 그거 옷부터 벗어.
봉희: 네?
지옥: 씻으라고. 너 그 옷은 증거물로 제출해야 될 거고. 그리고 뭐,
갈아 입을 옷은 방 계장님이 갖다주실 거고. 씻어내. 그거부터.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수상한 파트너" (2017, режисери 박선호, 정동윤, автор сценарію 권기영),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Netflix.*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지옥: 자, 시작하죠. 지금 은봉희 씨는 장희준 살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차장: **빨리 자백받고 기소해.** 너 이거 기소 성공 못 하고 법정 최고형 못 받아내면 너 옷 벗는다. 옷 벗고 변호사도 못 해. 운 좋아도 저기 어디 지방 촌구석 같은 데서 늙어 죽는 거야, 알아? 쫓.

지옥: 이 모든 정황이 은봉희 씨를 가리키고 있다는 건 인정하죠? 은봉희 씨가 주장한 편의점에서 만났다는 아르바이트생 진술서예요. ‘그날 밤 손님이 있었던 건 기억하지만 얼굴은 기억나지 않는다. 은봉희 씨를 만난 것 같진 않다’.

봉희: 저기. 잘 안 들려요.

지옥: 그날 밤 정전이었고 CCTV도 고장 나 있었고. 그건 곧 은봉희 씨가 주장한 한밤중의 외출을 증명해 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긴데. 뭐, 아직도 안 들리나?

봉희: 정확히는 안 보여요. 렌즈는 못 끼게 하고 안경은 아까 어떤 기사 새끼...어떤 기자님이 뽀개버려서 제가 지금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상하게 안 보이면 귀도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검사님이 어떤 표정인지 모르니까 어떤 맘인지 어떤 생각인지 도통 모르겠어서.

지옥: 그래서? 나는 은봉희 씨 사정 너무 잘 알아. 뭐, 장희준 그 새끼가 먼저 바람피운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날 밤 은봉희 씨 심정이 어땠는지 진짜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말인데...

봉희: 안 먹혀요. 검사님 신문하는 거 한두 번 봐요. 회유 작전, 사탕 주고 어르는 거.

지옥: **현장에 먼저 도착한 구급대원이나 경찰 말고 사건 현장에 다른 족적, 지문, DNA, 아무것도 없었어.** 유일하게 은봉희 그리고 칼에 맞아 죽은 장희준 단 둘뿐이야. 이래도 니가 아니야? 어?

봉희: 이것도 안 먹히는데.

지옥: 그러니까 안 먹히잖아, 이거. 아이, 씨.

어차피 너는 기소될 거야. 동기 충분하고 알리바이 없고 살해 장소는 니 집, 다른 용의자는 없어. 어때, 충분하지?

봉희: 그치만 저 정말 아닌걸요.

지옥: 그딴 건 상관없어. (생각 중) 무죄든 유죄든 은봉희 넌 법정 최고형을 구형받을 거야.

봉희: 검사님, 저 믿죠? 저 검사님 믿어요. 검사님이 날 믿는다는 거, 검사님이 내 편이라는 거, 현재 나에게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거.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수상한 파트너" (2017, режисери 박선호, 정동윤, автор сценарію 권기영),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Netflix.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4.

지옥: 피고인 은봉희는 과거 여인이었던 피해자 장희준의 이별 요구에 앙심을 품고 살인을 계획 2015년 5월 11일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피해자 장희준을 유인 날카로운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은봉희를 형법 250 조 살인죄로 기소합니다.

판사: 변호인,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변호사: 아니요. 공소 사실을 부인합니다. 피고인 은봉희는 무죄를 주장합니다.

지옥: 어, 증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장희준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을 목격한 적이 있죠?

지해: 네. 직접 두 눈, 두 귀로 보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연수생들이 목격했습니다.

변호사: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 "속상해 죽겠어" 흔히들 쓰는 표현이죠? 과연 이 말을 쓴 사람들은 모두 죽었을까요? "죽여버리겠어"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해: 은봉희는 분명 의도를 갖고 말했습니다. 농담이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었던 거죠. 즉, 그 말을 내뱉은 순간 은봉희는 바로 잠재적 살인자였다고 전 생각합니다.

변호사: 증인 나지해 씨도 이 같은 발언을 경찰서에서 했다는 증언이 있는데요.

지혜: 네? 아, 그거는 아니...

변호사: 의도를 갖고 있었고 농담이 아니었죠? 그렇다면 증인도 잠재적 살인자인가요?

동기: 이상한 저주와 원한의 노래 같은 것들을 막 부르고 다녔어요. 아, 막 개사를 해서 부르기도 했고.

지옥: 네, 뭐, 예를 들어서요?

동기: 아, 지금요?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파이프, 식스, 세븐, 에잇.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저주하는 내 모습을 꼭 기억해라. 죽어버릴 테니까.

변호사: 증인은 은봉희와 장희준이 헤어진 뒤 피고인 은봉희에게 교제를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기: 아니, 아니 그거는 반쯤 장난이고, 네.

변호사: 모두 세 차례 정도 교제를 신청했었고 번번이 묵살당했었죠?

동기: 네. 예, 뭐, 그렇긴 한데.

변호사: 은봉희가 정말 사람을 죽일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과연 교제 신청을 했었을까요? 증인, 혹시 교제를 거부한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동기: 아니... (은봉희를 보며) 저 신변 보호 될까요?

봉희: 제가 피해자 장희준을 없애 버리겠다고 저주한다느니 그랬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순간적으로 욕하는 감정이었을 뿐. 진짜 죽일 마음은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살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동네방네 떠돌고 다니지 않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생각하는 모든 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남편이나 남친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 하잖아요. 아닌가?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수상한 파트너" (2017, режисери 박선호, 정동윤, автор сценарію 권기영),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Netflix.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5.

지옥: 재판장님,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피고인 신문까지 마친 상황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한다는 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옥: 본 증거는 5 월 15 일 15 시 살해 현장, 즉, 이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흉기입니다. 다만 이 흉기가 피해자 장희준을 찌른 흉기가 맞는지 정확한 검사가 필요했고. 그 검사 결과가 어제저녁에야 나와 본의 아니게 증거 제출이 늦어졌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재판장님, 기록에 의하면 검경 합동으로 수차례 현장 수색이 이뤄졌었습니다. 물론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일이 흘러 갑자기 흉기가 발견됐다는 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증거 채택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 일단 증거로 채택하되 법의학자 얘기도 들어보도록 합시다.

지옥: ‘피해자 장희준의 몸에서 발견된 자상과 발견된 흉기의 형태가 아주 일치한다’. 그 말씀이시죠?

법의학자: 네. 자상의 길이와 넓이 등을 보면 대충 사용된 흉기의 형태가 나오는데 현재 증거로 제출된 흉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변호사: 현장 수색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발견되지 않던 흉기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 이거 뭔가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자, 만에 하나 가능성입니다. 흉기에 묻은 장희준의 혈흔이 조작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장희준이 사망 당시에 입고 있던 옷이나 소품에서 채취한 혈흔을 흉기에 묻히는 거죠.

법의학자: 그게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말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 역사 아니...

변호사: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상입니다.

판사: 검사, 최종 의견 진술하세요.

지옥: 예, 피고인 은봉희는 2015 년 5 월 11 일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수파 아파트로 피해자 장희준을 유인하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있습니다. 이에 본 검사는 최종 구형 합니다.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점, 그리고 재판 내내 거짓말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법 제 250 조 살인을 적용해 징역 15 년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행위를 인한 것이라는 검찰의 기소 내용은 몇몇 정황의 증거만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의...
(지옥 씨는 갑자기 일어난다.)

판사: 검사, 지금 변호인 최종 변론인 건 알고 있습니까? 검사가 왜...

지옥: 아, 재판장님,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판사: 지금 추가 증거라고 했습니까?

지옥: 네. 아, 사실은 그 발견된 흉기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발견된 두 개의 흉기... 이 두 개의 흉기 모두에 피해자 장희준의 혈흔이 묻어있었습니다. 자, 여길 보시면 다른 흉기가 발견된 장소의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사건 현장으로부터 약 7km의 거리, 피해자 사망 시각과 구급 대원 출동 시각을 고려해 봤을 때 피고인 은봉희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흉기를 은폐, 유기하려 하기엔 도저히 불가능한 거리입니다. 흉기를 멀리 내다 버려줄 제상의 공범이 있거나 피고인이 순간 이동이라도 하는 슈퍼 히어로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얘기하는 뜻입니다...

판사: 그런데 검사는 왜 이 증거를 이제야 제출하는 거죠?

지옥: 의도적으로 배제했었습니다. 진실 여부보단 저한테 공소 유지가 더 중요했었으니까요. 흉기가 두 개라는 건 그들 중 하나는 조작된 증거라는 뜻일 겁니다. 이는 곧 증거 능력 상실을 뜻하며 이에 본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 255 조에 따라 공소를 취소합니다.

봉희 엄마: 당최 못 알아듣겠네. 그래서 우리 봉희가 어쩐다는 건지? 저, 뭐 말이에요? 아니, 무슨 뜻이에요?

영희: 검사가 지 무덤 봤고요. 피고를 풀어준단 뜻입니다. 저 감사가요. 자폭했고요. 피고인인 은봉희 씨는 풀려 날 거라고요. 어, 그러니까 집에 가도 된다는 뜻입니다.

봉희 엄마: 어, 선생님, 감사합니다.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수상한 파트너" (2017, режисери 박선호, 정동윤, автор сценарію 권기영),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Netflix.*

Вправа 2. Перекладіть україн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сталі вирази:

1. 도봉순이? 어째 이름이 귀에 익다?! 2. 수상한 사람이 있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어요. 3. 뭐든 아껴 봐야 똥 되더라. 4. 뭘 놈의 시간이지 혼자 바빠. 5.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집에 들어오라는 거는 딸 앞길을 막는 거지. 6. 칼을 능수능란하게 쓰는 놈이 아니다 보니까 주먹으로만 해결하려고 한 걸 수도 있고. 7. 경찰이 헛다리 짚게 되는 건데. 8. 내가 음식 한 사람 성의를 봐서 먹어 주는 도량이 있잖니. 9. 제 할 일을 똑 부러지게 하는 타입이에요. 10. 너, 내 딸이지만 여러모로 두루두루 많이 빠지는 거 알고 있지? 그럼 노력을 좀 해야지. 11. 제가, 열이 뻥 받으면 대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12. 그 여자가 나가면 함흥차사야.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아. 13. 모난 돌이 정 맞는다. 14. 결혼해. 이제 우리도 뿌리 있는 기업가랑 인연 맺어서 깡패가 어찌다 성공한 기업이란 이미지를 없애야지. 그리고 그 해괴망측한 소문 잠재울 방법도 그것뿐이야. 결혼해. 15. 비록 년 날 배신했고 날 찼고 날 아프게 했지만 니가 진심으로 잘못되길 바란 적은 없어. 부디 편히 쉬길 진심으로 명복을 빌게. 근데 비는 건 비는 건데 왜 하필 내 집에서 죽었니? 이 넓고 넓은 세상에서 왜 하필 내 집에 기어들어 와서 죽었냐고! 끝까지 날 엇 먹이자 걱정했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 나쁜 놈아! 16. 네? – 아니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혼잣말이요. 17. 영장 쳐달라는 부탁을 사양합니다. 저 모가지 날아가요. 18. 이야,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말은 이런 데 쓰는 거구나.

Вправа 3. Перекладіть корей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сталі вирази:

1. Якщо ти вирішив **викинути гроші на вітер**, то у мене є надійні варіанти, скажімо, пошуки філософського каменю, цвіту папороті, будівництво моста через Чорне море до турків. 2. Я не володію необхідною інформацією. А **вішати лапшу** – це не моє. 3. Те, що пані Зося **накивала п'ятами**, то добре, але хто буде за неї працювати. 4. Ми **пригріли на грудях зміюку**. 5. Та ти **повний нуль** без

своєї команди. 6. Можете вважати, що готель у вас в кишені. 7. Поживемо – побачимо. 8. Дякую, друже, з мене рогалик. За мною не заржавіє. 9. Я не розумію, чого ти досі не жонатий. – Бо дівчата люблять вухами. 10. Ти можеш нормально пояснити, яка муха тебе вкусила? 11. Знайомтеся, це Андрій, а це його краща половинка – Олеся. 12. Тримайте мене семеро. Зараз буде дещо. 13. В тебе що, клепку замкнуло? 14. Ах ти ж Хома невірющий. 15. Ти що, взагалі неадекватний? Це тупо за вуха притягнуто. 16. Нехай руками нічого не чіпають, бо я за себе не відповідаю. 17. Він до мене нерівно дихає з того моменту, коли я йому ніс зламала. 18. Не в службу, а в дружбу, пробий мені один телефонний номерочок, будь ласка.

Вправа 4. Перекладіть україн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юридичну термінологію:

1. 과학 수사대가 이미 발자국 다 찍어 갔어. 너 혼자 왔었어? 2 인 1 조 개념 없어?
2. 목격자 신변 보호 지원 필요합니다 3. 야, 임마, 이건 완전 중징계감이야!
4. 너 계약 위반이다. 5. 시간 외 근무 수당은 더블입니다. 7. 왜 남자친구 있는 여자 자꾸 만나 주고 그래? 그러니까 여자가 마음을 더 키우는 거란 말이야.
8. 본청에서 우리 팀 빠지래. 아예 도봉동 연쇄 실종 사건에서 손 때란다.
9. 이 형사 사건에서는 우리 노검이 최고입니다. 자백도 가장 받아내고 무죄율이 가장 낮습니다. – 공정히 수사에 임해서 정의를 실현해 주게. 10. 저는 무죄 추정의 원칙상 무죄입니다. 제가 유죄라고 믿으신다면 검찰이 증명해야죠.
11. 그 남자는 그 여자의 곁을 배회했고 그러다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어요.
12. 그 남자는 버스에 탄 건 절대 우연히 아니에요. 분명히 절 미행하려던 거예요.
13. 범인을 잡아서 누명 벗을 기회가 생겼다. 14. 사무실 꼬라지를 좀 보세요. 난 지금 파산 직전이다. 15. 범인이 모자 깊게 눌러쓰고 아주 잘 피했더라고요. 얼굴은 CCTV 에 하나도 안 찍혔어요. – 그럼 몽타주라도 그리세요. – 아깝게도 저도 얼굴을 못 봤거든요. 16. 구매 고객 명단은 영장 없인 불가능한 거요.

Вправа 5. Перекладіть корей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порівняння:

1. Не день, **а фільм жахів** якийсь. 2. Ось ваші окуляри. Так ваш мудрий погляд ще пронизливіший, **немов скальпель**. 3. Прикинь, вона вже годину сидить, **як болонка**, біля ліфта. 4. Впізнаю цей погляд. Я його в університеті боявся, **як вогню**. Навіть зараз холодно. 5. Якби ви знали, як ви мені набридли. Ця жде он. Сіла-встала. Сіла-встала. Скаче, **як свай на стройці**. І ти прийшов тут, умнічаєш.
6. Це ж так просто, **як два на два**. 7. Вдома сусіди ходять, **як слони по голові**.
8. Ой, я ж забула, що ви сьогодні, **як Русалочка**, проміняли голос на принца.
9. Він на мене мабуть злий, як чорт. 10. А що з обличчям? **Наче ви лимон з'їли**.
11. Оцінювати людину за її статтю – це таке саме Середньовіччя, **як і дарувати квіти в целофані**. 12. Ну це ж ясно, **як білий день**. 13. Така тиша, **хоч голий ходи**. 14. Підете додому, коли все перемиєте у лабораторії. Щоб усі пробірки були схожі, **як дві краплі води**.

Вправа 6. Перекладіть україн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алюзії:

1. 너 이 병실에서 꼼짝도 하지 마. 아, 자기가 무슨 **코난인** 줄 아나? 2. 검사님 저한테 히어로예요. **아이언맨**이 와도 안 바뀌요. 3. 너네들 말이야. 그 **'데블스 에드버킷'**이라는 영화 본 적 있나? 거기서 보면은 변호사가 악마한테 영혼을 팔아요. 부와 명예를 위해서라면 악마도 변호를 한다 이거지. 그런 변호사들의 속성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다고나 할까? 하여간에 진짜 변호사들은 내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족속들이야. 4. 이게 봉순이예요? – 응, 완전 똑같지. 마음에 들어? 네가 그런 거는 콧수염만 붙이면 완전 **슈퍼마리오**잖아. 5. '일단 유명해져라. 똥을 싸도 박수 쳐 줄 것이다'. – 어, 앤디 워홀. – 그거 앤디 워홀 아니래요. 그런 말 한 적 없대요. 6. 그럼 너는 평생 남편 얼굴만 보고 가슴 두근거리면서 **'들장미 소녀 캔디'**처럼 사시든가. 가시죠, **차캔디** 씨. 7. **아인슈타인**이 그랬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건 정신병 초기 증세라고. 이 행간의 의미를 몰라? 내가 다른 미래를 살아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잖아. 8. 세상 남편들이 교수님 반만 돼도 우리 나라 이혼을 반으로

뚝 떨어질 텐데.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은 진짜 **노벨 평화상**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9. 저 어렸을 때 ‘**달려라 하니**’라는 만화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하니도 달리기를 하면서 돌아가신 엄마가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래곤 했었거든요. 10. 이따 애들하고 볼 건데 같이 갈까? 너 인주 알잖아. –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컨셉이세요? 아님 **키다리 아저씨**가 컨셉이예요? 지금 저한테 화나 있어야 되잖아요.

Вправа 7. Перекладіть корей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алюзії:

1. Що це за **Том і Джеррі**? Я за тобою ще довго ганятися буду? 2. У тебе в номері повний бардак. Таке враження, що там одночасно фінішували три битви: **Полтавська, при Ватерлоо і битва екстрасенсів**. 3. Люба галицька господиня може дістати зірку **Мішлен** і це тільки за борщ. 4. Мені довелося у **Каспера** ночувати. – Не називай мене Каспером. 5. Ну ти прям **Брюс Вілліс**. – Ні, я янгол-охоронець. 6. Інколи можна людину і припугнуть. Ну так, "**щоб усі боялись і не насміхались**". 7. Гаркни на мене. – Гаррр. – Ой ти Божечки, **овечка Доллі**. 8. Стояти! – Це не вам. "**Охрана, отмена**". Двигаємся. 9. А де туфли? **Карета перетворилась на гарбуз**? 10. (Про око, закрите чорною пов'язкою) А що це за карнавал? Що це з вами? – Виробнича травма. Не звертайте уваги. **Пірат Біллі Бонс**. 11. Не треба дивитися на мене оцими очима **кота зі "Шрека"**. 12. Ні-і-і!!! Це що, знову все заново складати? Що там у нас? Який **ретроградний Меркурій**? 13. Який у вас противний голос. – А ви знаєте, ви теж не **Олег Винник**. 14. Мені здається, чи вони щось від мене приховують? – А ви не хочете пограти в детектива **Коломбо** з ким-небудь іншим? 15. Ти подарував мені **чотири троянди**?

Вправа 8. Перекладіть українською мовою подані речення, звертаючи увагу на способи відтворення звуконаслідувань:

1. 라면을 후루룩 먹는다. 2. 테이블에 쿵 부딪힌다. 3. 냄비 뚜껑을 달그락 닫는다. 4. 문고리를 덜컹 잡는다. 5. 얼굴에 짹 맞는다. 6. 남자가 털썩 쓰러진다. 7. 얼굴이 툭툭 부었네. 8. 바람이 쓱 빠졌다. 9. 공구를 철컹 집어 든다. 10. 숨을 슝 삼킨다.

11. 물을 조르륵 따른다. 12. 천둥이 우르릉 친다. 13. 강아지가 캉캉 짖는다. 14. 수첩을 팔락 펼친다. 15. 초인종이 멩동 울린다. 16. 당구공이 도르륵 내려간다. 17. 공이 땡 울린다. 18. 칼이 쳇 부딪친다. 19. 약을 부스럭 건넨다. 20. 칼이 땡그랑 떨어진다. 21. 코를 드르릉 곤다. 22. 문이 철커덩 닫힌다. 23. 문이 스텍 여닫힌다. 24. 지난 2년 동안 끽끔 숨어있는 범인이 눈앞에 나타났다. 25. 물 꿀꺽꿀꺽 삼킨다. 26. 껌을 질경질경 씹는다.

Вправа 9. Перекладіть полілоги із серіалу "Дільничний з ДВРЗ" корейською мовою. Зверніть увагу на способи перекладу виділених фрагментів тексту:

1.

- Капітан: **Капітан Бондар. Карний розшук.**
- Прокурор: А мені дзвонили з **прохідної**. Ви з приводу того ДТП.
- Капітан: Мг. Дуже хочу **ознайомитися з матеріалами справи**.
- Прокурор: Та що там знайомитися. Взяли ми його.
- Капітан: Та невже? Взяли?
- Прокурор: Якщо чесно, то десь пів години тому він сам прийшов і написав **явку з повинною**. Ось.
- Капітан: А можна подивитися на це «диво»?
- Прокурор: Нема питань. Він зараз **відбитки пальців здає**. (Дзвонить) Лисака до мене в кабінет поверніть швидко. (Капітанові) Ото з матеріалами ознайомтеся.
- Охоронець: Затриманий Лисак.
- Прокурор: Зачекай у коридорі.
- Капітан: Це хто? **Ти за дурня мене маєш?** Ти хочеш сказати, що ось цей сидів за кермом "Ягуара"?
- Лисак: У мене "Копійка".
- Прокурор: У нього ж **чистосердечне**. Ви прочитали? А ось **протокол допиту свідків**. Вони в один голос кажуть, що його біла "Копійка" збила.
- Капітан: Я на власні очі бачив, що це був "Ягуар". Я номери його знаю. А ще я сам особисто 5 кілометрів за ним **рисачив**.
- Лисак: Це я збив. А "Ягуар" їхав за мною ззаду. Що ж мені **на себе наговорювати?**

Капітан: А нагадайте мені, будь ласка, ви **пішохода збили** біля РАГСу **Дніпровського району?**

Лисак: Так. Я ж розповідав.

Капітан: **Дніпровського району?** Його збили в іншому районі. **На Правому березі.**

Лисак: Я щось не так сказав?

Капітан: Мг. Ти б краще написав, скільки тобі заплатили, що ти **провину на себе взяв.**

Лисак: Мені не платили. Це я збив. "Ягуар" їхав за мною.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Дільничний з ДВРЗ" (2020–2023, режисери Р. Бровко, Т. Рибальченко, автори сценарію А. Кобзан, М. Лимаренко),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2.

Капітан: Що в тебе?

Льоша: **Постраждалого** звать Артем Біловол. Студент 4 курсу **КШ. Боксер, майстер спорту. Зараз стан дуже важкий. Без свідомості.** А ось всі дзвінки нашого студента. Дивись. За пів години до бійки був короткий дзвінок на номер «Іра клуб». При чому Іра дзвінок образу ж **скинула.**

Капітан: Ну так роблять, щоб зберегти номер.

Льоша: Врубашся. А потім через три години дзвінок в таксі. Так от я знайшов цього таксиста. І знаєш, куди він відвіз нашого студента?

Капітан: На **Багами.** Ну ясно, що на **ДВРЗ.**

Льоша: А знаєш, хто з ним був? Дві дівчини. **По опису водія блондинка,** а друг теж блондинка.

Капітан: Класний опис.

Льоша: Водій сказав, що дівчата казали про якусь **общагу.** Вони там живуть, чи що. Ти може запитаєш у місцевих **ментів?** Може щось знають?

Капітан: Ой, не запитаєш. Я їм просив про це нічого не розказувати.

Льоша: Чому?

Капітан: Тому що вони **горілку** п'ють з того ж кафе, біля якого була бійка, і де ніхто нічого не бачив.

Льоша: Думаєш, вони когось **покривають?**

Капітан: **Сто пудов.**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Дільничний з ДВРЗ" (2020–2023, режисери Р. Бровко, Т. Рибальченко, автори сценарію А. Кобзан, М. Лимаренко),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3.

Дзюба: *(Бере слухавку)* Дільничний пункт. Інспектор Дзюба. Добрий день. **Що? Які заручники?** .Слухайте, цей прикол давно застарілий. **Зараз на бомби і заручників ніхто не поведеться.** А ще раз сюди подзвониш, **я тобі вуха повідриваю.**

(Кладе слухавку і знову дзвонить телефон) Дільничний пункт. Інспектор Дзюба. Добрий день. Слухайте, **у вас сьогодні флешмоб «розведи дільничного»?** Я тебе зараз впіймаю, **15 діб дам.** Я подивлюсь, як ти в камері заспіваєш.

Бондар: Дзюба, що ти **розсівся?**

Дзюба: Що?

Бондар: У нас на районі **захват заручників.**

Дзюба: Де?

Бондар: В офісі страхової компанії.

Дзюба: Ніхто не повідомив! **Давай кабанчиком!**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Дільничний з ДВРЗ" (2020–2023, режисери Р. Бровко, Т. Рибальченко, автори сценарію А. Кобзан, М. Лимаренко),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4.

Дзюба: Де тебе носить? Я вже всі **скарги опрацював.**

Бондар: **Смачного.**

Дзюба: Дякую.

Бондар: Прям усі?

Дзюба: Усі. **І звіти склав. Бійку зупинив. Бесіди провів.**

Бондар: Я бачу, Петюнь, ти майстер **лапшу вішати.**

Дзюба: Серьоня, **звіти – це наше все.** Ці слова запам'ятай. **У мене глаз – алмаз. Я на цьому собаку з'їв.**

Бондар: Звіти написати, Петюнь, це не роботу зробиць.

Дзюба: Ти мені скажи, ти коли-небудь звіти писав?

Бондар: На жаль, писав.

Дзюба: Щось не видно. Чи за вас, **панів**, в управлінні там **холопи** писали?

Бондар: Слухай, **не діставай**.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Дільничний з ДВРЗ" (2020–2023, режисери Р. Бровко, Т. Рибальченко, автори сценарію А. Кобзан, М. Лимаренко),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5.

Майор: Значить так. Треба провести **комплекс запобіжних заходів** щодо **усунення п'яних сутичок** за гуртожитком. Скарги, до речі, надходять постійно. Далі. Хочу зауважити, що у нашому **районі** **почастішали випадки викидання сміття не у спеціально відведених для цього зонах**. Особливо це на третій і четвертій дільниці. А це, до речі, **прерогатива дільничного** – слідкувати, щоб сміття викидали туди, куди потрібно. Хочу зауважити, що у нашому районі **почастішали випадки угону автомобілів**. (Подає склянку води) Ну що, стало краще, Дзюба?

Дзюба: **Так точно**. Дякую, **пане майор**.

Майор: Так що будемо робити з угонами, Дзюба?

Дзюба: А у мене **на все рук не вистачає**. Я сьогодні **проводив рейди** по ринках. Завтра по гуртожитках. Я ж не робот. Он хай Бондар угонами займається.

Майор: Точно. Бондар, я доручаю тобі угони.

Бондар: Так точно. Так, вільний, Дзюба. **Всі вільні**.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Дільничний з ДВРЗ" (2020–2023, режисери Р. Бровко, Т. Рибальченко, автори сценарію А. Кобзан, М. Лимаренко),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6.

Гончар: Що це відбувається, я вас запитую. Що це відбувається? На вулицю вийти страшно. Я до роботи живу дві хвилини. Так мені страшно на роботу йти. От тому, Клава, я на роботу і не приходжу.

Клава: Гончар, ти що завгодно вигадасш, аби на роботу не ходити.

Гончар: Клава, не заважай. У нас **стихійний мітинг**.

Давайте якось конструктивніше. Я пропоную залишити усі ці емоції і почати нормальний діалог з владою. **Організуємо ініціативну групу.** Напишемо листи керівництву району.

Дзюба: Ви закінчили? Дільничний інспектор Дзюба. Всім доброго дня. Знайомтесь, ваш новий дільничний, капітан Бондар. В минулому **оперативний співробітник.** Знає, як боротися з **бандитизмом, екстремізмом, популізмом.** Питання, скарги, будь ласка. Я думаю, що він надасть вам точну відповідь. Давайте йому поаплодуємо.

Бондар: Що ти влаштував, Петя?

Дзюба: **З Богом!**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Дільничний з ДВРЗ" (2020–2023, режисери Р. Бровко, Т. Рибальченко, автори сценарію А. Кобзан, М. Лимаренко),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7.

Начальник: *(На стрільбищі)* Бондар та Дзюба **відстрілялись на відмінно.** Решта, є зауваження. Можете роздивитися **мішені.**

Дзюба: Що він сказав?

Бондар: Петюня, ти відстрілявся на відмінно.

(Роздивляються мішені) **Та щоб мене, Петюня.**

Дзюба: Ти бачиш, який я молодець?

Бондар: Ох ти ж і **фартовий.**

Дзюба: **Талант не проп'єш.**

Бондар: Пішли, **ворошиловець.**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Дільничний з ДВРЗ" (2020–2023, режисери Р. Бровко, Т. Рибальченко, автори сценарію А. Кобзан, М. Лимаренко),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8.

Начальник: За останній місяць це дванадцята **крадіжка** по нашому району. **І всі вони з одним почерком. Замки зламані відмичкою. Камери спостереження там, де вони є, зафіксували двох чоловіків. Обличчя жодного разу не засвітили. Працюють дуже чисто. Відпрацьовуємо населення, звертаємо увагу на всіх підозрілих незнайомих. Інформацію щодо вкраденого**

візьмете у **чергового**. Це в основному ювелірка. Вільні. Дзюба, Бондар, залиштеся.

Слухайте, є ще одна справа. Мені телефонували з **державної виконавчої служби**. Наш район – лідер по кількості **неплатників аліментів**. Ну не бажають наші мешканці виконувати свій батьківський обов'язок.

Дзюба: Так вони вже виконали, коли дітей зробили.

Начальник: Дзюба, можна без жартів? Треба допомогти. Так що ви займіться цією справою паралельно з крадіжками. Тримай список **ухильників**.

Дзюба: А чого я?

Начальник: Тримай, тримай, жартівник. Він невеликий. Вільні.

Дзюба: Буде зроблено.

Куди ти поперед батька..? Видно зразу, що ти з **аліменщиками** не працював.

Бондар: Як ти здогадався?

Дзюба: Бо якби ти працював, ти б знав, що **вони – звірі**. Наглі, хитрі, підступні. **Суперзлодії**. Так, я заходжу у під'їзд, піднімаюсь до квартири. Ти тут чекай.

Бондар: Ти зараз серйозно?

Дзюба: Вони через вікна полізуть. Вчись.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Дільничний з ДВРЗ" (2020–2023, режисери Р. Бровко, Т. Рибальченко, автори сценарію А. Кобзан, М. Лимаренко),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9.

Льоха: Добрий день.

Потерпілий: Невже з'явилися? Я вас ще тиждень тому **викликав**. Проходьте.

Льоха: **А до я кого відділення ви зверталися, коли вас побили?**

Потерпілий: Та ні до якого. **Я подзвонив у 102**. Мені сказали, прийде дільничний, розбереться.

Бондар: А що ти дивишся? Це не моя дільниця.

Потерпілий: А ви до мене з якого приводу? Якщо не той випадок, тоді що?

Льоха: **Нам порекомендували вас, як спеціаліста по сатаністам.**

Потерпілий: А що вас цікавить? Я багато про це писав.

Бондар: Тут у мене є фотографія. Подивіться, будь ласка.

Потерпілий: Я багато разів таке бачив. Мені це знайоме. За це я, до речі, і **получив. Це не сатаністи. Це підробка під них.** Ну взяти хоча б вашу пентаграму, тобто зірку. Вона називається "**пентаграма**". Її, по-перше, завжди зображують у колі. По-друге, **орієнтують по частинах світу.** І по-третє, її малюють на цілому камені – **жертovníку**, а не на якомусь там уламку.

Льоха: Ну а може це **молодняк** якийсь?

Потерпілий: Та ну. Справжніх сатаністів дуже мало. І ось такими **дурниціями** вони не займаються.

Бондар: Тоді скажіть, хто це може робити.

Потерпілий: А ось про це я і хотів написати, але **мені натякнули, щоб я туди не ліз.**

Льоха: Давайте так: ви допоможете нам, а ми допоможемо вам.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Дільничний з ДВРЗ" (2020–2023, режисери Р. Бровко, Т. Рибальченко, автори сценарію А. Кобзан, М. Лимаренко),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10.

Бондар: Викликали, Василь Васильович?

Начальник: Викликали. Заходь. Так, панове, **ставлю до вашого відома. Втік небезпечний злочинець, вбивця інкасаторів Андрій Литвин.**

Шамрило: І ми повинні знайти його, поки він не вбив ще інкасаторів?

Начальник: **Є всі підстави вважати, що він переховується у нашому районі.**

Бондар: А чого в нашому районі?

Начальник: **Колишня дружина Литвина – Тетяна Дробишева. У них є спільна донька.** І живуть вони в нашому районі.

Шамрило: Так а навіщо допомагати колишньому чоловікові, якщо вони навіть не бачились давним давно.

Бондар: Він міг змусити їх йому допомагати.

Начальник: Саме так. І тому потрібен дільничний для того, щоб перевірити квартиру Дробишевої. Що там і як.

Бондар: Дільничний, я так розумію, – це я.
Начальник: Так. Ти правильно зрозумів. Це ти. Не хвилюйся. **Розвідаєш обстановку. Якщо там все добре, підеш далі на обхід.**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Дільничний з ДВРЗ" (2020–2023, режисери Р. Бровко, Т. Рибальченко, автори сценарію А. Кобзан, М. Лимаренко),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11.

Шамрило: Здоров. А де **підозрювана**?
Судмедексперт: Привіт. На кухні. І вона поки що **свідок**.
Шамрило: Так, ну що тут? **Нещасний випадок**?
Судмедексперт: Ні. **Тут і без результатів розтину ясно, що вбивство. Дивись. Дівчину вдарили по обличчю. Бачиш, яка гематома велика? Вона впала і вдарилася об підлогу. Удар був дуже сильний. Я думаю, що це був чоловік. Хоча вона його подряпала. Під нігтями ми знайшли часточки шкіри, так що можна буде зробити аналіз ДНК.**
Шамрило: Так добре. Сьогодні зможеш зробити аналіз?
Судмедексперт: Мг.
Шамрило: Тоді роби.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Дільничний з ДВРЗ" (2020–2023, режисери Р. Бровко, Т. Рибальченко, автори сценарію А. Кобзан, М. Лимаренко),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12.

Полковник: Стосовно **пограбування музею** загалом так. **З експертами встановиш коло потенційних замовників. Якщо вірити працівникам музею, то відразу покинути країну з викраденими раритетами вони не зможуть.**
Льоха: Ну це залежить від того, як **домовитись з митницею.**
Полковник: **Тіпун тобі на язик.** Коротше, книги потрібно знайти якомога швидше. Бери скільки треба людей, забудь про свої справи, займись цим.
Льоха: Пане полковнику, але ж ви розумієте, що це...
Полковник: Мені вже дзвонили з **Міні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и.** Я думаю, що десь через годину дзвінків буде в три рази більше. Ти мене зрозумів? Іди працюй.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Дільничний з ДВРЗ" (2020–2023, режисери Р. Бровко, Т. Рибальченко, автори сценарію А. Кобзан, М. Лимаренко),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13.

- Начальник: *(Читає заяву)* «Почувши постріли, я наблизився до дороги і побачив співробітника поліції. Той мене не помітив. **Співробітник поліції** йшов по дорозі з сумкою в руці, сів в **службову машину**, в якій його чекав другий співробітник поліції. Потім вони поїхали». Ну і допоміг же ти нам, Бондар, з цими **свідченнями**.
- Бондар: Та я а що? **Ми ж його не примушували**. Прийшов, написав.
- Начальник: Що він пише далі: «Впізнати цих людей не зможу, так як бачив їх здалеку. А по життю володію слабким зором». Ну так і який в нього зір?
- Бондар: Я ж не окуліст. Слабкий. В окулярах був.
- Начальник: Якщо в нього слабкий зір, що він взагалі міг розгледіти вночі? Є інформація, що в тій машині були гроші, які Грач **пожертвував дитячому будинку**. І знаєте, що виходить? Що Грач жертвує дітям гроші, а поліція ці гроші забрала. **Якщо ми повідомимо, що у нападі брали участь співробітники поліції, у нас голови позлітають**.
- Василь: Ну чому одразу співробітники поліції? Може це якісь **ряджені**.
- Начальник: Але **ми повинні відпрацювати обидві версії**. Так от. Якщо ми повідомимо, що у нападі брали участь співробітники поліції...
- Василь: Виходить, що вони дізнаються про цю інформацію і **зляжуть на дно**.
- Начальник: Правильно. А ми не можемо **злякати злочинців**. Давайте так зробимо. Ось ці свідчення поки що полежать у мене. **Повідомляти у відділ внутрішньої безпеки я не буду**. Про це нікому ні слова. Нікому. Навіть нашим колегам. **Це наказ**. Зрозуміло?
- Бондар: Ми можемо йти?
- Начальник: Так. Ви можете йти. Васильович, з чого почнемо?
- Василь: **Дуже тонка справа**.

Начальник: Ти можеш тихенько зібрати інформацію про патрулі, які учора були на чергуванні? Тільки так, щоб ніхто не знав.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Дільничний з ДВРЗ" (2020–2023, режисери Р. Бровко, Т. Рибальченко, автори сценарію А. Кобзан, М. Лимаренко),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Вправа 10. Перекладіть україн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вульгаризми і сленгові слова:

1. 넌 늘 겁쟁이었어. 내가 항상 지켜 줘야 됐잖아. 2. 내 아들한테 칼빵을 놓았다.
3. 이 계집애 어디 있어? 3. 야! 나 고딩들 뺑 뜯어? 4. 같은 방 사람들은 괜찮아? 쫓, 막 강패 같고 그런 사람들 없어? – 내가 짱이지. 방짱. 살인죄는 나밖에 없거든. 막 다 절도, 횡령, 사기, 주부 도박 이런 건데 나만 살인이잖아. 다 나 무서워하지.
5. 왕따 오래되니까 외로워서 그렇게 한다. 6. 저 새끼들 운이 나쁘죠. 7. 내가 바람피웠던 나쁜 년이었거든. 7. 애 남자 친구 있어요? 세상에나 어떤 등신 쪼다가 애랑 만나? 8. 너 사무실 개업할 거지? 내가 투자할게. – 아니요, 검은돈은 안 받습니다. – 야, 인마. 남이 들으면 오해하겠다. 내가 무슨 조폭이야? 삼합회야? 마피아야? 9. 기억했구나. 나는 워낙 취해서 필름 끊긴 줄 알았는데. 10. 진짜 그러지 마세요. 저 정신 사나워요. 11. 이 구역의 미친년이 나야. 12. 음산한 기지배! 요물 같은 기지배! 너 날 감금하고 도망쳤잖아! 13. 너 비품실에 가서 A4 용지 열 박스만이 방으로 옮겨 봐. 힘 없는 여자니 어찌니 그런 개소리하지 마라. 14. 나 미쳤나 봐. 나 메시지를 반대로 보냈어. 15. 그럼 은 변이 그 바바리 맨을 발차기 그냥 뺑 때렸다고? 16. 은봉희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지은혁같이 인성 쓰레기랑 친하게 지내지 않을 거야. 17. 안녕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을 보면서) 어휴, 이런 쟀장... 처음 뵙겠습니다. – ‘이런 쟀장 처음 뵙겠습니다?’ – 긴장하면 비속어가 튀어나와서요. 18. 아줌마 딸이에요? 그 개나 소나 변호사라던? 19. 제가 이제 검사 짬밥 이제 고작 몇 년이지만 사람 죽인 놈들 꽤 만나봤거든요. 그리고 제 결론은 누구나 사람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20. 내가 무거운 거 다 들 테니까 강희식 너는 잔잔바리들 다 처리해, 알았어?

Вправа 11. Перекладіть корей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вульгаризми і сленгові слова:

1. Що ти там колупаєшся, **аферюга**. Плани вже якісь виношуєш? 2. Ей, **барига**, давай розкажуй, що сталося. 3. Піду краще на **задротів** подивлюся. 4. По ходу, тобі **гаплик**. 5. Я тобі клянуся, цього разу все буде **тіп-топ**. – Боже, тобі 500 років, а говориш, як **гопнік**. Цього разу я піду з тобою і попробуй тільки облажатися. 6. Ну що, мала, на всякий випадок прощавай. – **Не намітай пурги**, камікадзе. 7. Так **тут і коню ясно**, що кращим був Веня. 8. Його батько теж замолоду **вигрібав** більше за всіх. Нічого не змінилося. 9. Ну вона ж в селі виросла і давай свої **понти колотити**. 10. Як вас усі слухають, а мене – ніхто? Цілий день хочу сказати симптом, а мене всі **футболять**. 11. Піду йому **рило намілю**. 12. Ти **нафіга** збрехав про боксера? – Я не брехав. – Ти зараз **на мороз падаєш**? 13. Зяцьок, скажи, а тут всі такі **припадошні**? 14. Він хамив тобі? – Так. **Замахалась** уже з ним **панькатись**. 15. Нічого собі! **Кріповінько!** Давай **селфач бахнем!** 16. О, **клопеня**, і ти тут. 17. Сил немає з вами **гавкаться**. А ти, **хромий пудель**, поприбираєш тут все.

Вправа 12. Перекладіть корей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фольклоризми:

1. Не хвилюйся, Францович, я помшусь йому за тебе, **мамою твоєю клянуся**. 2. О, я між двома Андріями. **Загадаю бажання**. 3. **Побожися!** – **Божуся**. – Ну ти глянь, бреше і не червоніє! 4. **Постукай по дереву**. 5. Треба від гріха подалі забиратися звідси. 6. Цікаво, а привидам буває **пороблено?** 7. Ну що, як ви спали? **Наснився суджений?** Ви що, не знаєте? **Коли спиш на новому місці, треба сказати: "Сплю на новому місці. Наснись жених невісті"**. 8. Якщо є питання, звертайтеся. Знімаю порчу, привертаю кавалерів, збільшую груди. 9. Я готова вам благословить. Ставайте на коліна, діточки. Господи, благослови. Щоб ви були здорові, щасливі, мали діточок, як на небі зірочок, жили в достатку. 10. Маму я образити не дам. Вона в мене дуже вразлива. Коли у бразильських серіалах хтось помирав, вона ставила за нього свічку, бо думала, що то насправді.

11. Я казала Сергійовичу, зробили ремонт, ну позовіть батюшку. Хай покропе. Ну зайвим же ніколи не буває.

Вправа 13. Перекладіть україн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реалії:

1. 그날 저는 우리 엄마 산소에 가는 길이었어. 야간 자율 학습 땡땡이치고.
2. 사찰 음식을 좀 드셔 보시는 건 어떠실지? – 안 먹어! 풀밖에 없는 절밥 나 안 먹어!
3. 너하고 안 서방하고 궁합 좀 보려고 그러니까 생년월일하고 시하고 좀 알아 올 수 없니?
4. 밥 먹으러 가자. 내가 맛있는 국숫집 알아.
5. 갑자기 경심이가 끊여 준 그 어묵탕이 먹고 싶네. 경심이가 올라올 때 어묵 사 오라고 해.
6. 엄마? 뭐 해? 방앗간이야. 썩이 너무 좋은 게 있어 가지고 떡 좀 하려고. 너 썩떡 좋아하잖아.
7. 남들은 내가 청담동 며느리로 철마다 명품 옷 해 입고 해마다 해외여행 가는 줄더라.
8. 서인호, 최승희 의대 동기들 모두 다 결혼까지 골인할 줄 알았던 유명한 캠퍼스 커플이었잖아.
9. 2 학년 올라가던 해 겨울 방학 때 동기생들 몇 명이서 설악산으로 놀러 갔었어. 흔들바위까지만 등반하기로 했었는데 내가 얼마 가지도 못하고 발목을 빼는 바람에 숙소로 다시 돌아갔어야 됐어.
10. 잠깐 나와서 간식 먹고 해. 우리 딸 좋아하는 당근케이크 사 왔다.

Вправа 14. Перекладіть корей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реалії:

1. Чому я? – Бо ви мені вчора програли у "камінь, ножиці, папір".
2. Після лихих дев'яностих мене вже важко чимось здивувати.
3. Я вибачаюсь, але як кажуть у нас на Троєщині, якось не по-пацанськи, Маргарито Юріївно. – Я правильно розумію, ви хочете сказати, що я не права?
4. Боже, яка у вас тут душогубка! Наче в бані після корпоративу. Не вистачає тільки пива і раків.
5. Що вони добавляють у тей компот із сухофруктів?
6. Ми з нареченою відтворили події між першим і другим столиком, такі конкурси як «перекоти яйце», «зніми ротом прищепку», «стриптиз для бідних», а також тости від хрещеної і батьків, перший танець.
7. У мене там в саду вишня осипається. Треба ставити вишнівку бродити.
8. Немає часу грати в "крокодила". Нам треба працювати.

9. Пам'ятаєш, як ми все збиралися в **Куяльник** на води? І все часу не вистачило.
 10. Я виріс на **Троєщині**. У нас за таке можуть і наваляти. – А я виріс на **Печерську** і валяти не збираюся. 11. Скандинавська ходьба без **наливочки** – це ти ходиш з двома палками в лісі без снігу. 12. Мені потрібен Бублик. – А мені **ватрушка**. – Це мій брат. Я йому телефоную, а він мені не відповідає. 13. Такий запах, як в електричці на **Фастів**. Я цей запах ні з чим не переплутаю. **Біляші**.
 14. Ходімо в караоке. Ти чула, як я співаю "**Чичері, чичері**"? Будь-яка депресія зникає. 15. Я не поняла, ви вирішили в "**дочки-матері**" пограти? Рольові ігри? – Це називається гостинність. Ксюшенька сьогодні буде у мене ночувати. 16. За вечір ви з'їли: **голубці**, запечену качку, **корзиночки з грибами**, бутерброди із шинкою, бутерброди із **шпротами**, салат "**Мімоза**", цукерки, фруктики і чай без цукру. Щось іще? – Яблучний пиріг... Ще був салат "**Білочка**".

Вправа 15. Перекладіть україн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метафори:

1. 지금 나 봐 봐요. 아무렇지 않은 척 뻔뻔하게 변호사님 집에 얹혀서 신세만 지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첩판일 순 없잖아요. 2. 야, 진짜 고맙다. 동기 사랑, 나라 사랑, 진짜. 3. 늙었다고 이 자식들이 무시하는 거잖아, 이게. 야, 인마. 나 스쿼시 치니? 나 혼자 벽에다 공 쳐? 4. 왜 내내 죽상이야? 너 내 장례식에 왔냐? 내 생일 파티야. 5. 자기, 혹시 은봉희 변호사라고 알아? – 변호사는 개빨. 개 이 바닥 수치고요. 6. 개 개업하면 **쫄딱 망합니다**. - **악담을 퍼부으세요**. 7. 렌즈가 똑 떨어졌어. 화장품, 샴푸도 간당간당 떨어지고. 가난은 꼭 한꺼번에 찾아오더라. 8. 짝사랑은 유효기간이 있는 것 같다. 9. 대표라는 사람이 직원들 **피 빨아먹는** 사람이다. 10. 우리 가족은 **콩가루지**. 배다른 형제만 셋이다. 11. 마약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 최종 빌런을 잡고 싶어. 그런데 이틀 밤 꼬박 새워도 그림자 **꼬리조차 못 찾고** 있는데. 12. 정확한 건 분석을 해 봐야겠지만 이게 엄청 무서운 마약이다. – 아니, 위에서 검출된 양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죽는디고요? – 그러니까 **펜타닐이 개면 앤 늑대야**.

Вправа 16. Перекладіть корей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метафори і метонімію:

1. О, бачу, **бальзаківський вік** добрався вже до інтернету.
2. Цей секс-терорист не пропускав жодної **спідниці**.
3. Мамо, я цей **тераріум** добре знаю. – Але твоя мама теж **зубаста**.
4. З поміж нас усіх ви спромоглися **витягнути найкоротший сірник**. – Братік, давай без цих метафор. Кажіть прямо: "Люсі – капець".
5. Вона мене не любить. **Я поки що не знайшла ключик до її серця**.
6. **Подивися своєму страхові в очі**.
7. У нього реально **залізні нерви**.
8. А я бачу, у вас невісточка **чорноротенька**.
9. Ну не гупайте дверима. Вони і так **ледве дихають**.
10. З цього моменту я займусь вашим вихованням. Це буде моя **місія**. **Мій хрест**.
11. Ксюша, ну хто цей загадковий флорист? Я нікому не скажу. **Я – могила**.
12. Тьотя Галя – це ж **ходячий анекдот**.
13. Я завжди був упевнений, що така **ракета**, як ти, **злетить вище за мене**. Але ні. Застрягла в лайні.
14. Алло, Міхаліч, ану затримай на виході **сокола** одного у костюмчику. Я зараз буду.
15. Вікторія любить троянди, але у неї **алергія** на тих, хто їх дарує.

РОЗДІЛ 3 ТВОРИ МЕДИЧНОЇ ТЕМАТИКИ

Вправа 1. Перекладіть полілоги із серіалів "힘센 여자 도봉순", "닥터 차정숙", "닥터스" українською мовою. Зверніть увагу на способи перекладу виділених фрагментів тексту:

1.

도봉기: 증상이 어떠신데요?

희지: 아, 곧 연주회가 있어서 연습을 좀 무리하게 했더니 손목이랑 손가락이 좀 아파요. 이젠 통증이 팔꿈치까지 와서 물건을 쥐지도 못할 정도로 힘이 없어요.

도봉기: 첼로 연주하신다고 하셨죠.

희지: 네.

도봉기: 손가락 신전근 이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육의 무리한 사용으로 인해 손가락 신전근에 건염이 생기는 건데요. 뭐, 엑스레이와 혈액 검사를 해야 확진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어느 손이죠, 아픈 손이?

희지: 아, 왼손요.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힘센 여자 도봉순" (2017, режисер 이형민, автор сценарію 백미경),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Netflix.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2.

의사: 여기 앉으세요. 간 이식 공여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선 아드님과는 혈액형이 안 맞고 따님은 미성년자,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는 연로하시고. 그래도 다행히 남편분 검사 결과가 괜찮아요. 평소에 몸 관리를 잘하셔서 지방간도 없고요.

어머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 그래도 공여자인 남편분이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어머니: 아니, 그럼 우리 아들이 간을 떼 줘야 된단 말씀이세요?

의사: 꽤 그래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시어머니: 그건 안 될 말이죠. 멀쩡한 배를 갈라서 간을 잘라 주라니요? 수술하고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런 위험한 짓을 해요. 선생님, 우리 아들한테 그런 수술 권하지 마세요. 난 절대 못 시킵니다.

남편: 어머니, 그만하세요.

시어머니: 뭘 그만해! 니가 된다고 해도 내가 반대야. 비켜. (떠느리에게 말하며)애, 너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뇌사자를 기다려 보자.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닥터 차정숙" (2023, режисери 김대진, 김정욱, автор сценарію 정여랑),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Netflix.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3.

로이 의사: 무슨 얘기가 그렇게 재밌어?

황 치프: 아, 교수님, 그 아줌마 레지던트 기억하세요? 그 레지던트가 오늘 **CPR** 하는 환자 몸에 손댔다가 감전 사고 당했대요. 대박이죠?

로이 의사: 몸은? 팬찮대? 다친 데는 없고?

황 치프: 네, 뭐 금방 복귀했대요. 그리고 1 년 차가 안 팬찮아도 팬찮아야죠.

로이 의사: 다행이네. 근데 그게 그렇게 웃을 일인가?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닥터 차정숙" (2023, режисери 김대진, 김정욱, автор сценарію 정여랑),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Netflix.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4.

태식 의사: 나는 아무래도 개복술로 진행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말이야. 뭐, 복강술도 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

서 의사: 환자 나이가 있으니까 회복 속도도 빠르고 장관 유착 같은 합병증이 적은 복강경 수술이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 환자는 예민한 케이스고요.

로이 의사: 물론 그렇습니다만 간 병변이 복강경으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최대한 잘라 **RFA** 하면 거의 다 떼 낼 수 있을 거 같으니 개복술로 진행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서 의사: 간 전이도 그렇지만 대동맥 림프절에도 전이가 있는데. 일단 확실하게 확인된 부부부터 절제를 하고 나머지는 항암을 좀 더

해 보고 수술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무리해서 좋을 건 없지 싶은데요.

로이 의사: 대장암 간 전이 환자에서 **간 병변은 RO 간 절제가 성적이 가장 좋다**는 거 말해야 입만 아프죠. 암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해 봐야 환자는 다른 암 치료로 컨디션이 나빠질 테고. 그나마 환자가 버틸 수 있는 컨디션에서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온콜로지적 서전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무리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합니다.

서 의사: 이런 말 상처가 되실진 모르겠습니다만 **교수님 스킬로 이 정도 간 전이 다 떼 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너무 용감하신 거 같은데.

로이 의사: 맞습니다. 제가 좀 용감하죠. **실력이 받쳐 주니까요.**

태식 의사: 이야, **용호상박**, 어? 분위기 좋다. 떡살 잡아도 돼.

서 의사: 그럴까요?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닥터 차정숙" (2023, режисери 김대진, 김정옥, автор сценарію 정여랑),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Netflix.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5.

최 의사: 전반적으로 건강 관리가 잘 되어 있으세요. **혈압 약이나 당뇨 약** 아직 드실 필요가 없고요. **콜밀도도** 연세에 비해 굉장히 좋으세요.

차정숙 엄마: 다행이네요.

최 의사: 그리고 걱정하셨던 등의 점 말인데요. 조직 검사해 보니까 **양성**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차정숙 엄마: 아유, 그럼 괜찮다는 거죠? 암 같은 거 아니고요?

최 의사: 네.

차정숙 엄마: 아유, 확인하니까 이렇게 시원한 걸 괜히 걱정했네요. 진작에 우리 딸 얘기 들을걸. 아... 우리 딸이 검진받아 보라고 했거든요.

최 의사: 따님이 참 잘하셨네요.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닥터 차정숙" (2023, режисери 김대진, 김정옥, автор сценарію 정여랑),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Netflix.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6.

서 의사: (수술 중) 유착이 생각보다 심한데. 연결이 쉽지가 않겠어. 시그모이드 콜론이 충분히 내려올지도 걱정이고. 스플레닉 플렉서 좀 더 칠 수 있나?

황 치프: 지금 최대한 쳤습니다.

서 의사: 골반도 좁고 길어도 빠듯한데. 아래로 내려가 봐. 연결 해 보자.

황 치프: 네, 알겠습니다. 바디 넣겠습니다.

서 의사: 천천히. 어. 그렇지. 이제 스파이크 전진.

황 치프: 예. 스파이크 전진하겠습니다.

서 의사: 끝까지 전진.

황 치프: 네.

서 의사: 짝는다. 파이어.

황 치프: 파이어하겠습니다.

서 의사: 물 좀 줘요. 자, 썬 봐. 다시 숏. 좀 새는데. 우선 리인포스하고 글루 있지? 글루 뿌리고.

황 치프: 네.

서 의사: 할 수 없네. 다이버전해야겠다. 어쩔 수가 없어.

황 치프: 네.

서 의사: (어깨가 아파서)악!

황 치프: 교수님, 팬찮으세요?

서 의사: 팔이 안 움직인다... 장루 뽑고 헤모박 넣었으니까 배 닫고 스토마 마추레이션만 하면 돼. 지금 펠로우 불러.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닥터 차정숙" (2023, режисери 김대진, 김정욱, автор сценарію 정여랑),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Netflix.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7.

정숙: 엄마, 엄마, 어디 아파? 엄마, 왜 그래, 어?

엄마: 아유, 됐어. 수선 떨지 마.

정숙: 되긴 뭐가 돼.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얼른 병원 가자, 어?

엄마: 낮에 지압을 받았는데 너무 세게 받았나 봐. 진통제 먹었으니까 나아지겠지. 병원마다 말이 다 달라. 근육 풀어 주는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주사란 주사는 다 맞아 보고 침도 맞아 보고

지압도 받아 보고 다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진통제나 먹으면 조금 살 만하고. 괜찮다 싶어서 끊어 보면 또 아파서 잠을 못 자겠고.

정숙: 엄마 살도 많이 빠졌네.

엄마: 잠을 못 자니까 입맛도 없고 그러니 저절로 빠졌지.

정숙: 내가 정신이 없어서 엄마 아픈 줄도 모르고. 나한테 말 좀 하지 그랬어.

엄마: 너 신경 쓸까 봐 그랬지. 안 그래도 바쁜데. [...]

정숙: 내일 당장 우리 병원으로 가. 안 간다고만 해 봐, 아주.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닥터 차정숙" (2023, режисери 김대진, 김정욱, автор сценарію 정여랑),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Netflix.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8.

최 의사: 선생님, 비행기 안에서 쓰러진 뇌출혈 의심 환자가 헬기 타고 우리 병원으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 교수님께서 발견하셨고요. 바로 수술이 필요하합니다. 수술실로 바로 밀고 들어갈 수 있게. 헬기장에 신경외과 펠로우 대기하라고 하시는데요.

유 의사: 환자 언제 도착한대?

최 의사: 곧 도착한답니다.

유 의사: 넌 가서 수술방 어레인지하고 영국이 올라오라 그래.

최 의사: 네, 알겠습니다.

피 의사: 25 세, 여자, 멘탈 스투퍼. 양측 동공 5mm-3mm. 우측은 동공 반사 없습니다.

유 의사: 추정 진단은?

피 의사: 두개 내 출혈 의심되고 스테이투스 에필렙티쿠스 양상 보입니다. 환자 인투베이션 했고 바이탈이 불안정하합니다.

유 의사: 증상 발생 시간은?

피 의사: 아, 그건...

유 의사: ‘아, 그건’ 말고 몇 시간?

피 의사: 선생님, 저 서우 쌤하고 친구예요.
유 의사: 피영국 선생, 그래서 나하고 친구 하자고? 병원 인맥질 하는 데야? 환자 상태 물어보는데 개인 친분으로 슬쩍 넘기겠다는 거야?
피 의사: 죄송합니다.
유 의사: 앞으로 나하고 일하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
피 의사: 예.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닥터스" (2016, режисер 오충환, автор сценарію 하명희),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Netflix.*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9.

유 의사: 기분 어떠세요? 말로 해보세요. 기분 어떠세요?
환자: 당연히 안 좋죠. 내가 왜 여기 있나 싶고.
유 의사: 수술 잘됐네요. 여기 와계신 게 기분 나쁜 거 보니.
환자: 기분이 나쁘다는데 뭐가 잘됐어요.
유 의사: 투덜이지구나. 투덜투덜. 남 괴롭히면서 밥 벌어먹는 분이 투덜대니까 웃기네요.
환자: 성질 돋워서 머리 터져 죽게 하려 그래요?
유 의사: 수술이 잘 돼도 수술 부위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의식 불명, 언어 장애 마비, 발작 증상이 모두 생길 수 있다고요. 근데 보스님은 지금 투덜대시니까 제가 기뻐서 조금 오버했어요.
환자: 아이, 그럼 그렇다고 진작 얘기를 하시든가.
유 의사: (최 의사한테) 좀 더 지켜보다가 이상 있으면 CT 찍어보고 별 변화 없으면 이따 입원실로 옮겨.
최 의사: 네.
유 의사: 보스님, 그럼 안정 취하세요. 전 갑니다.
환자: 고마워요.
유 의사: 뭐라고요?
환자: 아이, 고맙다고요.
유 의사: 나 잘 들리는데. 저, 뭐라 그랬는지 들었어?

최 의사: 고맙다는데요.

유 의사: 아아. 저도 고마워요, 잘 깨어나 줘서.

환자: 지금 내 말 듣고도 못 들은 척한 거죠.

유 의사: 당연하죠. 어떻게 들은 고맙다는 말인데. 어젯밤에 제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환자: 와, 뒤끝 있으시네.

유 의사: 네, 저 뒤끝 짝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제시하는 의학적 소견에 무조건 따르셨으면 좋겠어요. 쉬세요, 그럼.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Докторс" (2016, режисер Олександр, автор сценарію Хмель),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Netflix.*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10.

의사 1: 32 세 남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맞은 후 두피 열상으로 ER 내원했습니다. 내원할 당시 멘탈은 명료했으며 촬영한 CT 상 뼈 두께 정도의 급성 경막 외 출혈이 발견되어 응급 수술 시행했습니다.

정 의사: 경막 외 출혈이 수술해 줄 정도는 아닌데 왜 급하게 수술했지?

유 의사: 경련이 있었고...

정 의사: 환자가 젊고 왔을 때 멘탈이 명료했다면서요. 경련 후에 의식이 또렷해졌다면 좀 더 경과를 지켜봤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 의사: 환자는 루씨드 인터벌로 잠시 의식이 회복된 거였고 멘탈이 다시 스투피 이하로 나빠져 수술했습니다.

정 의사: CT 상 혈종이 의식이 나빠질 정도가 아니잖아요. 멘탈 체크를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유 의사: 잘못하지 않았습시다.

정 의사: 그럼 의식이 나빠진 다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장말 의식이 나빠졌다면 CT 를 확인했어야 하잖아요.

유 의사: 오피 필드상 찢어진 중경막 동맥에서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고 혈종이 50cc 이상 확인되었습니다. 오피 필드는 서전의 영역입니다. 절 말지 못하신다면 저도 더 이상 응급 수술은 결정한 근거를 대지는 못하겠습니다.

김 의사: 그래. 오피 필드는 서전의 영역이야. 우리가 우리 영역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존중해 주겠어? 음, 여기까지 하지.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닥터스" (2016, режисер 오충환, автор сценарію 하명희),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Netflix.*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11.

홍 의사: 혼자 오셨어요?

환자: 네. 부모님이 저보다 더 괴로워하세요. 괜한 희망 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홍 의사: 언제부터 떨리기 시작했어요?

환자: 작년부터 계속어요. 처음엔 신기하게 술이 들어가면 손 떨림이 멈춰서 제가 술 마시고 대회에 나간 적도 있어요. 그러다... 팽 났죠.

홍 의사: 음... 술은? 아직도 마시고요?

환자: 아유, 저는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부잣집 딸도 아니고 열심히 살았어요. 제 힘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결과는... 고치실 수 있나요? 한쪽 손이 떨리지만 앓는다면 저 뭐든 할 수 있어요.

홍 의사: 일단 검사를 한번 해보죠. 이게 수전증이라는 게 워낙에 원인이 다양해서 쉽게 밝혀내기는 어려워요.

환자: 관두세요. 고쳐주겠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던 의사 선생님들도 고쳐주지 못했어요. 자신에 대한 확신 없는 분께 맡기고 싶지는 않네요.

홍 의사: 성격이 급하세요. 판단도 빠르세요. 예전엔 안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땀을 때만 해도. 확신 없으니까 믿으셔도 돼요. 원래 잘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되짚어 봐요. 그래야 실수 안 하니까.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닥터스" (2016, режисер 오충환, автор сценарію 하명희),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Netflix.*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12.

혜정: 119 좀 불러줘요!나 알아보겠어? 고개 끄덕이면 안 돼!팔다리 움직일 수 있겠어?

친구: 안 돼. 힘이 안 들어가.

혜정: 손가락은? 손가락 움직여 봐. 안 돼!

홍 의사: 괜찮아?

혜정: 아, 선생님.

홍 의사: 어떻게 된 거야?

혜정: 경추부 손상 의심돼요. 신경이 완전히 망가진 것 같지는 않아요.

홍 의사: 119?

혜정: 벌써 불렀어요.

홍 의사: 아주 잘했어. 너도 의사야. 지금 여기서 지면 안 돼. 니가 지면 친구가 위험해지는 거야, 혜정아.
(구급차가 와서) 최대한 조심해서 옮겨야 돼. 경추 보호대 먼저 갖고 와요. 좀 도와줄래? 조심해. 조금이라도 빠끗하면 끝장날 수도 있어. 조금씩, 조금씩. 잡아. 됐어? 됐어. 천천히 놔. 내릴게요. 천천히.

혜정: 숨을 못 쉬어요.

홍 의사: 청진기 갖다주세요. 청진기. 최대한 빨리 병원 가야 돼. 30 분 안에 호흡 안정 못 시키면 진짜 위험해. 베드 오세요. 오토바이 TA 야. 처치실로 바로 가요.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닥터스" ((2016, режисер 오충환, автор сценарію 하명희),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Netflix.*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Вправа 2. Перекладіть україн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медичну термінологію:

1. 40 대 남자 크론병 환자예요. 장폐색이랑 농양이 생겨서 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할 거예요. 2. 암? – 암은 암인데 갑상선암이라고. 암 중에서도 가장 치료가 쉽고 간단한 수술이에요. – 암이 다 똑같은 암이지. 간단한 암이 어디 있니? 3. 태반까지 나와야 안심이니깐 탯줄을 살짝 잡고 있어. 4. 오덕레 환자는 수프라스피나투스 파셜 시크니스 태어가 있긴 한데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인젝션하면 좋아질 거

같은데. 5. 이분 오늘 금식이야. 6. 안 아픈 곳이 없다고 하시는데 전신을 다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초음파로 다른 관절들도 봤는데 큰 이상은 없었어요. 7. 면담상 만성 통증으로 인해서 심한 우울 상태예요. 8.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 봉합만 하고 드레싱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9. 바이털 체크해 주시고요. CT 랑 MRI 찍을 거니까 빨리 준비해 주세요. 10.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은 대뇌변연계 편도핵이 주역이 되어 만들어진다. 편도핵은 몸을 지키기 위한 투쟁 본능이나 공격 행동도 담당한다. 11.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부러지면서 폐를 찔렀나 봐요. 12. 횡격막이 찢어진 걸 수도 있어. 13. 폐에 피가 고였어요. 28 프렌치 체스트튜브 준비해 주세요.

Вправа 3. Перекладіть корей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жарти:

1. Ну що, Боровський, як вам наша з Ніною Миколаївною акторська гра? – Щось мені ця ‘вистава’ в морзі не сподобалася. – А що таке? Ніхто не хлопав?
2. А страшно лишатися на перше чергування? – Страшно, це коли ти ідеш на екскурсію з тридцятьма семикласниками в зоомузей. – Я канешно не на шо не намікаю, але чучела уже були мертві.
3. Лікувати начальницю – це гарна нагода. – Яка? Заробити невроз? Вилетіти з інтернатури? Посивіти? – Я тобі дуже вдячна, що ти вважаєш цей мій колір натуральним.
4. Всі тренери однакові. Мене в дитинстві так тягнули, що ніякі сльози не допомагали. – Вікторіє Серафимівно, ви плакали? – Анатомічно я людина. І слізні залози у мене звісно є.
5. Люся, ви казали, що у вас є план. А це не план. Це халепа. – Халепа, Ксюшенька, це коли тобі ввечері повідомляють, що твоїй дитині на ранок потрібен костюм їжачка. А це так, дрібничка.

Вправа 4. Перекладіть україн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сталі вирази:

1. 가끔 이렇게 바가지를 긁어야 나도 스트레스가 풀리지. 2. 교수님, 환자 감시에 소홀해서 병원을 이탈하게 한 일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내 잘못입니다. 3. 내가 전에 왜 무기수 환자 맡고 있다고 했잖아. 그분 딸을 찾고 싶은데 니가 좀 도와줘라. 이름이 특이해, 한영룡. – 정숙아, 내가 무슨 흥신소냐? – 이씨, 너 발 넓잖아, 좀 도와줘! 4. 야! 너 마라톤 풀코스 완주하지 않냐? – 내가? 금시초문인데. 5. 아들을 애지중지 키우셨나 보네요. – 그래. 근데 죽 썬서 개 줬지 뭐니. 6. 이 집에서 나갈 생각이예요. – 집을 나간다니? 아니,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소리야? 7. 피는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8. 그렇지 않아도 우리 네 얘기 하고 있었거든. 딱 만나네. 동시성이라고 하지, 어려운 말로. 쉬운 말로는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라고 하고. – 뒷담화라고도 하지. 9. 돼지에게 진주 주지 말자. 10. 불난 데 기름 붓고 있어. 11. 아침에 먹는 사과는 보약이에요. 12.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 소탐대실이라 그랬어. 나중에 잃을 거에 비하면 이건 꺾값이야. 13. 다 필요없어. 분원에서 숨죽이고 있어. 그 자리도 간당간당하니까. – 원장님, "토사구팽"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14. 오늘 투자 계약하는 날 아니냐? – 그럴 거예요. 그걸로 뭘 해보려고 하겠지만 그게 뭐, 되겠어요. 이따가 보면 알겠죠. 지가 얼마나 우물 안 개구리였는지.

Вправа 5. Перекладіть корей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сталі вирази:

1. Вам не здається, що ваша поведінка занадто нахабна для звичайних інтернів? – **Корони**, спрашує Серафимовна, **вам не жмуть?** 2. Так, тихо! Пацієнт спить! Вам що, **повилазило?** 3. По ходу, **кіна не буде**. Тут нереально щось зняти. 4. Ти санітарку **чуть в могилу не відправив** своїм ‘воскрешенієм’. 5. Пробачте мені, що **я на вас настукала**. 6. Складні завдання – це **моє друге ім’я**. Я готовий до всього. 7. Зазвичай, коли мова йде про життя пацієнтів, **чхати він хотів** на посадові інструкції. 8. **На кону** життя людини. 9. Вона думала, що я нічого не бачу. **Не на ту напала**. 10. Ні в якому випадку **ми не сунемо ніс у справи** пацієнтів. 11. **За мною** пів курсу **сохло**. 12. Вікторіє Серафимівно, перший пацієнт і одразу **в десятку**. Ми з вами чудова команда. 13. Такі чоловіки

люблять молоденьких, гарненьких, **кров з молоком**. 14. Вся лікарня **на вухах**. А з цим моїм офаном з самого ранку **всі гудять**. 15. Браво, **ви були на висоті** і таки підтвердили мою гіпотезу. 16. І що, навіть такий **атракціон щедрості** не здається вам підозрілим? 17. Уявляєте, ваш Тертушка **закрив очі** на писанину тих перевіряльників і виділив лікарні 12 новеньких дефібриляторів. – Ну я ж **закривала очі** на його писанину. Він на екзамені назвав печінку органом дихання. 13. Я не буду вам телефонувати. **Зуб даю**. 14. Веніамін Борисович **тю-тю**, а такий хороший лікар був. 15. **Тут що, медом намазано**, чи що? Я хочу подивитися на мужчин своїх любімих без вашого **бу-бу-бу**. 16. **Схрестіть пальці на руках і на ногах**. У Едіка є всі шанси, що за декілька тижнів йому пересадять печінку. 17. Вчиш вас вчиш, а ви прийшли у лікарню і всі знання, **як корова язиком злизала**.

Вправа 6. Перекладіть україн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метафори:

1. 제가 의사가 맞긴 맞아요. 근데 의사 일 그만둔 지 20년이 넘어서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네요**. 2. 엄마. 구걸하지 마. – 그럼 누가 해 주냐? 누가 니 목숨을 구걸해 줘. 자식 위해서라면 독초도 씹어 삼키는 게 에미인데. 내가 왜 그깟 걸 못 하냐? 3. 이제 어쩔 거야? 물은 이미 **쏟아졌고 어떻게 주워 담을 거냐고**. 4. 우리 서 교수는 병원장은 물론이고 더 높은 곳까지 갈 수 있는 실력이 되는 애예요. 그런데 안사람이 돼서는 **그런 비단 꽃길에** 작년에도 검진받지 않으셨어요? 비싼 걸로다가. – **작년에 소고기 먹었다고 올해는 소고기 안 먹나요?** – 예, 맞는 말씀이네요. 7. 나 너 맺힌 데 없이 키우려고 뼈 깎는 노력 했어. – 안 됐네. 그 노력이 전부 물거품 돼서. 나 **꼬일 대로 꼬인 인간이** 됐거든. 8. 이혼 소송 시작하면 **남편의 바닥을** 보게 되실 거예요. 한마디로 **진흙탕 싸움**이죠. 9. 니가 **싼 똥은 니가 치우고** 나와라. 9. 왜 괜히 욕먹어? 우리 신경외과에 지랄 같은 성격 가진 단 한 사람인데 그 비위 하나를 못 맞춰? – 선생님, 이번에 새로 오신 펠로우 선생님 못 보셨죠? **피바람 한번 불 것** 같아요.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10. 혜정이 입은 원래 좋아하는 사람한테 **10 원짜리**인데. 11. 아니,

어떻게 된 게 넌 맞아도 맞아도 길들여지지 않냐? 무슨 야생마냐? 아, 좀 고분고분해져라, 좀! 11. 할 일이 태산이에요. 12. 눈에서 꿀들이 아주 똑똑 떨어지는구만. 13. 사람 마음에 칼 꽂아 놓고 괜찮구나. 14. 내가 왜 너한테 불꽃이 튀지 않는지 알았어, 조금 전에. 내가 왜 상처 있는데 자아가 단단한 여자를 좋아하는 줄 알아? 상처를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거든.

Вправа 7. Перекладіть корей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метафори:

1. Сподіваюсь, ти не розчаруєш мене. Честь білого халату Боровських пам'ятаєш? 2. . Інтерн Жук, може припинимо цей цирк? – Так, але спочатку вас огляне його головна клоунеса. 3. А ваша пацієнтка має справу з птахами? – Ага. Дятлів на бабло розводить. 4. Тільки не треба в морг поперед патологоанатома, юначе. 5. Якщо поможеш, всі лаври твої. 6. Вікторія Серафимівна відкрутить нам голову. 6. В душі вона дуже хороша. Дуже хороша. Дуже глибоко. – А ви вирішили пограти в археолога і розкопати? 7. В цій лікарні працює справжній чарівник. 8. Ніно Миколаївно, ясно тепер, звідки дим. Ви ж сьогодні — вогонь! 9. А де ваш син з сюрпризом? – Він нам сюрприз рік назад зробив, коли таку змію привів. Вона взагалі з нами нічого не празнує. 10. Хто кричав: "Розтаavimo всі крапки над 'і'. Висушимо це джерело стресу"! Що ти, задню даєш? 11. Венечка мене до окуліста запрошує. — А ти тіпа що, собака-поводир?

Вправа 8. Перекладіть україн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сленгові слова:

1. 어떻게 지잡대 출신 펠로우랑 나랑 같은 경쟁 상대로 봐? 2. 그 펠로우도 만만치 않을걸. 3. 너 일주일 동안 별당이야. 4. 기다리는 건 딱 질색이야. 5. 남자들은 왜 젊은 여자만 보면 그렇게 사족을 못 쓰는지? 6. 너 파위가 업 됐어. 7. 유 선생, 날 너무 띄엄띄엄 본다. 8. 늑다리랑은 만나지 마. 8. 이사장님께서 택으로 가지지 않았습시다. 차는 병원에 그대로 있는데 이사장님이 어디 계신진

모르겠습니다. – 어디서 무슨 **공공이**를 벌이고 있는 거야. 9. 그냥 **반땡** 합시다. – 아니, 제가 왜 돈을 내요? 10. 생각보다 참 **가지가지** 하신다. 11. 유혜정 선생님은 정의감도 강하고 싸움도 완전 잘해요. 완전 **걸 크러시**. 12. 너 애 왜 때렸어? – 자꾸 **간족간족대** 가지고. 13. 혜정이 나타나기 전까진 난 너를 내 **베프**라고 여겼어. 14. 이 옷 어떠냐? 점잖아 보이냐? – **구려**. 15. 왈츠는 같이 추는 건데 혼자 저러고 있다고? **깰다**. 16.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17. 그래. 나무랑 대화할 수도 있지 뭐. 상관 없어. 난 **안물안궁**.

Вправа 9. Перекладіть корей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вульгаризми і сленгові слова:

1. Воно ще урологічний катетер от венозного отлічить не може, а вже вимагає. **Вимагаторша!** 2. Між іншим, Вікторія Серафимівна теж дуже строга. – Строга, а не **хамло** мале. Хоча тобі до Серафимовни, як до Гондураса на сліпих оленях. 3. За мною, **кліщі енцефалітні**. 4. Ну що, доплигалась, **махінаторша**? 5. Що ти **вимахуєшся, принц троєщинський**? 6. Викручуйся ти сам, **бик столичний**. 7. Слушайте, а кращого місця для брейнштурму не було? Ну це реально **гоніво!** 8. Чуєш, Ксю, а ти тепер від усіх **гавриків** будеш коктейлі приймати? 9. **Не пали контору**. 10. Сходи **на шухер**. Давай **кабанчиком**. 11. Все, знайшов. Трошки заморочився, але **та-дам**. Так, що тут? 500 підписників. **Лошара**. Так, що тут у нас? Качалочка. Глянь, одні **селфачі**. **Йо-мойо, це ж треба себе так хавати!** 12. Візьміть мого пацієнта, благаю. – Ми і так **зашиваємось**. 13. Інтерн Жук, пацієнтка ваша. Вам принаймні вистачило розуму не **випендрюватися**. 14. Венечка, ти пробач цього **придурка**. І мене пробач, що я тебе **мажором** називала. 15. Я знав, що щось таке трапиться, і я підхоплю щось невиліковне. Слушайте, може мені зробити КТ і перевірити додаткові пазухи? – Голову собі краще перевір, **молохольний**. 16. Ви мене в могилу загоните, **узурпатори!** 17. Ви живі? Може вам лікаря? – **Придуток**, а ти хто?! 18. **Мікроб**, ти можеш вмерти?! Пропустила через тебе, що сказали.

Вправа 10. Перекладіть полілоги із серіалу "Люся інтерн" корейською мовою. Зверніть увагу на способи перекладу виділених фрагментів тексту:

1.

- Веня: Схоже на атонію сечового міхура. Треба зробити цистометрію.
- Ксюша: Ти що думаєш, ти один це знаєш? Я просто мовчала, бо якби пацієнт спить.
- Веня: Пряма як у Шекспіра: "А що, якщо все це сон". *(Пікає монітор)*
Що я натиснув? Я його вбив?
- Пацієнт: А-а-а!
- Ксюша: Тихо, тихо, тихо. Заспокойтесь. Гамлет, це просто нагадування. Все добре. .
- Веня: Ця медицина – **одні нерви**. Постійно боїшся когось вбити.
- Пацієнт: А-а-а!
- Ксюша: Заспокойтесь, заспокойтесь. Ху-ху-ху. І не кажи. Я теж боюся **налажати і вилетіти** звідси. А я ж сама поступила, **без блату**. **У мене всі ЗНО на 200 балів**.
- Веня: Круто. Я тебе так розумію. Мені теж часто здається, що я чужий у цьому світі.
- Ксюша: Нук ти правда трохи **ку-ку**. Але я рада, що ми в парі.
- Веня: Я теж. Ти така розумна, **бойова**.
- Ксюша: Егеж бо й во. У мене що, варіанти є? У мене ж немає татка-**мажора**, який би мене тут прилаштував.
- Головний лікар: О, інтерни! Я Сергій Сергійович Запорожець – головний лікар цього **серпентарію**.
- Ксюша: Дуже приємно. Ксенія Горбата.
- Головний лікар: Венька, ти? Ох і **вимахав!** **Представник медичної династії**. Дідо хірург – легенда. Фантастичний. Бабуся божественний **розсольник** варила. Що тут у нас?
- Ксюша: У пацієнта атонія сечового міхура.
- Голов. лікар: *(Вібриє телефон)* Алло. Так. Зараз буду.
- Ксюша: Так от. Треба зробити цистометрію.
- Головний лікар: Ніколи... не ставай головним лікарем. Тотальна бюрократія. І визначити швидкість перфузії сечі не забудьте.
- Ксюша: Визначимо. І лікування можна почати з дієти і фізіопроцедур.

Головний лікар: Перший пацієнт і такий цікавий анамнез. Заздрю. Вєнька **за головного. Медицина у тебе в крові.**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Люся інтерн" (2021, режисери О. Даруга, М. Литвинов, В. Яковенко, автор сценарію Д. Дейниченко),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2.

Головний лікар: Мої юні терапевти, сьогодні у вас особливий день. У нас з'явився справжній **орфан**. Я сподіваюсь, ви в курсі, що означає цей термін.

Люся: Так. Звісно.

Вєня: Мій дідусь так навіть колись назвав бульдога.

Люся: Орфан – це...

Ксюша: Пацієнт з рідкісним захворюванням.

Міша: Можна подумати, ти одна знала.

Голов. лікар: Сьогодні такий орфан з'явився у нашому відділенні.

Люся: А хто це? Хто він?

Головний лікар: Хто він, знаю лише я. Вам необхідно встановити і орфана, і діагноз. Отже, чия інтуїція виявиться кращою? Хто здогадається першим? Кому вдасться..?

Ніна: Сергійович, **я з вас вмираю. Ви щас прям, як Вова Остапчук на шоу 'Маска', тягнете інтригу, як kota за балабошки.** Ой, я вас перебила? Вибачаюсь. Продовжуйте.

Головний лікар: Той, хто перший знайде орфана, матиме змогу написати про це статтю у справжньому медичному журналі.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Люся інтерн" (2021, режисери О. Даруга, М. Литвинов, В. Яковенко, автор сценарію Д. Дейниченко),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3.

Люся: Це як мінімум не справедливо. Теж мені друзі. Знають, як я люблю медичні загадки. Знаєте, що я роблю? Я оце включаю серіал "Черговий лікар", а потім вимикаю звук і відгадую.

Ніна: Господи, жєнщина. **Вам скоро прогули на кладовищі ставити почнуть. Вам би про землю подумать,** а ви лізете туди, куди вас не просять. Коли вже успокоїтєсь?

Люся: Що значить "вспокоїтесь"? Це медицина. Я про неї все життя мріяла.

Ніна: А і того ви рішили **всіх нас замахать**.

Люся: Я знаю, що ви мене трішечки не любите.

Ніна: Ну чому ж трішечки?

Люся: Але я вам щиро заздрю. Ви 30 років в медицині. Ви 30 років своїм пацієнтам кажете...

Ніна: 'Закрийте рот! Знімайте штани'. Дуже познавательно і інтересно.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Люся інтерн" (2021, режисери О. Даруга, М. Литвинов, В. Яковенко, автор сценарію Д. Дейниченко),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4.

Тьома: Я створив електронну петицію про заборону досліджень на тваринах. Підпишіть, будь ласка.

Ніна: Господи, це коли-небудь закінчиться чи ні?

Тьома: Яке нераціональне використання паперу. Можна ж друкувати з обох боків.

Люся: Ось ти де. Я ж тобі казала, не виходь з ординаторської. У мене пацієнти. Будеш себе чемно поводити, я куплю тобі шоколадку.

Тьома: Солодке псує зуби і змушує **підшлункову виробляти інсулін**, а інсулін підвищує ризик смерті. Краще купи мені мадагаскарського таргана. А про нещасні дерева подумайте.

Люся: Я навіть не знаю, в кого він такий **приставучий**.

Ніна: А я кажеться знаю.

Медсестра: Людмило Михайлівно, у пацієнта з першої знову **рідина у черевній порожнині**.

Люся: Ой, Боже, знову набирається. **Треба вводити дренажну трубку**. Наталко, готуємо.

Ніна: Може хай лучче людина своєю смертю помре, ніж ви її заколете. А вообщє, мій вам совет, подзвоніть Серафімовне.

Люся: Так, так, так. Точно. Але я обіцяла не турбувати. Хоча пацієнту може стати гірше. А може там не так критично? Як це важко,

коли від тебе залежить життя людини. **Еники-беники, їли вареники. Еники...** Не дзвонити Вікторії Серафимівні. Але подзвонити можна Льоші.

Льоша: Дуже професійни дренаж. Я навіть не очікував.

Люся: Правда? А ти був проти того, щоб я поверталася в медицину.

Льоша: До речі, про повернення. Я як лікар мав би залишитися і допомогти, але як син – можемо ми ще пів години погуляти?

Люся: Але через пів години, **щоб були тут, як штик.** Інакше у вікно буду кричати: "Льоша, додому!".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Люся інтерн" (2021, режисери О. Даруга, М. Литвинов, В. Яковенко, автор сценарію Д. Дейниченко),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5.

Люся: Добрий вечір. Що тут у нас?

Ніна: Та от по скорій привезли. 46 років. Похожа на труп. Грип, грип, грип.

Люся: Так. **Біль у серці, лихоманка, потовиділення.** Як ви себе відчуваєте?

Пацієнтка: Так болить, що аж **під ребра віддає.**

Ніна: Ніно Миколаївно, **поміряйте-но тиск.**

Ніна: Поміряла. **110 на 70.** Кажу ж вам, грип.

Люся: А оці плями? Це давно у вас?

Пацієнтка: Десять місяців.

Люся: Хм. **Лімфовузли збільшені.** Тут щось не так. Ніно Миколаївно, **треба на ЕКГ.**

Ніна: От **Фома невіруюча.** Я ж кажу вам, звичайна респіраторка. Ну я таких, як вона, вагон і маленьку тележку **пребачила.**

Люся: Може нам зателефонувати Вікторії Серафимівні?

Ніна: Щоб що? Три часа справлялися і досить непогано.

Люся: Це ви хочете сказати, що я – хороший лікар?

Ніна: Це я хочу сказати, **понімайте, як хочете. Що ви мені нерви робите?**

О, Серафимовна. Здрасте. Таки подзвонили. От уже ж **амьоба безхребетна**. Не дала людині спокійно вечерочок скоротать.

Вікторія: Дуже добре, що ви подзвонили. Прийшли результати аналізів. У пацієнтки **інфекційний ендокардит**.

Люся: Ось звідки ці симптоми, схожі на грип.

Вікторія: Так. Далі **серцева недостатність** і, якщо вчасно не прореагувати, **кардіогенний шок** і смерть. **Напад ми зупинили**. Завтра переводимо в кардіологію.

Люся: Я така рада, що я вам подзвонила. І тепер ендокардит не вб'є нашу пацієнтку, а ви мене.

Вікторія: Це точно.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Люся інтерн" (2021, режисери О. Даруга, М. Литвинов, В. Яковенко, автор сценарію Д. Дейниченко),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6.

Ніна: Хватить тут із себе актрису другого плану ізожражать. Жити будете!

Люся: Ніно Миколаївно, що тут відбувається?

Ніна: У нас **дурдом** відбувається. От всіх марафонців вирішили звести в наше відділення. Я вообщє не понимаю, що вони в цьому бігу находять. **Сустави** убивають, **селезінка** випирає.

Люся: Ніно Миколаївно, біг – це життя. Ви що, не бачили **‘Зірковий шлях’**? Там всі бігають. **Потап** бігає, **Настя** за ним бігає. **Винник** бігає. **А він уже**, знаєте, **не дівчинка**. От скільки йому років?

Ніна: Ну взагалі-то він мій ровесник.

Ксюша: Хтось може мені пояснити, чому марафон загальноміський, а всіх чомусь везуть саме до нас?

Люся: Тому що наша лікарня найблища до фінішу.

Ксюша: Боже, от ніколи не розуміла цих бігунів. Біжать, травмуються.

Ніна: Ну ладно, молодь. Чого ви **попхалися** на той марафон? **Ви хто? Арабський скакун? Коник-горбоконики? Сергій Бубка?** Сиділи б дома і дивилися б **‘Агентів справедливості’**!

Міша: **Капець**. Хтось мені пояснить, у нас обхід почнеться чи ні?

Веня: Вікторія Серафимівна запізнюється. Це дивно.
Головний лікар: Що, юні терапевти, у вас теж аншлаг? Через цей марафон вся лікарня забита.
Ксюша: Зневоднення, серцеві напади. Ще теплові удари.
Головн. лікар: Ну і випав сьогодні деньочок!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Люся інтерн" (2021, режисери О. Даруга, М. Литвинов, В. Яковенко, автор сценарію Д. Дейниченко),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7.

Люся: Отже, Лізонько, на тренуванні відчула **прострілюючий біль у суглобах, заціпеніння м'язів, а потім сильне запаморочення**. Все вірно? Так?

Тренерка: Так, так, так. З Лізою таке вперше. Я перелякалась і одразу привезла її сюди. А зараз їй краще. Це звичайна **перевтома**.

Люся: Перевтома чи не перевтома, ми все з'ясуємо, коли проведемо детальне **обстеження**. А з такою симптоматикою нам потрібно буде днів три.

Тренерка: Днів три? Ви серйозно? Це звичайна перевтома. Дайте їй таблетку. **Вколить укол**. Робіть свою роботу. Я що, повинна вас вчити?

Люся: Я роблю свою роботу. Можна ніжки? Давно ці **синці**?

Тренерка: Боже, синці. Візьміть калькулятор. Перерахуйте їх на калькуляторі. У гімнасток все синє. І синці ніколи не заважають їм тренуватися.

Люся: Можемо встати на ніжки?

Ліза: Ой-ой-ой.

Люся: Поки ми не встановимо **діагноз**, ніяких тренувань бути не може.

Тренерка: Я привезла її сюди тільки тому, що ця лікарня найближча до нашої тренувальної зали. І якби я знала...

Люся: Знали що?

Тренерка: Ми не розумієте. У Лізи за 2 місяці перша в її житті олімпіада. Вона представниця легендарної династії. І у **НОК** на неї величезні ставки.

Люся: У дитини температура 38. Які можуть бути ставки?
Тренерка: Послухайте. Вона не дитина. Вона – спортсменка. І у неї олімпіада.
Люся: Олімпіада потім, а біль у неї зараз.
Тренерка: Послухайте, у великому спорті все через біль. На тому чемпіонаті, який ви тут згадували, я, між іншим, з температурою виступала і на ногу стати не могла.
Ліза: Я вже місяць з температурою займаюся.
Люся: Місяць з температурою, Лізо?
Ліза: Так.
Люся: Значить так. Поки не прийдуть батьки Лізи, ми нічого вирішувати не будемо з вами. Ясно?
Тренерка: Я ще маю вас тут терпіти декілька годин?
Люся: Ви ж гімнастка. Потерпите. У спорті все через біль.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Люся інтерн" (2021, режисери О. Даруга, М. Литвинов, В. Яковенко, автор сценарію Д. Дейниченко),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8.

Ніна: О, Наташо, ану глянь око. Червоне?
Наталя: Ой-йой. **Як борщ.** Миколаївна, що це з ним?
Ніна: Та **холера** його зна, що це з ним. Учора була у окуліста. Дав якісь крапельки. Сказав, алергія. Капаю, а **помагає, як мертвому припарки.**
Люся: *(Принесла торт)* Доброго ранку!
Ніна: Всьо. Доложили родственнічки. Так? Ну має ж бути у людини капелюшечка лічної життя. Вона і так особливо строга у цей день, а тут іще ви зі своїми провокаціями.
Люся: З якими провокаціями, Ніно Миколаївно. Це просто торт.
Ніна: Ну не любить людина. Не святкує. Не офіширує. Ну поважайте. Вона все таки як-ніяк **ваш начальник з великої букви**, а ви її інтерн – з **малої.**
Люся: А-а-а! Це у Вікторії Серафимівни сьогодні день народження?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Люся інтерн" (2021, режисери О. Даруга, М. Литвинов, В. Яковенко, автор сценарію Д. Дейниченко),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9.

- Вікторія: Отже, пацієнтка, яка перевели до нас з травматології. **П'ять переломів, два з них зі зміщенням.** Але нас цікавить дещо інше – **симптоми, які не пов'язані з ДТП: біль у шлунку, нудота, блювання.** Ваші припущення, інтерн Боровський?
- Веня: Можливо **кишкова непрохідність через розтягнення органів.**
- Вікторія: Непогано. Пацієнт ваш і Бабенка. Інтерн Горбата, для вас у мене дещо інше. Ви непогано проявили себе цього тижня, тому **в якості бонуса** відправляєтеся в кардіологію. Там сьогодні **консультує** професор Антоненко.
- Ксюша: Антоненко? Це ж видатний кардіолог. Дуже вам дякую, Вікторія Серафимівна. **Це для мене така честь!**
- Вікторія: Жук! За мною.

- Люся: Вікторія Серафимівна, мені терміново треба помінятися з Ксюшею. Вона сюди, а я в кардіологію.
- Вікторія: А більше вам нічого не треба?
- Люся: Я боялася вам зізнатися, але у мене **патологічний страх перед отруєннями.** Так. І **патологічна тяга до хвороб серця.**
- Вікторія: Інтерн Жук, послухайте...
- Люся: Послухайте. Ксюша. Вона така молода юна дівчина. У неї все життя попереду. А у мене, самі розумієте, останній шанс побачити професора Антоненка **живого. Живим. Мною живою.**
- Вікторія: Інтерн Жук, я не знаю, куди там вас патологічно тягне, але зараз **припиніть самодіяльність** і йдіть до своєї пацієнтки. **Або на вихід.**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Люся інтерн" (2021, режисери О. Даруга, М. Литвинов, В. Яковенко, автор сценарію Д. Дейниченко),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10.

- Пацієнтка: Лікарю, все добре?
- Веня: Так. Схоже, у вас **часткова втрата зору на лівому оці.**

- Міша: Секундочку, секундочку. Значить, Венчик, у нас **тромбоз в результаті удару.**
- Веня: Оскільки **основний удар припав на область кишківника, судини** спершу закупорилися там, а потім **сформувався тромб.**
- Міша: Звідти він потрапив до **очної артерії.**
- Веня: Улюблена артерія для тромбів.
- Міша: Так. Ви не хвилюйтесь. Ми терміново зробимо вам **ультразвукову доплерографію.**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Люся інтерн" (2021, режисери О. Даруга, М. Литвинов, В. Яковенко, автор сценарію Д. Дейниченко),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Вправа 11. Перекладіть україн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порівняння:

1. 미로처럼 복잡한 우리 세 사람 관계 답도 없고 끝도 없고. 2. 주인도 아니면서 왜 주인처럼 가져가, 남의 걸? 3. 외로움에 대한 각성은 불현듯 찾아온다. 4. 진짜, 나도 번개라도 맞은 것처럼 놀랐어. 5. 내 죄명에 대해서 들었어요? – 네, 알고 있습니다. – 그럼 이럴 시간에 다른 환자들 돌봐 줘요. 난 이렇게 죽은 듯이 살다가 연기처럼 사라지고 싶어요. 6. 그분은 부모님 두 분 다 교사이신데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 가지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7. 오빠는 아버지 걱정은 안 돼? – 우리 폰대 별명이 불사조야. 아마도 이번에도 불사조 같이 살아나실걸. 8. 어머! 깜짝이야. 아유, 선생님. – 뭘 그렇게 놀라요? – 아이, 그렇게 귀신 같이 서 있는데 안 놀라요? 9. 약은 내가 탔어요. 엄마가 아니라. 그 시궁창 같은 인생을 벗어나고 싶어서 내 손으로 직접 그렇게 했다고요. 10. 애비 없는 자식 키울 거면 평생 시집가지 말고 애나 키우면서 혼자 살라 그래! – 앞길이 구만리 같은 애한테 그게 무슨 악담이야! 11. 저 남자 말이야. 혹시 너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 뭘 똥단지 같은 소리야. 12. 교수님 오늘은 정말 친절하시네요. 그동안 교수님이 **쓴살** 같이 가 버려서 궁금한 것도 못 물어보고 얼마나 답답했나 몰라요. 13. 아들이 있으세요? – 있죠. **금쪽** 같은 아들이 있긴 있어요. 14. 다 알면서 왜 **꿀** 먹은 병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거냐고요. 15. 이 자식이 지금 형님 **말씀**하시는데 대꾸는

안 하고 너 얻다 소리 지르는 거야, 어? 너 허리를 아코디언처럼 접었다 폈다 해 줄까? 16. 내가 김 과장님 존경해서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는 것이 너무 양아치 같잖아. 위아래도 없고 존중감도 없어. 실력도 거지 같은데 배우려는 자세도 불량하다면 나가야 되지 않겠어?

Вправа 12. Перекладіть корей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порівняння:

1. Чувак, я б теж переписував, але це ж не почерк, це кардіограма якась.
2. Інтерн Жук, фізрозчин швидше крапає, ніж ви йдете на обхід.
3. Ви що, не лікар? – Та їй до лікаря, як сколопендрі до метелика.
4. Бачила я таких принципових. На горизонті з'явиться хтось, свисне і поскачите до нього по полю, як молода лань.
5. Я бачила, як ви на нього дивилися. Як мій Тузік на сосиску.
6. Зараз піду і поставлю його на місце. – Ну прям не жінка, а кремень.
7. Вона палить, як паровоз.
7. Ви були крутезна. Ви, як капітан корабля, що потрапив у шторм і не розбився об скелі.
8. Скажу вам чесно, мені ця акція теж, як лоботомія без наркозу.
9. Матраци дубові, наче на камазі з гравієм лежиш.
10. Що ти дьоргаєш [той телевізор]? Це що, бур'ян на городі? З технікою треба ніжно, як з жінкою.
11. Ой які красиві чоловіки. Я б дивилася і дивилася, якби деякі особі не скакали б тут, як кардіограма у дедушки.
12. У мене стільки років медичного досвіду, що я зараз дивлюся на вас, як рентген, і я бачу, що все буде добре.
13. Ніна Миколаївна пре, як танк. Вон так хоче попасти на те 'Говорить Україна'.
14. У мене здоров'я міцне, як обценьки.
15. Я не впевнена, але здається, у нього сепсис. Нога отакенна, як у бронтозавра.
16. Третя пневмонія за рік. Чіпляється, як блохи до Тузика.

Вправа 13. Перекладіть корей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гру слів:

1. Гляньте, що я надибала в маніпуляційній. – Це тещин язик (*квітка*). – Да? А такий довгий, як у вас.
2. А що ми так побіліли? Ви що, в інституті трупів не бачили? – Бачили, але то ж був не наш труп. – Да? Ну ті, що зараз у морзі лежать, теж мені не родичі.
3. Ти, вай-фай на низьких скоростях, без телефона, без

інтернета. Нічого не фотографуємо, нічого не знімаємо. – Ні, ні, ні. У мене челендж. – Фігелендж. Телефон бігом на базу. 4. У кожного лікаря є щось таке, що його лякає... Я ненавиджу жовч. – А чого ж ти нею постійно бризкаєш? 5. Тепер про цікавого наставника. Як ви знаєте, щомісяця я запрошую до нас світл нашої медицини. – І хто світитиме цього разу? 6. Привезли вночі пів свадьби. Я вже 10 крапельниць з ранку поставила. – А що з ними? – Ну варіантів два: або нажерлися, або понажиралися. Вирішувати вам. 7. (Про лікувальну собаку) Ну що тут наш лікар Толя? Який діагноз нагавкав? Гавстрит? Гавпендицит? 8. Ну що ви закликли! Готуйте долоні, зустрічайте гастрольорів. Гастролі, плавно переходящі у гастрит. – В сенсі? – Оркестр повним складом. Отруєння в придорожньому кафе. 9. Я читала, що у класичне олів'є входили рябчики, оливки і памперси. – Каперси! 10. Надіюсь, з вами розраховалися нормальними грошима. – Ні, також Бетховенами. – Біткоїнами! 11. Горбатого могила виправить. Це я не про тебе, Горбата. 12. Я раджу вам ретельніше вибирати інтернів. Хоча пам'ятається, люди завжди водили вас за ніс. Особливо чоловіки. – Добре, що за ніс, а не за дальню шафку університетської бібліотеки, як деяких. І нагадаю, не читати. 13. Лежіть, не вставайте. – Буду лежать, як вкопана. – Добре, що не як закопана. Це ж ваш жарт. 14. О, дуелянти, ну як ваш тет-а-тет? – Я б сказала, тет-а-нет.

Вправа 14. Перекладіть україн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гіперболи:

1. 난 막 회복이 빛의 속도다. 2. 지금 이게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까지 소문이 다 났어. 3. 벽에 똥칠할 때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4. 이 비디오는 이제 빛의 속도로 세상에 퍼진다. 저 땅끝 마라도까지. 아니, 아프리카 우간다까지. 우가우가. 4. 밀도 끝도 없이 술 시합이에요? 5. 정말 관두실 거예요? – 지옥이 혼자 어떻게 사무실을 꾸려? 개는 평생 가야 10 원 한 장 못 벌어. 그냥 사방팔방 뿌리고 다닐 놈이지. 6. 대표님, 오돌병이 사라진 거 같습니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건지. 이게 어쩐 건지. 7. 당신 헤어스타일 바꿨나? – 웬일이야? 옛날에 내가 머리를 뽀뽀 밀어도 못 알아보던 사람이. 8. 아따, 키가 63 빌딩이요. 9. 어떻게 두바이에서 남자랑 같이

왔다는 소문이 나한테 제일 늦게 들어오지? 뭐 하는 놈인데? 뭐, 앞마당 파면 석유 나오는 그런 분이시니, 혹시?

Вправа 15. Перекладіть корей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гіперболи:

1. Гамлет, ти що, ватку зі спиртом понюхав? 2. Щоб ви знали, ви мене вже дістали до хвороби Боткіна. 3. Там порції такі, що тільки під мікроскопом можна подивитись. 4. Так, виколіть мені очі і я зроблю вигляд, що цього не бачила. 5. Все прибрати, залишити тільки одну гірлянду. – Дякую, Серафімовна, бо у мене таке відчуття, що я на Софіївській площі. А оце блимає так, що мене уже укачало. 6. Ви ж знаєте, я для вас гори зверну і, кому треба, ноги ламаю. 7. Це що, за 50 грам стільки грошей? Це цистерну можна купити! 8. У неї такий довгий язик, що ним можна обмотати цілий екватор. 9. В мене для вас новина. – Що, моя дочка збирається відправити мене на Південний полюс? 10. Нормальна в мене температура – 36.6. У сантиметрах це довжина вашого язика. 11. Ви мабуть теж не поснідали, як я. – Я сьогодні зранку з'їла більше, ніж ти важиш. 12. От молодь! Без гаджетів, як без рук. З цим навіть мавпа може бути терапевтом. 13. У вас були сумніви? – У вашому слові? Ніколи. Ви навіть якщо здуру пообіцяєте дизельний потяг зрушити, ви це зробите.

Вправа 16. Перекладіть україн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реалії:

1. 아휴, 내가 널 제대로 **한의원에** 데리고 가서 약을 지어 줘야 했는데. 그 **건강원**이 잘한다는 말만 믿고 내가 미쳤어. 2. 이랑이 입시 끝나면 우리 식구들 다 같이 **제주도**라도 한번 가자. 나도 결혼 전에 가 보고 한 번도 못 가 봤잖아. – 뭘 소리 하는 거야? 나하고 **애월** 가 놓고. – **애월**? 우리가 언제 **애월**을 갔어? 3. 저기 **된장** 가지고 **쌈장**이라도 좀 만들어 주실래요? 4. 당신 **추자도**에서 공보의로 근무할 때 배에서 애기 받아 봤다며. – 그거는 20년도 넘는 일이잖아. 4. 아휴, 이제 정신이 좀 드네요. – **막걸리**를 아주 많이 드셨나 봐요. 5. 니 새끼를 니가 키워야지. 누구더러 **쿠워** 달래? **튼튼이** **백일잔치**도 하고 **돌잔치**도 하고

학교 가는 것도 보고 다 봐, 다! 6. 근데 원래 이사 오는 날은 **짜장면** 먹는 거 아니냐? 응? – **짜장면**보다 **파스타**가 만들기 쉬워서 그래요. 7. 먹을 거 없니? – 의국에 어제 **떡케이크** 남은 거 있는데 가져다드릴까요? 8. 니가 **흑장미**도 해줬는데 나도 너한테 뭔가 해줘야 되지 않겠어? 9. 역시 **매운탕**은 직접 잡아서 끓여 먹어야 좋아요. 9. 장모의 마음으로 씨암탉을 준비했다. 몸에 좋은 보양식 **삼계탕**. 10. 윤도야, **깍두기**하고 소금 좀 갖다줘라. 11. 설마 **도시락** 싸다 주는 겁니까? 유 선생한테? 12. 그때 **해물짬** 시켜주셔서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Вправа 17. Перекладіть корей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алюзії:

1. А зараз відчуйте енергію вашого колективу. Відчуйте блукаючий дух **Гіппократа**. 2. Це ваша сосиска? Ніна Миколаївна мене не попередила. – Здрасте, я тобі що, **Мінздрав**, попереджати, що поїдання сосисок Серафімовни опасно для твого здоров'я! 3. Ксюша, ти така гарна. Це ти, чи **Ліза Зайцева**? 4. Тьома напише, але не смс-ку, а у **Книгу рекордів Гіннеса**. Нехай внесуть "Найнаївніша жінка у світі". 5. Ви ж давали клятву **Гіппократа!** – Її вже років 800 не дають. 6. Може я і не чемпіонка, але за своїх пацієнтів я борюся як "**вовчиця**", "**молода вовчиця**". 7. Так, **Ромео**, іди одягни маску, бо всіх пацієнтів перелякаєш. 8. Ну що, як там ваша **Зіта?** – **Яка Зіта?** – Ну "**Зіта і Гіта**". Кіно таке індійське було про двох сестер. Їх в дитинстві розлучили, а потім вони зустрілися і ніяк не могли набалакатися. 9. Ви могли нормальною людською мовою сказати, що розбився градусник, що ртуть, що людині загрожує небезпека? А ви влаштували мені тут **детективне агентство "Місячне сяйво"**. Теж мені **міс Марпл**. 10. Нормальний тиск у вас. **Гагарін** би позавидував вашому тиску. 11. Ви, як **герої Марвела**, зробили неможливе. 12. Ксюша, поможи мені. – А що таке, **магічні селфі** вже не зцілюють? 13. Нащо ти видудлив увесь пузирьок? – Це ж було заспокійливе. Воно мене заспокоїло. – Ти, **Будда** недоделаний, це був звичайний вітамін С. І ясне діло, якщо його випити у такій кількості, тебе поприщить, як дітей після мандаринок. – Виходить, я сам себе заспокоїв? – Не. **Святий дух** спустився на землю і успокоїв тебе. Звісно сам! 14. Може я помер,

і це все мені сниться? – Ага. А я – **Архангел Гавриїл**. Встрічаю тут тебе з розпростертими обіймами. 15. Час уже свою сім'ю мати. Скільки тобі років, а ти все холостякуєш. – Правильно казати "парубкуєш". – Ой, який з тебе парубок?! – **Моторний**. – **І хлопець хоч куди козак**.

Вправа 18. Перекладіть корей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фольклоризми:

1. **Та щоб ти скис**. 2. **Не пришивайте на собі – пам'ять пришиєте**. 3. **Щоб їм ті гроші поперек горла стали**. Хапуги! 4. Скільки разів вам казати, що пенсії місце на пенсії. – А я вам кажу, що моє місце тут. **Хай мене грім вдарить**, але я ні про що не шкодую. – Вас скоріше вдарить радикуліт. 5. А у мене з сином прекрасні відносини. Ми – **гичка до гички, душа в душу**. 7. **Кіт із хати – миші в пляс**. 8. Ах ти ж зараза! **Що б ти в наступному житті у морзі працював**. 9. Як тільки він прокинеться і візьметься за гаджети, йому знову стане гірше. І ви зрозумієте, що я був правий. Знову не вірите? – Ні. Я вірю, вірю. А я ще вірю, що **Святий Миколай приносить подарунки, і що дітей приносять лелеки, а якщо зав'язати червону ниточку на палець, то ячмінь пройде**. – З ниточкою працює. 10. А від коли це ви звітуєте пере головним лікарем з приводу пацієнтів мого відділення? – Серафімовна, **Бог з вами**. Хто докладає? 11. Я на мить уявив себе з нею в маніпуляційній. **Хай Бог милує**. 12. **Курочка встала – місце пропало**.

РОЗДІЛ 4

ТВОРИ В ЖАНРАХ МІСТИКИ, ФЕНТЕЗІ І НАУКОВОЇ ФАНТАСТИКИ

Вправа 1. Перекладіть полілоги із серіалів "다 이루어질 지니", "호텔 델루나", "화유기" українською мовою. Зверніть увагу на способи перекладу виділених фрагментів тексту:

1.

지니: 나는 연기 없는 블로부터 창조된 정령, "지니"고. 우리는 천사가 만들어진 다음 날인 목요일에 창조되었다.

지금 하는 나의 이야기가 당신의 언어로 들린다면 그건 내가 지니이기 때문이다.

초월적인 힘과 신비한 마법을 가진 우리 지니들은 점차 교만해졌고 신보다 더 큰 존재가 되려고 했다. 하지만 난 관심 없었다. 그분보다 더 큰 존재가 되면 하! 얼마나 귀찮겠는가.

그러나 분노한 신은 천사들을 보내 교만한 지니들을 멸할 것을 명했고. 300 년의 긴 전투가 끝났을 때 나를 포함한 몇몇 지니를 제외하고는 모두 죽어 버렸다. 나는 램프에 칩거했다.

세상이 정화되자 그분께서는 다음 날인 금요일에 우리를 대신할 종족을 창조하셨다. 진흙으로 바로 너희, 인간들을. 그리고는 당신이 창조한 첫 번째 인간에게 머리를 숙일 것을 명했다. 모든 천사와 살아남은 지니들은 머리를 숙였지만 나는 그것을 거부했다. 연기 없는 블로부터 창조된 나는 진흙 따위로 빚어진 인간에게 머리 숙일 수 없었다.

격노한 신은 나를 천국에서 내쫓았고 지옥에 떨어진 나는 한 가지를 요구하였다. 나는 나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테니 그 대신 인간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신이 사랑하는 그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증명하겠다고. 그분은 내 요구를 허락했고 단, 조건을 달았다. 그것이 너희 인간들이 알고 있는 세 가지 소원의 시작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지옥을 나와 램프와 반지, 항아리에 갇들어 살며 나를 불러낸 인간들의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었다.

인간들은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만족을 모르며 가까운 자부터 배신하니. 그들은 스스로 타락했고 나는 입증했다. 내가 옳았음을. 그런데 너는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온 너는 죽어가면서도 세 가지 소원을 모두 타인을 위해 빌었다. 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소녀여, 흠으로 빚어진 소녀여, 죽어가는 작은 인간아, 나는 너의 죽음을 지켜보겠다. 그리고 너의 뼈와 살이 섞인 흠 한 줌을 들고 가겠다. 너로 인해 너의 램프는 어둠보다 깊게 묻힐 것이나. 나는 흠으로 빚어진 너 따위에게 머리 숙이지 않겠다.

나는 너의 눈빛을 기억하고 너의 흠냄새를 기억하고. 혹시나 새 주인이 나타나 나를 불러낸다면... 그래서 내가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온다면... 그땐 세상을 다 뒤져서 너를 찾아내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타락시키고 죽여 버리겠다.

기억해라. 널 찾아갈 내 이름은 ‘이블리스’다.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다 이루어질 지니" (2025, режисери 안길호, 이병현, автор сценарію 김은숙),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Netflix.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2.

봉사자: 어머, 안녕하세요.

이즈라엘: 안녕하세요.

봉사자: 밥차 후원해 주시는 류수현 대표님. 여기는 새로 오신 봉사자분이세요. 이미주 씨.

이즈라엘: 반가운 얼굴이네요.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미주: 왜 반갑죠? 초면인데요, 우리.

이즈라엘: 아닐 텐데요. 인간은 참 젊음을 좋아해요. 그렇죠? **겉모습이 젊어진다고 해서 정해진 수명이 늘어나는 건 아닌데.** 멍청하게.

이미주: 수명? 보이소, 대표님요. 방금 나한테 그런 얘기를 왜 했는데요?

이즈라엘: 그런 얘기를 왜 했냐고? 알고 싶어? **정령도 보고 천사도 보고 너는 참 운이 좋구나.**

이미주: 그게 무슨... 천사요? 허어!

이즈라엘: 나는 천사 이즈라엘이다. **죽음의 천사라고도 불리지.**

이미주: 죽음이요?

이зра엘: 이러석고 오만한 인간아, 봉사하고 나누며 살면 네 비밀의 무게가 가벼워질 줄 알았느냐. 젊음을 되찾고 보니 오래오래 행복할 꿈을 꾸었느냐. **턱도 없는 소망이다.**

이미주: 그게 대체 뭘 소리인가?

이зра엘: **젊어졌어도 너에게 남은 시간은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다. 물론 너는 네 손녀를 훌륭히 품었으니 천국에 갈 것이다. **그걸로 위안 삼아 보든가. 너는 너의 마당에 다시 매화꽃이 필 때 죽을 것이다.**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다 이루어질 지니" (2025, режисери 안길호, 이병헌, автор сценарію 김은숙),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Netflix.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3.

이 형사: 전 경찰입니다. 잠입 수사 중에 정체가 드러나서 당했어요.

만월: 참 안됐군요. **정의로**운 일 하다 가셨으니까 저승 가실 때 **명계**에서 특급 리무진 제공될 겁니다. 며칠 쉬시다가 타고 가세요.

이 형사: 이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만월: 대부분의 손님들이 그런 말을 하죠. 어떻게 해 드릴까요? 복수를 원하십니까? 참고로 복수를 하신다고 해도 **인간의 목숨을 뺏을** 순 없습니다. 뭐, 조금 괴롭힐 수 있긴 하지만 **그게 죄가 돼서** 당신의 **다음 생에 타격을 줍니다.** 충분히 훌륭한 조건에서 다시 태어나실 수 있는데 이미 끝난 생의 **원한을 갚다가** **개돼지로 환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죠.

이 형사: 복수하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쫓던 놈은 인간의 법으로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잡아 두고 싶어요.

만월: 참 책임감이 넘치는 분이시네. **이승과** 관련된 서비스를 위해선 이승의 돈으로 지불하셔야 됩니다. **이승에 짱박아 둔 돈** 좀 있으십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 드릴까요?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호텔 델루나" (2019, режисери 오충환, 김정현, автори сценарію 홍정은, 홍미란),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Netflix.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4.

만월: 왜 이제 와? 구두 어제 산 거 안 신었네.

구찬성: 제가 근무하는 호텔에선 어제 산 그런 요란한 구두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긴 잠깐 들렀다가 출근해야 돼서요.

만월: 선글라스 낀 애가 편하게 해 줬나 봐.

구찬성: 그 귀신 당신이 나한테 붙인 겁니까? 계속 원한도 없는 날 따라다니라고 했습니까?

만월: 어? 한번 기가 통한 인간 곁을 계속 맴도는 거야. 한번 연결되면 자동으로 계속 연결되는 거야.

구찬성: 제가 무슨 와이파이 공유기입니까?

만월: 찰진 비유야. 찰떡같이 알아듣고 아주 갈수록 마음에 쏙 드네.

구찬성: 당신 마음에 들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한 거 보는 것도 싫습니다.

만월: 봐야지. 그리고 익숙해져야 돼. 그 귀신들이 앞으로 네가 이 호텔에서 모실 손님들이니까.

구찬성: 무슨 신흥 종교입니까? 여기 델루나라는 곳 귀신 모시는 무당 집입니까?

만월: 호텔이야. 중구청에 정식 등록도 돼 있어.

구찬성: 반새 호텔 사이트 다 뒤져 봤습니다. 아무리 검색해 봐도 델루나라는 호텔이 영업하는 흔적은 없던데요.

만월: 당연히 호텔 사이트 같은 데선 못 찾지. 인간을 상대로 영업하는 호텔이 아니라고 했잖아.

구찬성: 아, 귀신을 달랜다고 했죠. 그럼 이 호텔에서 하는 서비스는 곳입니까?

만월: 곳 이니야. 힐링이야.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호텔 델루나" (2019, режисери 오충환, 김정현, автори сценарію 홍정은, 홍미란),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Netflix.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5.

손오공: 똥파리인 줄 알고 들어잡았더니 사람이네. 야, 꼬마, 너 뭐냐?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남의 집에 빈 손으로 왔어? 선물 같은 거 없어? 예를 들면 술이라든가. 어? 술 마시고 싶네. 이렇게 맛있는 안주도 있는데. 인간 아이한테 내가 보이고 들릴 리가 없지. 어이, 우산

떨어졌다. 내 말 들려? 너 들리는구나. 너 여기 왜 왔어? 니 주머니 속에 부채를 왜 가져 가?

진선미: 부탁 받았어요. 요정 아저씨가 부채가 도우라고 했어요.

손오공: 요정? 키 크고 이렇게 수염 난 놈은 요정이래?

진선미: 그 아저씨랑 알아요?

손오공: 잘 알지. 근데 어찌다가 인간 꼬마가 그 아저씨의 부하가 됐다.

진선미: 부하가 아니에요. 우린 거래한 거예요.

손오공: 거래? 계약은 했고?

진선미: 계약?

손오공: 안 했어? 너 이제 큰일 났다.

진선미: 왜요?

손오공: 너 지금 출구 나가면 무슨 일 당할지 몰라. 엄청 무시무시한 놈들 달려들 수 있어.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오빠랑 같이 나가자. 오빠가 지켜줄게. 와출해야 되니까 오빠가 멋진 옷으로 갈아입고 올게. 아, 너는 나가기 전에 이 촛불을 불이나 좀 꺼라. 얼른 꺼.

진선미: 요정님이 꺼 봐요.

손오공: 그냥 네가 꺼.

진선미: 못 끄죠. 나만 할 수 있어. 그래서 나한테 부탁한거죠.

손오공: 그래, 인간 꼬마. 부탁한다. 저 촛불을 꺼야 난 나갈 수 있거든.

진선미: 위험한 것 아니에요?

손오공: No, no, no, no. 저 다섯 개의 촛불은 오행산이야. 그 기운들이 나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주 그냥 여기까지 붙들리고 있어. 네가 촛불을 꺼서 날 풀어주면 내가 나가서 널 지켜줄게. Understand?

진선미: 계약은요?

손오공: 아이, 돌돌하네. 좋아. 계약 조건을 얘기해 봐.

진선미: 나를 지켜주세요. 나는 되게 무서운 괴물들이 보여요.

손오공: 악귀를 보는구만. 사는 게 힘들지. 이름이 뭐야?

진선미: 진선미.

손오공: ‘진선미’. 이 분은 제천대성 손오공 님이시다. 네가 힘들고 무섭고 위험할 때 내 이름을 부르면 언제든지 내가 나타나서 널 지켜줄게.

진선미: 그럼 우리 계약한 거예요.
손오공: 자, 이제 저 지긋지긋한 오행산을 치워줘.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화유기" (2017–2018, режисери 박홍균, 김정현, автори сценарію 홍정은, 홍미란),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Netflix.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6.

좀비: 눈 떠보니 산 속이었습니다. 어떤 아저씨들이 절 묻으려고 했습니다.

마왕: 살해 후 암매장인가?

좀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팔계: 뇌가 썩었나 보네.

마왕: 근데 어떻게 삼장을 찾아왔어?

좀비: 저는 그냥 어딘가로 가야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언니한테로 갔습니다.

팔계: 오공이 형님이 삼장피로 깨어난 시체 같았어. 그러니까 일단 잘 두라고 하더라고.

마왕: 그렇다고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를 내 집에 가져오면 어떡해? 어쩐지 아침부터 집에서 꼬리꼬릿한 냄새가 난다했어.

팔계: 삼장 집에 들 순 없잖아. 그래도 기구슬 몇 개 먹었더니 충기가 돌아서 눈도 돌아오고 말도 하게 된거야.

마왕: 기구슬? 너 설마 애한테 내 기구슬 먹었냐?

팔계: 오공이 형님이 먹이라고 했는데.

마왕: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딴 좀비를 먹여? 아, 이 망할 놈의 원숭이 녀석, 일부러 나 열받으라고 이러는 거야. 드럽고 냄새나고 내가 쥔 싫어하는 걸 내 집에 들여놨어.

팔계: 여기 이제 마왕 집이 아니고 자기 집이라던데, 오공이 형님이. 아니, 뭐, 애를 돌보든 버리든 둘이 알아서 해결봐. 나 스케줄 많으니까 이제 가볼게. 오빠 간다.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화유기" (2017–2018, режисери 박홍균, 김정현, автори сценарію 홍정은, 홍미란),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Netflix.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7.

오정: 나를 부르신 것이 당신입니까?
옥룡: 나는 동해용왕의 둘째 아들, 옥룡이다.
오정: 어째서 이런 곳에 계십니까?
옥룡: 우선 나를 이곳에서 꺼내거라.
오정: 모시겠습니다, 왕자님.

마왕: 여기 든 문어가 동해용왕의 그 개차반 둘째 아들이라고?
오정: 예, 벌을 받고 요력을 잃은 상태로 그물에 걸렸다고 합니다. 수산시장에서 횡감으로 팔려나기실뻔 한걸. 급한대로 이곳에 담아 모셨습니다. 지금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수보리 조사: 옥룡이가 인어한테 사람되는 약을 팔다가 쫓겨났다더니 진짜 이꼴이 돼서 나타났네.
오정: 망향께서 용왕과 친분이 있으시니까 거두어주시죠. 전 오늘 급한 회의가 있어서 이만.
마왕: 저 원숭이랑 좀비를 거둔 것만도 벅합니다. 이 문어까진 무리에요. 수보리 조사께서 알아서 하시죠. 그럼 전 골프 약속이 있어서, 이만.
수보리 조사: 잠깐만. 이거 자네가 거둬야지. 이걸 누가 거둬. 마왕, 기다려!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화유기" (2017–2018, режисери 박홍균, 김정현, автори сценарію 홍정은, 홍미란),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Netflix.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8.

손오공: 용왕의 아들이 인어를 구하러 온게 아니라 배신한 인간을 죽이러 온거라고?
오정: 인어를 찾으면 이 칼을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사랑을 얻지 못한 인어는 무사히 바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칼을 인간의 심장에 박아야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손오공: 신선신선 노래를 부르는 마왕이 알면 인어 찾는 거 절대 안 도와주겠네.
오정: 예, 그래서 용왕의 아들이 제게 미리 부탁을 한겁니다. 인어를 찾아서 이 칼을 전해주면 신기루를 준답니다.

손오공: 아, 신기루? 근데 난 그걸로 딱히 해보고 싶은 거 없는데.
 오정: 술은 어떠십니까? 진짜처럼 드실 수 있을텐데요.
 손오공: 오정아, 당장 인어를 낚아야겠다. 어디 가서 잡으면 돼?
 오정: 인어가 놀 만한 물은 제가 알아뒀습니다. 미끼만 잘 살피시면 쉽게 낚으실 겁니다.
 손오공: 미끼?
 오정: 네. 요괴를 낚는 데는 삼장만한 떡밥이 없지요.
 손오공: 야, 이 똑똑한 것 그냥... 우리 복덩이, 오정이. 아유, 귀여워 죽겠어. 그래. 떡밥은 삼장이지.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화유기" (2017–2018, режисери 박홍균, 김정현, автори сценарію 홍정은, 홍미란),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Netflix.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9.

방물장수의 손자: 그 가게 독취한테 당했어요.
 진선미: 독취?
 방물장수의 손자: 아주 더러운 입을 가진 악귀야. 그것들한테 걸리면 저주대로 당하든지 죽든지. 아주 더러운 걸 당하게 돼요.
 진선미: 흥사항아리 같은거야?
 방물장수의 손자: 그거랑은 다르죠.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거랑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일을 더럽게 떠들어서 일어나게 만드는 건 다른거지.
 진선미: 그러면 니네 가게도 독취한테 걸려서 망한 거야?
 방물장수의 손자: 우리 할머니 방물장수거든요. 이건 그냥 잡화점 물건 몇 개 가져다가 용돈벌이나 하는 거예요.
 진선미: 아, 지금 더 뽕땅치는 거구나.
 방물장수의 손자: 나 봤다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요. 갖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 줄게요.
 진선미: 이 빨간 방울은 왜 소리가 안 나?
 방물장수의 손자: 그건 애령이라는 건데. 일생에 하나 뿐인 천생 연분. 그거 만나면 알려주는 방울이에요.
 진선미: 정말?

날이 다가오고 있나니. 8. 오랜만에 물귀신 손님이 오셨어요. 9. 한 번만 더 이따위로 하면 단체로 확 묶어서 저승 가는 버스 태워 보내 버릴 거야. 10. 저게 뭐니까? – 아까 그 원귀가 타고 남은 쓰레기다. 11. 마고신은 꽃을 거둬서 저승 가는 사람들에게 나눠 준다네. 마고 할멈 배웅을 받고 떠난 영혼은 좋은 곳에 간다지. 12. 넌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내 이름 석 자 "땡땡땡"만 대면 옥황상제도 벌벌 떠는 그 분이야, 내가. 13. 삼장은 무엇입니까? – 삼장은 천계의 소명을 짊어진 고귀한 피를 지닌 인간이야. 인간계의 큰 환란이 오기 전에 현세에 나타나고. 14. 소금 왜? 재수 없는 일 있었어? – **액막이**로 소금을 뿌리는 게 좋다고 해서. 15.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인간이 되고 싶어서 수백 년 동안을 몸부림쳐 온 구미호가 바로 저 그림 안에 갇혀져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옆이 **삼신할머니**인데 저 양반 참 덕이 많은 분이예요.

Вправа 3. Перекладіть корей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міфологеми:

1. Ви чули, що він сказав? Та він же **чаклун**! 2. Нікуди ти звідси не підеш. Знаєш, що це? Це **вовча сіль**. Знаєш, що з тобою буде, як заступиш за цю **межу**? 3. **Характерник** тебе допитає. – Сам **характерник**? А можна, я подивлюся? 4. Можеш подивитися? Це часом не турецька? Цей бовдур вирішив, що тут якісь **магічні руни** і приніс мені. 5. Це Петро. А чого це він **лісовою мавкою** вдягнувся? 6. Це місце якесь **прокляте**. Може його **посвятити**? – Ти, що, я ж **привид**! Під час візитів **батьюшки** у мене таке відчуття, наче мені мозок перфоратором довбуть. 7. Ти мене не обдуриш, клятий **відьмак**. Не могла Оксана знати про таємний хід. 8. Кошовий помер від розриву серця. Але я б того не знав, якби мені не допомогла **ворожка**. 9. Так, це я, Килина. Донька і єдина законна спадкоємиця господаря лісопилльні. – Того, якого **нечисть лісова** спопелила під час пожежі? 10. Ну добре. Я тут уже все подивилася разів так двадцяти три. Думаю достатньо. Як-то кажуть, у **потойбічному світі** добре, але вдома ще краще. 11. Такий здоровий, на кулі ворожі кидаєшся, а кажанів засушених боїшся. – Та щоб я цих мерзотних летючих пацюків боявся, з волохатим тілом і мордою,

як у самого **люцифера**. 12. Ми хлопці не лякливі, а Олесь боїться **домовика** з млина. 13. Христина ждала батька і у книжка з батькової бібліотеки читала про **упирів, вурдалаків та повітруль**. 14. А я зміг би вбити **дракона**? – Так, **драконяча шкура** справляє враження, але хіба її можна порівняти з оцим. **У драконів шкура** не буває така м'яка. – Так, авжеж корови значно цікавіші за **драконів**. 15. Ось запрошення на щорічний карнавал "**Баба Яга** збирає всю нечисть". – Це напевне реальний жестяк. Я не піду. – Що значить "не піду"? Ти ж сама мені ніла, що я тебе нікуди не виводжу в люди. От, реальний момент. – **Чорт, Змій Горинич, Соловей Розбійник, Водяний, Кікімора** – це "між люди"?

Вправа 4. Перекладіть україн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сталі вирази:

1.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2. 왜 말이 계속 제자리지?
3. 난 씨알도 안 먹힐 소리를 그렇게 했으니.
4. 그 몰날리 불날리 겪고도 지금 감자탕이 넘어간다고?
5. 너 차일피일 미룰 수작이지.
6.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7. 똥줄 좀 타 봐.
8.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전산 오류로 송금된 금액은 전액 다 다시 기가영 님 계좌로 돌려드렸습니다.
9. 보통 이런 정령 설화를 보면 인과응보나 권선징악 같은 메시지가 따라오잖아.
10. 앞으로도 우리 가영이랑 오순도순 싸우지 말고 떠나지 말고, 기쁠 때나 슬플때나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요.
11. 인간이 들어왔다고요? – 여기가 어떤 던지 감도 못 잡고 구경 다니는 것 같네.
12. 사장이 알면 우리를 얼마나 개잡도리하겠어. 맨날 하는 타령 있잖아.
13. 나 이미 갈 데도 없어요. 당신 때문에 호텔을 그렇게 그만뒀서 평판이 개떡이라 못 들어가요.
14. 살아서는 잉꼬부부였다더니.
15. 니가 거기서 맞장구 쳐야지. 센스가 없어.
16. 사람들은 이 칼을 장군의 검으로 잘 못 알고 있군요. 존경하는 장군의 검이 아니라 이름없는 여인의 칼이란 걸 알게 되면 저렇게 애지중지 모시지 않겠죠.
17. 산체스는 지금 너무 놀라서 거의 얼이 빠졌다고요.
18. 이 집안 여자들은 정말 다 무지막지 기절초풍이야.
19.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한다는 거짓말 같은 거 안 시켜.
20. 이게 천생연분을 알려주는 애령이야?

Вправа 5. Перекладіть корей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сталі вирази:

1. Мамо, що це ви тут накурили, хоч сокиру вішай.– То так треба, синку, нечисту силу повикурювати.
2. Звариш мені якийсь зіллячко на скору руку?
3. Я знав, що у смертних руки загребуші, очі завидюші.
4. Гуку, друже, ти геній. – Ну нарешті! Тільки шкода, що я отримую цей титул за хвилину від гробової дошки.
5. Багато води утекло з того проклятого дня.
6. Дамо перцю зграї лісових байстрюків. Заллемо сала за шкуру.
7. Я знищу і кажана, і Данилове чародійство одним махом.
8. Вітер пробирає аж до кісток.
9. Другої спроби у нас не буде. Або пан, або пропав.
10. Син лицара стає лицарем, а ти з сім'ї акторів. Це не твій вибір. Так тобі на роду написано.
11. Ти мене доводиш до сказу цими заморськими словами.
12. Для таких лицарів, як я, то лише раз плюнути.
13. Та у нього не всі вдома.
14. У тебе точно вавка в голові, хлопче, якщо ти отак проти князя попер.
15. Як кіт наплакав, але щоб знищити цих гидких люденят, цього має вистачити.
16. Все, я більше не можу. Бобік здох.
17. Битися за даму серця – це у нас в крові.

Вправа 6. Перекладіть україн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метафори:

1. 염치와 체면으로 얼룩진 내 인생에 핑크가 났다.
2. 평탄한 생활은 다 물 건너갔는데 뭐가 신납니까?
3. 키스는 타락의 첫걸음이죠.
4. 얼굴 좀 생기고 키 좀 크고 목소리 좀 동굴이고. 그거 말고 볼 게 뭐가 있니?
5. 난 세상 사람들의 신발 속에 든 돌멩이야.
6. 아까 나한테 뭐 한 거지? 대체 날 데려다가 뭐 하려는 거지? 노리개가 되는 건가?
7. 저 여잔 그냥 돈 귀신이야.
8. 왜 시키지도 않은 손님을 끌고 와? 네가 뼈끼야?
9. 근데 그 귀신의 기억이라는 게 말이야. 뒤죽박죽이야.
10. 위에서 대책없이 삼장을 내리지는 않지. 다 큰 그림이 정해져 있어.
11. 사랑은 약도 되고 독도 되고 그런 거죠.
12. 남순이는 내 딸이기도 했지만 내 뮤즈이기도 했지.
13. 아줌마, 기대해. 나 복수의 화신이야.
14. 아휴, 요 때릴 데도 없고 얼굴이 뭐 요한해. 너 얼굴이 CD 니?
15. 난 내 혼신을 다해서 널 괴롭힐 거야.
16. 가끔은 이런 냉족발 같은 냉정함도 필요한거야.
17. 인어가 노는 물이 이 학교라며.

17. 왜 웃어? 무섭게. – 가서 물어보세요. 연애는 저팔계님 전문 분야잖아요. – 이분위기에 옆에 갔다가 짜부 돼 가지고 **편육 될 일 있어?** 불똥 튀면 최소 **탕수육이야.** 18. 야, 문어, 넌 그 몸에 들어가서도 작업할 생각이 나냐? – 왜 이래? 이걸 본능이야. **나 문어발이야.** – 이 문어발 삼장한테 잘못 뺏었다가 제천대성 손에 **최소 타코야끼야.**

Вправа 7. Перекладіть корей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метафори:

1. А це моя **брехлива юшка.** Кто бреше, в цьому казані і залишається. 2. Таке враження, що пані Стефа **повсталала з небуття.** 3. Мій план **по швах тріщить,** тому що ці **пітекантропи** бояться лісу, немов вогню. 4. Зроби мені ласку, **здихайся** цих **плебейських** лахів. 5. Це моє **прокляття,** що я не спроможний сказати тобі «ні» хоч на щось. 6. Музыка, це щось **магічне.** Ти певно **Хранитель музики** свого світу. 7. Ти стала **мостом через прірву,** що пролягала між людьми і лісовими мешканцями. 8. У цього села **нездорова аура.** 9. **Ми ще у грі.** Не ний, маленький мій плаксію. 10. **Ти розбудив в мені звіра.** 11. О, це твоє **гніздо?** – Я б краще сказав, моє **лігво.** 12. Усі закохані **сліпі.** 13. Дай пити, Парасочко, бо в животі **пекельний вогонь.** – А ти думав, що надурняк і **часник солодкий?** 14. Покажемо цим упирам, хто тут **хазяїн.** 15. Я б хотів почути ваші вибачення. – У мене що, **у вусі якась муха продзюдзюкала?** Ратміл, ти чув, наче тут хтось говорив? 16. Лицар Руслан до ваших послуг. Кому тут **начистити забрало?** 17. Звиняй, але я змушений **скасувати гастролі** до ваших тюремних щурів. 18. Це якийсь **сучасний живопис,** а не мапа. Нічого не зрозуміло.

Вправа 8. Перекладіть україн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алюзії:

1. 자, 다들 저기 모래 회오리 보이시죠? 아랍에서 저 현상을 "**왈츠를 추는 지니**"라고 부릅니다. 2. **왼쪽 뺨** 대령이요. 원수를 사랑하라잖아. 3. 주인님! 드디어 그 소녀가 환생을 했는데요. 근데 전쟁이 나서요. 무슨 장군을 도와 싸우다 의롭게 주었답니다. 아, **이순신**이요. 4. 다시 그 소녀를 찾았는데요. 이번에도 죽었더라고요. 이번에도 누구를 돕다 그랬다는데 누구더라? 아,

안중근이요. 5. 백두산을 보니까 회가 먹고 싶잖아. – 산인데 왜 회입니까? – "동해물과 백두산" 그건 세트야. 백두산을 보면 해물이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6. 질문을 던지고 답을 유도하여 진리를 찾아가는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죠. 하버드에서 자주 듣던 강의 방식입니다. 7. 저 사람은 돈에 대한 욕이 엄청난 사람이었어. 손만 대면 터지는 마이더스의 손. 8. 마왕, 젓소였네. ("오빠 강남 스타일" 노래를 부르며) 마왕 젓소 스타일. 마왕 젓소 스타일. 9. 부화장님이 여기서 왜 "고독한 미식가" 코스프레를 하세요?

Вправа 9. Перекладіть полілоги із серіалів "Готель «Галіція»", "Козаки. Абсолютно брехлива історія", фільму "Казка про старого мельника", мультфільмів "Мавка. Лісова пісня", "Микита Кожеум'яка" корейською мовою. Зверніть увагу на способи перекладу виділених фрагментів тексту:

1.

Толік: Та я отвiчаю, ту статуетку якась **невiдома сила з рук витягнула.**

Стефа: А може ти щось перед тим хряпнув в себе на барі?

Толік: Я на роботі не п'ю.

Микола: Та щас.

Ян Францович: Годі балакати, молодь. Ще раз хочу нагадати, непрофесійне **загравання з нечистою силою** небезпечне. **Ми повинні вийти з ними на зв'язок.** Налагодити співпрацю.

Стефа: Ми згодні. Що треба робити?

Ян Францович: Кожен з нас має щось принести. Ви, Стефо, принесіть каструлю, в якій готує їжу жіночка за п'ятдесят.

Стефа: Не знаю, де я її маю взяти. Добре. Позичу у подруги.

Ян Францович: Микола, **принесіть кров.**

Микола: **Незайманой дівчини?**

Ян Францович: **Незайманой свині.**

Микола: Поняв.

Ян Францович: Толік, з вас маленька портативна плита.

Толік: Зробимо.

Ян Францович: Зустрічаємось у номері 13 опівночі.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Готель «Галіція»" (2017–2018, режисер А. Бурлака, автори сценарію Т. Стадницький, В. Кремінь, О. Семенюк, С. Сидорчук),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2.

- Ян Францович: Я зараз буду малювати **пентаграму**. А ви беріть свічки, розпалюйте їх і ставте по колу.
- Привид: О, так у нас тут відкрився **клуб юних екстрасенсів**. Чудово, чудово.
- Ян Францович: Миколо, то точно **кров незайманої свині?**
- Микола: Гадам буду.
- Ян Францович: *(Читає заклинання)* Отже, як розчин, який зараз роблю я, не можна знову розділити на складові, так не можна **потойбічний світ** відділити від нашого.
- Привид: Ну, припустимо. Далі що?
- Ян Францович: *(Помішує каструлю ножем)* Сьогодні **космічна енергія чотирьох, об'єднується в одну** для того, щоб...
- Стефа: Яне Францовичу! Я вибачаюсь, але ця каструля з антипригарним покриттям. Її потрібно лише перемішувати дерев'яною ложкою.
- Привид: О, **битва екстрасенсів переростає у битву домогосподарок**.
- Ян Францович: Вельми прошу вас не триндіти.
(Продовжує заклинання) Ми прийшли з миром. Тому я звертаюся до **духів цього місця**. Прийдіть до нас!
- Привид: Ага, всі побігли. Так, мені це набридло. **Оголошую ваш гурток екстрасенсів закритим**. *(Задуває свічки)*.
- Толік: Дивіться.
- Ян Францович: Вони вже тут.
- Стефа: Та то свічки вітром здуло.
- Привид: Що?
- Ян Францович: **Ви готові поспілкуватися з духами?**
- Всі разом: А-а-а-а-а-а!!!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Готель «Галіція»" (2017–2018, режисер А. Бурлака, автори сценарію Т. Стадницький, В. Кремінь, О. Семенюк, С. Сидорчук),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3.

Роза: **Абрус-швабрус-кадабрус.**

Привид: Розочка, я тебе прошу. Займись, будь ласка, готелем. Зроби щось жіноче. Перефарбуй, скажімо, фасад у рожевий колір чи ще щось таке, але покинь оцю маячню!

Роза: Якщо ти мені допомагатимеш, то разом у нас буде **наймагічніший союз: привид та відьма.**

Привид: Ідея взагалі-то так собі. Тому що **відьом не існує. Це я тобі як фахівець з потусторонніх справ кажу.** Через 400 років будуть, але тільки в політиці і в ЖЕКу. А так ні.

Роза: Якщо не допомагаєш, то хоч не заважай. *(Читає заклинання)* **Через три, вісімнадцять, зелена жаба, сік чорнобривців...**
Ні, щось не те.
(Читає закляття) **Сорока в полі, лелека в морі, сонце в дубі...**

Привид: **Готель в дупі!** Займись нарешті справами!

Роза: **Згинь, нечистий.**

Привид: От дурепа!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Готель «Галіція»" (2017–2018, режисер А. Бурлака, автори сценарію Т. Стадницький, В. Кремін, О. Семенюк, С. Сидорчук),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4.

Привид: *(Говорить до мухи)* Мала, ти не задовбалась тут літати? Сядь десь, відпочинь. Та не на мене.

Голос с каміну: Є тут хто?

Привид: Нікого нема.

Голос с каміну: **Брехня – це гріх. За це можна потрапити в пекло.**

Привид: Так, стоп. **Якщо розібратися, то я – істота не матеріальна, так що по суті в кімнаті нікого немає.**

Голос с каміну: Маєш рацію.

Привид: **А ти чого активізувався? Я ж ніби і мухи не образив.**

Голос с каміну: Та ось вирішив дізнатися, може щось сталося. Бо терези вже добу стоять. Заіржавіють, а мені потім перед начальством **відповідати.**

Привид: Слухай, друже. По-перше, **не я придумав ці тупі ігри в пекло і рай.** А по-друге, я зараз почуваю себе, як **Надя Савченко.**

Хочу зробити щось добре, а виходить якась **фігня**. Коротше, я **задовбався**.

Голос с каміну: Знаєш що, я теж.

Привид: **О, а най його качка копне. Несподіваний поворот. Пропоную нам як двом нематеріальним істотам випити чогось матеріального з 500-річною витримкою. Так, але алкоголь напевне змусить терези працювати.**

Голос с каміну: Ні-ні-ні. Будемо вважати, що це **кагор**.

Привид: Добре. Ну що, будьмо.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Готель «Галіція»" (2017–2018, режисер А. Бурлака, автори сценарію Т. Стадницький, В. Кремінь, О. Семенюк, С. Сидорчук), доступ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5.

Мар'яна: *(Перекривлює слова Назара)* "А де той твій **любчик**? А? Ти тепер з кожним стрічним цілуєшся?"

Богдан: Гррр.

Мар'яна: *(Злякавшись)* А-а-а! Богдане, **Господь тебе помилував**, що я зараз не дрова рубаю. Що ти тут робиш?

Богдан: Ой, біда. Після того, як мене **чаклун прокляв**, зовсім нічого не пам'ятаю. Пам'ятаю тільки, на місяць подивився і глядь, прокидаюсь тут. Сорочка роздерта. Слова мовити не можу, тільки гавкаю. **Певно усю ніч на місяць вив**. Видно, чари.

Мар'яна: Богдане, ну які чари? Який чаклун?

Богдан: Як який? Петро. Що ж мені тепер робити? **Як почувеш колись, що в лісі вовк пчихає, знай, то буду я.**

Мар'яна: Який ти кумедний. Ходімо, я тобі **юшки** наллю.

Богдан: **Ні, мені до коваля треба, щоб на повні нікого не порішити. Мені до коваля.**

Мар'яна: Ой, ось чоловіки. Понавигадують собі казочок.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Козаки. Абсолютно брехлива історія" (2020, режисер О. Березань, автори сценарію О. Зборовський, О. Іванюк, К. Хінкулова, М. Симонік, П. Остріков),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6.

Іван: *(Про характерника)* А ви не думали якось відмити його?

- Козак 1: Цсс. Тихо. **Він думки вміє читати.**
- Козак 2: **І на тварин перекидатись. І навіть літати.**
- Іван: Літати?
- Козак 1: Так. Коли він коли тікав з полону **Мурада III**, він мусив море перелетіти, щоб на **Січ** повернутися.
- Козак 2: Що ти за дурницю говориш, море перелетіти. **Насправді він обернувся в щура, переліз через ґрати, добіг до моря, там обернувся в судака і доплив.**
- Іван: **Не морочте мені голову. Мурад III помер сто років тому. Хочете сказати, що вашому характернику років сто п'ятдесят?**
- Козак 1: Та ні. Йому десь триста.
- Іван: І ви в усе це вірите?
- Козак 1: Так.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Козаки. Абсолютно брехлива історія" (2020, режисер О. Березань, автори сценарію О. Зборовський, О. Іванюк, К. Хінкулова, М. Симонік, П. Остріков),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7.

- Характерник: Я там коней неподалік залишив. Відходити будемо тією стежкою. То що, який у нас план?
- Іван: Усе просто. **Ти обернешся на шуліку і долетиш до скарбниці**, як сто років тому, коли ти від османців тікав.
- Характерник: **Я тоді на акулу обернувся, а тут моря немає.** До того ж, я певен, що Федір тримає кульчик при собі.
- Іван: О, то це ще краще. **Голову даю на відсіч**, що ніхто з них в житті акулу не бачив. Ми занесемо тебе до замку, і поки всі будуть тебе роздивлятися, я непомітно потягну кульчик. **Починай своє перетворення.** А я піду діжку знайду, щоб ти не помер без води.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Козаки. Абсолютно брехлива історія" (2020, режисер О. Березань, автори сценарію О. Зборовський, О. Іванюк, К. Хінкулова, М. Симонік, П. Остріков),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8.

- Оксана: Дякую, доню, але тут треба діяти.

Мар'яна: Пані Оксано, з усією повагою, певна, що краще Івана у цій ситуації нам ніхто не допоможе. До того ж, жінкам не можна на Січ. Ну хіба що Оленка там була, але **сам біс знає**, як їй це вдалося. Я вас туди не відпущу.

Оксана: Тю. Ти думаєш, що я зовсім дурна? **Мені треба ще дещо зібрати для ритуалу. Духів треба просити про допомогу.**

Мар'яна: Скажіть, що. Я принесу.

Оксана: Ну добре. Слухай уважно. Треба дістати **печінку чорного півня, ліве око гусака і козлячі мг (яєчка). Усі два.** Добре. Я розумію. Я все сама зроблю. Тільки знаєш, я тебе буду просити про що?

Мар'яна: Все, що завгодно, але не...

Оксана: Скажи всім, **щоб до ранку мене не турбували. Обряд дуже складний і дуже брудний.** Не хочу, щоб мені заважали.

Мар'яна: Добре. Я тоді до вас прийду зранку.

Оксана: Давай біжи.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Козаки. Абсолютно брехлива історія" (2020, режисер О. Березань, автори сценарію О. Зборовський, О. Іванюк, К. Хінкулова, М. Симонік, П. Остріков),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9.

Хранитель лісу: Вітаю вас із новою весною, жителі **Прадавнього лісу**. Чи всі зібралися? **Мавко**, скажи, чи всіх ти розбудила?

Русалка: Та вона мабуть досі зі своїм Квусом первоцвіт збирає.

Мавка: Пробач. Я вже тут, хранителю. Я рятувала рисеня, що втрапило у людський капкан.

Нечисть 1: Що ж це діється? Старий капкан!

Нечисть 2: Хіба їх усі не познищували після битви?

Хранитель лісу: Ганьба! **Русалки, охорона лісу – ваш обов'язок.** Хто з вас прогавив таке?

Русалка: Чудово, **Мавко**. Тепер ми нероби в очах **Хранителя**.

Хранитель лісу: Що ж. Слушайте мене, браття й сестри. **Первісні духи природи провістили Лісу і нам непрості часи.** Ось чому сьогодні опівночі у серці Лісу **Первісні оберуть нового Хранителя**.

Мавка: Але що ж буде з тобою, **Лісовику?**

Хранитель лісу: **Сили мої тануть. Я слабшаю, Мавко. Тягар обов'язків Хранителя уже заважкий для моїх пліч.**

Нечисть 1: Лісовик нас більше не оборонятиме?

Нечисть 2: Нападуть **смертні**. Що ж тоді буде?

Нечисть 3: Хто ще захистить нас?

Гук: **Спокундра. Гук – доктор ульотних наук згоден стати Хранителем.**

Русалка: Хранитель – **язиката Хвеська**? Ага. Тільки про це і мріяли.

Мавка: Але ж дійсно будь-кого можуть обрати Хранителем.

Русалка: На себе натякаєш, чи що? Ні, ні, ні, Мавко. Ти може і справді в Лісі **душа всього живого**, втім для такої роботи ти надто мила.

Мавка: Ні, я не така.

Русалка: Ох, якось мені недобре.

Мавка: Що сталося, **Водянице**?

Русалка: Ну от. Занадто наївна і мила.

Хранитель лісу: Годі вже. **Усе вирішать Первісні духи сьогодні опівночі.**

Фрагмент із мультиплікаційного фільму "Мавка. Лісова пісня" (2023, режисери О. Маломуж, О. Рубан, автор сценарію Я. Войцешек),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Sweet TV.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10.

Мельник: Був собі на світі чудовий край. **Земля, що текла молоком і медом.** Але один закуток у тім краю насторожував. Щось у ньому було не те. **Хати стояли порожні. Худоба не ревла. Півні не співали. Навіть бджоли покинули вулики. Нетоптана трава розрослася по дворах.** Люди, що там жили, повтікали зі страху перед невідомим. А хто лишився, пропадав без вісти або вмирав. Хоронили померлих ті, хто не мав сили тікати. Але і на них **прийшла лиха година.**

Христина: Бабуню, з батьком сталася якась біда.

Бабуся: Треба послати когось до **князя** Костянтина, щоб повідомити, що **злі сили** уже близько. Тільки хто ж туди поїде?

Христина: Я сама поїду до князя. Бабуню, не бійтесь. Це ж недалеко.

Бабуся: Ну добре, дитя.

Служниця: Панна, пам'ятайте, що казали люди. **Поки не пройдете Чорний ліс, ні з ким не можна заводити розмову. Нікому нічого не давайте, навіть шматка хліба убогому. Ні у кого нічого не беріть. Ой, лихий час, Христиночко, лихий час. Нічому не можна довіряти, навіть тому, що бачиш на власні очі.**

Бабуся: Все-все, годі вже. Пиши листа. Ось тобі **образок Божої Матері милосердної, що оберігає від усякої нечисті. Їдь.**

Служниця: **Спаси Господи.**

Христина: Дякую, бабуся. Я повернуся з допомогою. І ми знайдемо батька.

Бабуся: **Боже тобі поможи.**

Христина: Ви тільки не журіться.

Фрагмент із фільму "Казка про старого мельника" (2020, режисер О. Ітигілов, автор сценарію С. Гаврилюк),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11.

Лісова царівна: Хлопче, я почула чарівні звуки твоєї сопілки і приїхала послухати, як ти граєш.

Микола: Я грати не вчився, то може бути трохи незграбно. Вибачте.
(Знімає шапку)

Лісова царівна: Ти добре вихований, хлопче. Хто ти?

Микола: Я звичайний **бурсак**. Йду найматися до пана, щоб навчати його дочку.

Лісова царівна: Нам би ще послухати.

(Микола грає на сопілці)

Я хочу нагородити тебе за твою гру. Проси, чого душа бажає.

Микола: Дозвольте мені вас поцілувати.

Лісова царівна: **А хіба ти не знаєш, що буде, якщо мене поцілуєш? У ту ж мить ти опинишся у моїй владі і тобі доведеться служити мені цілих сім довгих років.**

Микола: Що таке сім років? **Якщо це плата за цілунок, то нехай. Я розплачуся.** *(Цілує руку)*

Лісова царівна: **Ти скріпив угоду поцілунком. Скасувати її не можна.**
Ха-ха-ха.

Мельник: **Поневоливши Миколу, Лісова царівна повезла його з собою у свої володіння.**

*Фрагмент із фільму "Казка про старого мельника" (2020, режисер О. Ітигілов, автор сценарію С. Гаврилюк),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12.

(Микола свистить у пищика і з'являється Буркотун)

Буркотун: Миколо, ти кликав мене?

Микола: Не бійтеся, це **Буркотун. Він – добра лісова істота.**

Буркотун: Дуже приємно.

Микола: Нам потрібна твоя допомога.

Буркотун: Гаразд. Я вам допоможу. Але нам треба приготуватися. **Чого упиряки не взяли срібло? Чого не підійшли до воза з часником? Темні часи – темні люди. Геть забобонів не знаєте. Часнику і срібла упирі бояться.** От і все.

Параска: О, а що я казала. Не тільки **свячена вода.**

Микола: То що ж нам жбурляти в них **срібними талярами?**

Христина: **Треба наробити стріл з осики, нарізати наконечники зі срібла і побудувати укріплення.**

Буркотун: Миколо, свисни **в чарівного пищика.**

(Свистить і з'являються духи) Це мій друзяка **Водяний.**
А це могутній **Дерев'яний і Земляний.**

Микола: Гарна компанія.

Параска: Ой, чого стоїмо. Давай, Іване, бігом до роботи. Усі до роботи.

*Фрагмент із фільму "Казка про старого мельника" (2020, режисер О. Ітигілов, автор сценарію С. Гаврилюк),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13.

Чарівник: І тому не можна поєднувати **закляття вогню і заклияття пороху.** Це я засвоїв **на гіркому досвіді.** До речі, про досвід. Ти виконав домашнє завдання?

Кажан: А як же, вчителю. Вчора я вивчив **закляття левітації.**

- Чарівник: Вивчив? Справді? Добре. **Отже ти легко зможеж підняти козу у повітря.**
- Кажан: Нема проблем. **Раз, два, три, чотири. Підлітаюс.**
- Чарівник: Ти ж розумієш, що я сказав підняти у повітря, а не **перетворити на чудернацьку потвору.**
- Кажан: Ну звісно, не хвилюйтесь. Все йде за планом. Так, так, так. **Вона злетить. Тільки начаклюю їй крила.**
- Чарівник: Ой, а може не треба? Вона і так тепер дає **узвар замість молока** після твого експерименту.
- Кажан: Нарікаєте. А от настане **Різдво...**
- Чарівник: Я вже шкодую, що навчив тебе розмовляти. Зараз я міг би вести глибокодумні бесіди зі своїм улюбленим кріслом, але ні, я витратив складне **мовне закляття** марно.
(*Летюча миша показує чаклунові в спину язик*).
Я бачив. Адже я **бачу в чотирьох вимірах, чую в шести, а смак відчуваю в дванадцяти.**
- Кажан: Але річ у тім, що...
- Чарівник: Ти **нікчема і невіглас**. Іди негайно і вивчи всі сімдесят два сувої про гарні манери до ранку.

Фрагмент із мультиплікаційного фільму "Микита Кожум'яка" (2016, режисер М. Деполян, автор сценарію О. Шульга),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Вправа 10. Перекладіть україн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фентезійні елементи:

1. 달의 객잔은 죽은 자들이 모여드는 곳이지. 떠드는 망자들이 스스로 그곳을 향해 온다네.
2. 나한테 무슨 주술 같은 거 걸었습니까?
3. 파초선이라는 예쁜 이름의 부채라고 한다. 저쪽 동쪽의 큰 산에서 일주일 동안 산불이 나는 걸 알고 있니? 불을 끄기 위해서 나는 그 부채가 필요하다.
4. 마왕께서 찾으시는 미훈향입니다. – 이거면 또라이를 좀 온순하게 만들 수 있으려나?
5. 이걸 금강고라는 물건입니다. 이걸 지니면 계약의 상대방을 당신 곁에 묶어둘 수 있습니다.
6. 할머니, 요새 **홍사 항아리**가 자꾸 우네. – 울음 소리가 예사롭지가

않다. 인간세상에 큰 흥사가 있으려나. 7. 오공이 오빠가 좋다는 애는 누구냐? – 애? **황원시야**. – **황원시**면 어제 삼장집에 왔던 그 **좀비**? 8. 없어진 건 검은 색 방울이에요. – 검은 색이면 **사령**? – **사령**이라면 저승사자가 쓰는 방울 말입니까? – 맞아. 무서운 인연을 알려주는 방울이죠. 그 **사령**은 죽음의 인연을 만났을때 그 소리를 들려준다고 하더니. 9. 난 그날 거기서 푸른 입술과 푸른 피 **뇌안탈**, 그들을 처음 보았다. 10. 당신들의 강력한 힘과 우리 사람의 기술, 당신들의 비옥한 대지, **달의 평원**과 우리 **아스달**의 지혜와 문명. 우리가 힘을 합치면 상상도 하지 못했던 풍요를 이룰 수 있소. 11. **뇌안탈**이 1년에 단 한번 한자리에 모이는 **초승달 대축일**, 일곱 낮과 일곱 밤 동안 벌이는 축제가 다시 없을 기회였다.

Вправа 11. Перекладіть корей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фентезійні елементи:

1. Зараз я настрою цей **телепорт** у зворотному напрямку і адьос.
2. Ану стій, кінното. Батькові треба прилягти біля каменюки, з **духами скель** перемовитись.
3. Ти хочеш сказати, що весь цей час **магічний кульчик** був у мене в вусі в тебе під носом і ти його не розпізнав? – Тому що ніхто не знав, як він виглядає.
4. Відшукай дерево із таким листям. У лісі. У хащах за **Темною горою**.
5. Добре б було побачити усю могутність цієї гармати. Може впирищемо у **магічний дуб**? Характерник казав, що той дуб захищають старі чари. Йому вже триста років. І за легендами ще триста простоїть.
6. Це Квусь. Останній в наших краях **жабокиць**.
7. Ти зовсім не схожий на потворних **людовиськ** із лісових легенд.
8. Що ж, Лукаше, будь розумничком, хоч це і складно в твоєму випадку, і познач мені **Джерело життя** на цій недолугій мапі.
9. Я закликав **первісного духа підземного світу Того, що в скелі сидить**, і попросив дати мені **іскру люті**.
10. За твою допомогу я хочу подарувати тобі **пищика**. Це незвичайний подарунок. Дмухнеш у нього і я не забарюся прийти тобі на допомогу.
11. Микола одержав **шаблю**, та **шабля ця була не проста, а посріблена**. І здійняти її він міг тільки для захисту.
12. А позмагаємося у **діжкобол**?
13. Я –

Едді фантастичний, **магістр білої магії**. 14. А як можна потрапити в **Дивинарію**? – Крізь **магічну браму**, яку можуть відкрити тільки могутні **чарівники** такі, як я. 15. Шукаємо **Кришталеве озеро**. Здається, туди збиралися батько з Данилом. 16. Кожні сто років до заходу кривавого сонця **Чорномор** викрадає закохану принцесу, щоб енергією її кохання поповнити свої чаклунські сили.

Вправа 12. Перекладіть україн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гіперболи:

1. 불 끄라고 빌리고! – 왜 꺼? 그냥 다 태워. 난 네가 지구 전체를 태운데도 상관없다고. 2. 저런 얼굴 잘 알아. 내일리하도 세상이 망하기를 바라는 얼굴. 3. 너의 기고만장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4. 내가 너 꼭 반드시 타락시켜서 목을 비틀어서 지옥문에 아주 매달아서. 5. 나한테 과거를 내보인 게 부끄럽습니까? – 그래. 온몸이 시퍼레질 정도로 부끄러운 이 상황을 내가 제대로 확인해 봐야겠어. 6. 너 귀신 본다 그랬지. 군대를 갔다와야 그런 귀신 보는 게 짝 없어져. 웬 줄 알아? 군대가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이 너무나 많거든. 7. 니가 좋아한다면 딸기 맛 아이스크림으로 산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온 세상을 초록으로 칠해줄 수도 있고. 8. 난 정말 내 딸만 찾으면 내 전 재산, 내 콩팥 다 줄 거야. 내 영혼도 줄 거야. 내 딸 찾아 주는 사람한테. 9. 애가 왜 이렇게 돼지인지 사람인지 분간 안 되게 먹기만 하는데? 다 엄마 사랑이 부족해서야 애정 결핍이라고. 똥똥해서라도 주목받고 싶은 관종이 된 거야. 10. 삼장은 오공이 형님한테 1도 마음이 없어. 11. 우리가 이겼지만 전멸시킨 게 아니요. 살아남은 것들이 있어요. 호랑이보다 위험하고 쥐 새끼보다 더러운 놈들입니다.

Вправа 13. Перекладіть корей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гіперболи:

1. Я, любя, той, хто навіть сонце осідлає. 2. У мене сили б'ють через край. Я можу підкувати хоч чорта. 3. Я зараз тебе на стрічки розчикрижу. 3. Ходімо, розкажу щось таке, що жижки будуть труситись. 4. Ви не лякайтесь. Я з тих потвор чоботи роблю. Я така. 5. Ведмеді, синку, сплять менше, ніж ти. 6. Я геть постарію, поки додому потраплю. 7. Я ставлю на Микиту. Дракон з реготу лусне,

коли його побачить. – Або твої нудні жарти доконають його. 8. Цим навіть горобця не налякаєш. 9. Тепер тобі страшно? – Так, аж до гикавки. 10. Заради Міли я готовий піти хоч на край землі. 11. Я присвячу тобі найвеличнішу поему в історії людства. 12. Розступіться, тому що зараз тут почнеться сеанс магії екстра-казкового класу. 13. Ти хоч знаєш, з ким ти зв'язався? Спершу я згодую тебе піраньям, тоді згодую піраній зграї свиней, тоді заріжу свиней і свині підуть на корм хробакам, а тоді на хробаків я наловлю риби. 14. У Ліліпутії за кожним кущем чекатиме небезпека. 15. Міла, яку я бачив, була несправжня. Отже це не вона наговорила мені тих дурниць. І можливо, вона досі чекає на мене. Або можливо навіть любить. Ти що не радий? – Неймовірно радий. Просто безмежно. Зараз впісяюсь від щастя. 16. Це взагалі суд, чи шапіто якесь? Пробачте, але це курам на сміх.

Вправа 14. Перекладіть україн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реалії:

1. 삼겹살 더 사 왔으니까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2. 그 꼬리는, 이 귀는... – 에버랜드 다녀왔어요. 신상이에요. 꼬리랑 머리띠 너무 귀엽죠. 3. 경상도 분이시구나. 4. 이거 무슨 냄새야? 백숙이야? 5. 괜찮으세요? 어디서 그렇게 젖으셨대? –한강물에. –한강? 오밤중에 물놀이를 하셨나. 6. 호텔이 진짜 있었네. 주소도 있네. 명동? 7. 983년 전이면 고려 때고 최수종이 건국해서 뭐 좋, 뭐 좋 하다가 뭐 왕, 뭐 왕 하다가 망했을 때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기억해! 8. 이게 한반도에서 포획된 마지막 백두산 호랑이라네요. 9. 호랑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팔죽이야. 10. 너 이제 우리 호텔 안 오면 박수무당밖에 할 게 없어. 11. 오공이 형님께서 요즘 입맛이 없으시다고 해서 밀반찬 몇 개 만들어 두고 있었습시다. 12. 이 시간에 주꾸미 먹으려면 노량진 쪽으로 가야겠네요. 아니, 주꾸미는 서해안이지. 바닷가로 갈래요? 13. 팔빙수 나왔습시다. 14. 만월이 사귀는 사람 없지? –그건 왜? –우리 회원 소개시켜 주려 그러지. –요트 클럽이면 요트를 타야지. 왜 중매를 하려고 그래? 15. 야, 진짜 강남 사람 다 됐네. 예쁘다는

뜻이야. 16. 오늘 오정이 약밥데이인데. 오늘 오정이 저녁에 약밥 썰놓고 기다린다 그랬거든.

Вправа 15. Перекладіть корей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порівняння:

1. Зараз ти зробишся піддатливим, як масло. 2. Та він, як заєць, усього боїться. 3. Ти хто такий? Скажи, чого стоїш, як та тополя посеред гаю. 4. Ну розкажуй, як ти добрався. – Добре, але ти ж знаєш ці міжпросторові стрибки. Макітра потім, як чавунна. 5. Вода холодна, мов ропуха під кущем. Саме, як я люблю. 6. Ти знаєш, де Кришталеве озеро? – Звісно. А що ви нам дасте? – А як щодо їжі? Апельсини завбільшки з будинок, буханки хліба великі і м'якенькі, як ліжка, полуниця солодка розміром з гарбуз. 7. Кажу, як на сповіді, цю казку вигдавав я. 8. Знайдіть хлопця. Зазерніть в його думки. Зробіть його душу темною, наче морок ночі, а серце холодним, мов камінь. 9. Я теж був відчайдухом, зухвалішим за чорта, поки Чорномор не висмоктав з мене всі сили. 10. Чого ти рвонув, як ошпарений? 11. Скоро ти в мене станеш покірною і слухняною, як той камінчик. 12. Я теж поспішаю. Роботи, як тюльки в морі. 13. Як ти себе тут почуваш? Ніхто не ображає? – Та я, мов сир у маслі. Щиро вам дякую. 14. Тіло не болить. Я, наче огірочок. Хоч зараз на гульки.

Вправа 16. Перекладіть україн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гру слів:

1. 뭐지, 이 붕신은? – 신은 그분뿐이고 나는 정령이야. 2. 낙타를 내오너라! – 나 우버 불렀는데. – 응? 우버가 뭘데? – 이제 낙타 안 타고 우버 타는데. 3. (개한테 말하며) 그럼 네가 오늘 밤의 세 번째 소원자구나. 반가워, 똥개. – 이게 무슨 개소리지? 개는 빼야지. – 왜 빼? 네가 이 길에서 마주치는 다섯 명이라며, ‘명’. 그럼 생명은 다 포함이지. 4. 여러분, 딸기가 회사에서 잘리면 뭐게요? – 뭘데요? – 딸기시럽. 5. 안녕하세요. 관상 공부하는 학생인데요. 영이 참 맑으세요. – 그럴 거야. 내가 정령이야. 6. 난 천사이기 전에 그분의 전사예요. 7. 정말 개

같은 상황이야. 난 개가 아니고 원숭인데 왜 이렇게 됐지? 8. 우리 봉고는 사진을 찍어. 난 돈을 찍을게.

Вправа 17. Перекладіть корей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гра слів:

1. Я такий незграбний. мене знаєте, як звали у дитсадку, Лукаш Незграбченко. Будеш тепер Лукаш Вкашурилорозхрябченко. 2. Чому ти звеш мене нечистю? Я мавка лісова, душа прадавнього лісу. – Ну а я Лукаш, душа компанії. 3. Як ти посмів відкрити рота на мене його високість лицаря Фарлафа і твого майбутнього князя. – Я тобі ніякий не дурбалай, твоя високість лицар фалафель. 4. Сьогодні наш рятівник і герой Гуллівер повернеться знов після тридцяти років відсутності, як і передрекло пророцтво. Поява людини-гори нарешті вирішить гору невиршених проблем. 5. Підзахисний насправді є гігантом. Він з давнього роду гігантів, однак через захворювання в дитинстві він перестав рости. Виходить, що підзахисний — це гігантський гном чи гномський гігант. 6. Е-е-е, альо, я не поняв. Це поки я заливаю фундамент на курник, він заливає до моєї жінки!

Вправа 18. Перекладіть корей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іронію і сарказм:

1. Нарву кульбабок тобі на могилку. 2. Йой, а що це тут сталося? – Битва. – Та я бачу, що не фінал "Танців з зірками". 3. Як ти тут облаштувався? Ніхто не кривдить? Не хочу зіпсувати святкову атмосферу завтрашньої страти твоїм кислим личком. 4. Не звертай уваги на нашу адвокатку. Вона може почати і тебе рятувати. Тоді ти влип по самі вуса. 5. Сподіваюсь, твої ноги швидші за твій балакучий язик. 6. Тобі так пасує, коли ти ефектно мовчиш. 7. Марсі, тобі точно треба барти все це у подорож? – Звичайно. Твоя принцеса заслуговує на комфорт. А де твої речі, коханий? – Вони на мені.

РОЗДІЛ 5 ІСТОРИЧНІ ФІЛЬМИ

Вправа 1. Перекладіть полілоги із серіалів "화랑", "연모", фільмів "하얼빈", "해적: 도깨비 깃발" українською мовою. Зверніть увагу на способи перекладу виділених фрагментів тексту:

1.

- 부여화: 선대왕의 막역지우께서 옥사에 간혀 계시다니요.
- 김위화: 돌아가신 폐하와는 나중엔 별로 안 좋았습니다만... 제가 그분의 궁주와 사통을 하는 바람에 다들 놀아났다고들 하지요.
- 부여화: 공계선 이 신국이 마음에 안 드시나 봅시다.
- 김위화: 자식을 내쫓은 어머니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십년 넘게 섭정을 하고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어머니가 있는... 그러니 마음에 안 들 수 밖에요.
- 부여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 김위화: 향간에는 태후전하께서 영민하다, 어찌다 하던데 그게 다 헛소문이었던 모양입니다. 나 요래 자꾸 피곤한 사람한테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같은 말을 계속 하십니까? 아, 그래, 뭐? 뭐? 뭐를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 부여화: 왕을 위해 목숨을 바칠 친위대를 만들 생각이요.
- 김위화: 왕을 위한 친위대, 좋죠. 헌데 사병들은 화백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누가 왕을 위해서 검을 들고 활을 쏘겠습니까? 어디 뭐, 백제에다? 아니면 뭐 고구려 얼라들이요?
- 부여화: 화백들의 자식들을 데려올 것입니다. 공께서 그들을 가르쳐 주세요. 자신의 아버지와 가문이 아니라 왕과 신국에 목숨을 바쳐 충성하도록 말입니다.
- 김위화: 제가 그걸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부여화: 섭정에서 물러나길 바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공이 이 일을 제대로 해내신다면 난 깨끗이 물러날 겁니다.

막역지우: 매우 가까운 친구

궁주: 후궁

신국: 성스러운 신의 나라라는 뜻으로 신라를 뜻함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화랑" (2016-2017, режисер 윤성식, автор сценарію 박은영),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Netflix.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2.

- 막문: 내가 뭐랬어? 나 왕경에 살았던 거 맞잖지?
개새공: 넌 그렇게 얻어터지고도 웃음이 나냐?
막문: 왕경만 가면 이걸로 찾을 수 있을 거 같아.
개새공: 그러니까 내일은 뭘 일이 있어도 넘는 거다. 알았지? 또 내빼지 말고.
막문: 망망촌 천인이 성문을 넘었다간 활에 맞아 죽고, 창에 찔려 죽고 목이 잘린다잖아.
개새공: 그럼 그놈의 왕경 노래를 하지를 말던가.
막문: 그야 집이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이까지 같이 살았던 고향이잖아. 이걸로 아버지도 찾고 내 신분도 되찾을 거야.
개새공: 그딴 걸로 떡이나 찾겠다.
막문: 원래 이런 걸로 다 찾고 그러는 거거든. 알지도 못 하면서. 넌 괜히 나 때문에 괜찮겠냐?
개새공: 너 혼자 성문 넘는데 한 백날은 걸릴 걸. 그리고 난 왕경이든 어디든 가고 싶으면 갈 거야. 다 같은 사람인데 천인이라서 못 가는 데가 있는 게 말이 되냐?
막문: 아으, 개새공. 넌 왜 그렇게 겁이 없냐?
개새공: 많이 가진 놈들이나 겁이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음 겁날 것도 없다.

왕경: 골품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던 신라시대의 수도 경주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화랑" (2016-2017, режисер 윤성식, автор сценарію 박은영),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Netflix.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3.

- 화백 1: 이래도 두고 보자실 겁니까? 이려고도 묵과한다면 저들은 신국을 호구로 여길 겁니다.

- 화백 2: 허나, 백년이 넘게 이어진 나제동맹을 지금 와서 깰 수는 없습니다. 나제동맹이 깨진다면 당장 고구려는 우리를 먹잇감으로 삼으려 들 것이 자명해요.
- 화백 1: 동맹은 개뿔. 상황이 이 지경이면 이미 남부여와는 끝난 거 아닙니까?
- 화백 2: 끝나다니요?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을 하세요.
- 화백 3: 끝난 게 아니면 뭘니까? 남부여 태자 창은 호전적이고 포악하기로 악명이 드높은 자입니다. 아니, 그럼, 이리 가만히 앉아 손놓고 있자는 거요?
- 화백 4: 전쟁을 하시지요. 매번 도발을 일삼는 남부여를 이참에 우리것으로 삼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 화백 2: 아니, 남부여는 우리보다 강한 나라요. 어찌 우리가 하루아침에 함락할 수 있단 말이요?
- 화백 4: 전쟁을 할 수 없다면 공주님을 보내 화친을 맺으면 어떻겠습니까? 최소한의 병력만을 대동한 사절단을 보낸다면 생각보다 쉽게 풀릴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 화백 2: 어찌 그런 일에 공주님을 이용한단 말이요?
- 화백 4: 그럼 전쟁을 하시든가요! 어찌하시겠습니까? 전쟁입니까, 화친입니까? 어서 결정을 내리시지요.
- 태후: 그럼, 화친사절단에 화랑을 함께 보내겠소. 그대의 말대로 남부여와의 화친이 목적이라면 군대 대신에 화랑을 보내는 게 더 맞겠지. 그래야 그들도 우리가 친선을 위해 왔다 여길 것아요. 안 그렇소?

나제 동맹: 신라와 백제가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 맺은 동맹

남부여: 백제가 도읍을 웅진에서 부여로 옮겼을 때 쓰던 국호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화랑" (2016-2017? режисер 윤성식, автор сценарію 박은영),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Netflix.*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4.

안중근: 어찌 되었소?

동지 1: 진지를 구축하러 온 선발대로 보이는데 얼추 잡아 150 명 정도로 보입니다.

안중근: 의군의 수보다 70 여 명 많다는 건데 불리한 상황이요.

이창섭: 싸움은 쪽수보다 기세야. 2 대 1 이면 해볼 만하네.

동지 2: 아,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불리한 상황은 맞소. 무기도 우리보다 월등하고.

안중근: 그 초소는 어땠소?

동지 1: 남쪽하고 북쪽으로 두 개씩 세워져 있습니다.

이창섭: 그럼 내가 좌영군을 이끌고 남쪽부터 치받겠소.

동지 2: 그럼 내가 김 동지하고 북쪽을 치받으면 되겠네.

안중근: 그러면 내가 먼저 초소를 치겠소. 일본군의 총구가 나한테 쏠리면 좌영군과 우영군이 일시에 기습을 합시다. 창섭이 내 신호를 기다리게.

이창섭: 알겠네.

*Фрагмент із фільму "하얼빈" (2024, режисер 우민호, автори сценарію 우민호, 김민선),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TVING.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5.

동지 1: 안 동지, 왜 바로 연추로 오지 않았는가? 대답하십시오.

안중근: 회령으로 피신해 강을 건널 기회를 노렸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연추로 오려 했지만 살아 돌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죽은 동지들의 참담한 비명이 귓가를 맴돌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 처참한 형상의 시신들이 눈앞을 떠돌았습니다.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인해 많은 동지들이 희생되었으니 더는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죽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내 목숨은 죽은 동지들의 것이라는 것을 나는 죽은 동지들의 목숨을 대신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대한 제국을 유린하는 일본 늑대의 우두머리, 늙은 늑대를 반드시 죽여 없애자고.

Фрагмент із фільму "하얼빈" (2024, режисер 우민호, автори сценарію 우민호, 김민선),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TVING.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6.

- 동지 1: 이등이가 만철을 타고 여순에서 대련, 봉천을 거쳐 25 일에 장춘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갈아탈 겁니다.
- 이창섭: 장춘에서 갈아탄다고?
- 동지 1: 장춘이 만철 종착역입니다. 여순에서 장춘까지는 일본 철도고 여기 장춘에서 하얼빈까지는 동청철도로 러시아의 철도요. 이 철로의 폭이 표준궤에서 광궤로 달라지니까 러시아에서 특별 열차를 보낼 겁니다.
- 이창섭: 그럼 26일 아침에는 여기 하얼빈에 도착하겠군요.
- 동지 2: 앞으로 일주일 남았소.
- 이창섭: 좋습니다. 하얼빈에서 해치웁시다.
- 동지 3: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번 거사의 지휘는 안중근 동지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섭: 이보게 김 동지, 중근이는 이미 적에게 노출되었네. 이번 거사를 끝까지 이끌고 가기에 우리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
- 동지 2: 그건 이 동지 말이 맞소. 이제부터 이창섭 동지에게 맡기는 게 좋겠소. 안 동지, 어찌 생각하오?
- 안중근: 알겠습니다.
- 이창섭: 자네가 이해해 주니 내 한결 마음이 가볍구만 그리고 자네가 해주어야 할 일이 있네. 폭약을 구해 주게. 자네가 아무리 명사수라고 해도 총 한 자루로 이등이를 죽이는 것은 불가능하네. 안 그런가? 자네가 폭약을 구해 오면 이등이는 내 손으로 처리하지.

Фрагмент із фільму "하얼빈" (2024, режисер 우민호, автори сценарію 우민호, 김민선),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TVING.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7.

- 공 부인: 폭약은 어디로 가져갑니까?

이창섭: 하얼빈으로 갈 거요. 3일 후 이등이가 하얼빈에 도착하오.

김 동지: 하얼빈은 경비가 삼엄할 겁니다. 하얼빈보다는 이등이가 열차를 갈아타는 장춘이 용이합니다.

우 동지: 아이고 김 형 말이 맞네. 장춘으로 갑시다.

동지 3: 이틀 후면 이등이가 장춘에 도착할 텐데 이곳에서 장춘까지 기차로 이들은 가야 하오. 장춘에서 거사를 준비하기엔 시간이 촉박합니다.

이창섭: 3일 남았소. 하얼빈으로 정했으니 결정 좀 따르시오.

동지 4: 하얼빈에 도착하면 김성백을 찾아가시오.

공 부인: 김성백이 누구니까?

동지 4: 하얼빈 한인회 회장인데 거처를 제공하기로 했소.

안중근: 공 부인은 이곳에 남는 게 좋겠습니다. 폭약을 구했으니 공 부인의 역할은 다한 겁니다.

공 부인: 저도 하얼빈으로 가겠습니다.

안중근: 공 부인까지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소. 이곳에 남아 계시오.

공 부인: 하얼빈은 노서아 관할입니다. 저보다 노서아 말에 유창한 사람이 더 있습니까?

이창섭: 공 부인 말이 맞소. 최재형 선생께서는 여기 계셔야 하니 공 부인은 우리와 함께 가는 게 좋겠소. 출발합시다. 한 시간 뒤에 하얼빈으로 가는 기차가 있소.

동지 3: 갑시다.

이창섭: 매복이네.

공 부인: 매복입니다.

안중근: 나도 봤소. 우리가 엄호할 테니 공 부인과 함께 출발하게.

이창섭: 중근이, 자네가 시작한 일 아닌가 내가 먼저 치겠소. 내가 반대쪽을 맡겠소.

김 동지: 그럼 내가 위에서 최대한 엄호하겠소.

안중근: 그럼 공 부인이 마차를 끌어 주시오. 내가 뒤에서 엄호할 테니.

공 부인: 알겠습니다.

Фрагмент із фільму "하얼빈" (2024, режисер 우민호, автори сценарію 우민호, 김민선),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TVING.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8.

동지: (총에 대해 이야기하며) 8 연발이네. 상당히 가까이 접근해야 할
걸세.
안중근: 표적이 열 보 안에는 들어와야 합니다.
동지: 퇴로가 없다는 거네.
안중근: 알고 있습니다.

Фрагмент із фільму "하얼빈" (2024, режисер 우민호, автори сценарію 우민호, 김민선),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TVING.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9.

왕: 왕실에 쌍생은 절대 불가하다! 계집과 한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그 누가 감히 왕자로 인정하려 하겠느냐.
혜종: 하오나 아바마마...
왕: 나를 왕으로 만든 공으로 상헌군 그대의 딸을 빈궁으로
삼았거늘 이제 이 일을 어찌 책임질 것인가! 나의 자리가
위협당하면 그대는 물론이고 나를 따른 모든 대신들의 목숨
역시 보존키 어려울 것이란 걸 모르진 않겠지.
기재: 오늘 밤 왕실에서 탄생한 아이는 오로지 원손마마뿐이십니다.
누구도 쌍생의 비밀을 아는 자는 없을 것이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하.

빈궁: 살려주십시오, 저하. 계집애로 태어난 것이 죽어야 할 이유가
될 순 없습니다. 제발 살려 주세요.
혜종: 불가하오.
빈궁: 당신 딸입니다. 저하의 아들과 한날한시 한 태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혜종: 이미 주상 전하의 어명이 내려졌소. 종실의 의견도 다르지 않소.

빈궁: 아니요, 아닙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인 저하의 뜻이 중합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저하께서 답해 주십시오.
혜중: 나 역시 이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버릴 것이요.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연모" (2021, режисер 송현욱, автор сценарію 한희정),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Netflix.*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10.

불출이: 근데 말이여. 우리가 도적인 거는 알겠는데. 왜 역적으로다
쫓기는 거여?
무치: 했다. 역격질.
강섭: 뭐 소리요, 두목?
무치: 황천이 가까우니 진실을 말하마. 기억하나? 삼척목.
강섭: 기억하지, 이 손가락 만들었잖아.
달표: 그런 나무는 처음 봤지.
무치: 그게 궁성의 대들보였다.
불출이: 대들보? 새 궁성이면 이성계가 한양 천도를 한다고 짓는 그
경복궁을 말하는 거?
무치: 그 경복궁을 떠받칠 대들보를 찾아 이성계는 온 나라를 뒤졌지.
그리고 태백산 꼭대기에서 그 나무를 찾았고.
강섭: 우리가 광나루에서 훔친 게 그거다?
무치: 어떻디? 경복궁 대들보로 떠먹은 밥맛이 좋지?
불출이: 그 경복궁을 짓다만 게...
무치: 다 이 손가락 때문이지.
강섭: 왜? 왜 그랬는데? 밥 맛나게 쳐드시려고?
무치: 천년 왕국의 대들보가 삼척목이나, 백성이나? 눈앞의 걸 못 보고
먼 데서만 찾기에 심통이 좀 났지.
대두: 심통이 나서 ...
불출이: 수백, 수천의 관군이 우리를 쫓게 만든 거여?
무치: 지금도 쫓고 있을걸.
강섭: 웃어? 씨발.
무치: 죽으면 목마름도 가실까? 하루 먼저 가 자리 잡고 기다리겠네.

Фрагмент із фільму "해적: 도깨비 깃발" (2022, режисер 김정훈, автор сценарію 천성일),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Netflix.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11.

- 강섭: 이거 고려 군진에서 쓰는 지도 같은데.
무치: 맞아, 이 거. 나도 썼었거든. ‘주방’. 장수 주방이면 고려 황실 친위대를 이끌었던 그 주방?
아귀: 고려 황실 보물을 싹쓸이해서 바다로 사라졌다면 그...
강섭: 이게 대장군 주방의 보물 지도라고?
꼬막: 주방의 보물이래.
함께: 육고기다!
꼬막: 조용! 조용, 조용!
대두: 인마, 이 새끼야! 어디 막내 새끼가 진짜!
무치: 단주, 떠나세. 이 보물만 있으면 이런 지긋지긋한 오징어도 끝이야. 응? 보물, 보물!
해랑: 좋아! 돛을 올려라.

Фрагмент із фільму "해적: 도깨비 깃발" (2022, режисер 김정훈, автор сценарію 천성일),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Netflix.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Вправа 2. Перекладіть україн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історизми і архаїзми:

1. 저게 뭐데? – 주령구 (술 마실 때 벌칙을 주기 위해 만든 14 면체 신라시대의 주사위).
2. 야, 야. 선빵, 선빵 (싸움에서 먼저 때림).– 내가 쳤나? 쳤지?
3. 상납할금이 모자라면 마을 사람들이 치도곤 (몹시 혼나거나 맞음. 곤장의 하나)을 당하는 거 몰라?
4. 파오에게서 온 밀지입니다.
5. 내일밤 축시에 동문을 넘어실 듯 합니다.
6. 이게 ‘아가씨’ 해주니까 진짜 진골 아가씨라도 되는 줄 아나? (진골: 신라의 신분제도 상 왕족인 성골 바로 아래의 귀족계급).
7. 전하, 폐하께서 승하하셨습니다.
8. 태자를 지켜다오. 반드시 살려야 한다.
9. 월성엔 지금도 니 목숨을 노리는 수많은 자객이 있다. 궁인 하나, 궁을 출입하는 말직의 관료 하나 믿을 수 없는 게 지금 상황임을 몰라?
10. 자네 아버님 관복 색이 뭐가? (신라 때에

둔 17 관등 가운데 6 번째 등급) 아찬이니 비색이겠지. 내 양아버지는 갑간 (17 관등 가운데 1 등급), 아버지는 잡찬 (17 관등 가운데 3 등급). 기보와 신의 아버님은 대하찬 (17 관등 가운데 5 등급)과 파진찬이야 (17 관등 가운데 4 등급). 당연히 관복은 자색이고. 함께 어울린다고 같은 진골이라 여기면 어떡하나? 11. 한 명은 삿갓을 쓰고 있다. 12. 선우를 찾으려면 주려고 준비해놔던 옷과 통행패다. 13. 아버지는 같으나 단세 어머니가 그 집 종복출신이라. 14. 검술이니 궁마니 내가 다 이기는데 왜 축국은 매번 지는 거냐고? 15. 니들 때문에 이 나라가 삼국 중에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작은 나라에 머물러 있는 거야.

Вправа 3. Перекладіть корей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історизми і архаїзми:

1. Пан Петро везе цей дзвін з самого Стамбулу. Це для нашої нової дзвіниці найкращі майстри видували. – А з якого це дива у нас **бусурманські** дзвони висітимуть? 2. Я знав, що пан **кошовий** вишле мені назустріч найдобріших хлопців, але з парадним **кунтушем**, Назаре, ти перегнув. 3 Івасику, а я знав, що все буде добре. Ну що, залишилося тобі лише пройти випробування, і все, будеш **джурою**. 4. Я все своє життя по закупівлях їжджу і різні дива у **заморських купців** скуповую. Але є в мене одна біда – мов не знаю. І **сувої** прочитати не можу. 5. Відведіть цих полонених до **клуні**. 6. Не хвилюйся, **яничари** нам не загроза. 7. Мій **курінь** у цей похід не піде за жодних обставин. 8. Через **Кафу** треба їхати. До того ж у **Кафі** я маю перевіреного капітана. От він нас і до **Османської імперії** доставить. 9. **Жупана** мені іншого принеси. 10. Хлопці, як і просили, наша найліпша **медовуха**. 10. Що ти знаєш про цього Івасика? – **Куліш** він варить справно, а більше мені і знати не треба. 11. Ходімо до **корчми**. Я вас нагодую. 12. Обшукате його і відведіть у **холодну**. 13. Якщо ти швендяв по **вечорницях** усю ніч і тобі кортить туди вернутися, то так і скажи мені. 14. Сірки повезли свою доню Проню з **пансіону**. – А за цю доню вони дасть десять тисяч **посоху**. 15. За борги, за неоплачені **векселі** твоя **цирюльня** опечатується, а майно описується.

Вправа 4. Перекладіть україн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історизми і архаїзми:

1. 박영실을 비롯해 대부분의 화백들과 대신들이 와병을 핑계로 나타나지 않았습시다. 2. 내일 밤 나정에서 만나서 한판 붙자 (박혁거세가 태어난 신성한 우물). 3. 그럼 화랑이 돼서 장사치나 되겠냐? 4. 나홀동안 잠 못자고 맞기까지 했는데 잠깐만 자게 도와줘. 2 각만 (1 각 = 15 분). 5. 니 오라비가 지현당 쪽 고방(창고)에 갇혀 있어. 6. 오늘 어머니 기일이예요. 7. 생각해보니까 그 놈들이 날 막 대한 게 한두번이 아니야. 애들 이름 다 적어봤다가 나중에 싹 다 거열형, 아니, 그 뭐냐, 그 술에 넣고 삶는 거? – 팽형 말씀이십니까? –어, 그래. 그거. 그걸로 엄벌에 처해. 8. 정말 가야의 악성 우륵이야? –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9. 니 오라니는 도망칠 수 있었는데 날 구하려다 금군 칼에 맞았어. 10. 지뒤랑이 조카가 맞소? 그대와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한 화랑이지만 그 자가 신국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모반을 도모하는 세작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지. 11. 증명할 수 있겠소? 원래 이름은 뭐고 식솔들은 어디에 있으며. 12. 혼기 찬 공주가 왕경 최고의 남진감들이 다 모인 선문에 온 이유가 뭐겠어? 부마를 차는 거지. 13. 제가 무진년 빠른 정월생이라. 14. 허나 만국공법에 따라 사로잡은 포로를 마음대로 처형할 순 없소.

Вправа 5. Перекладіть корей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фольклоризми:

1. Гади, падлюки, іроди ви гемонські. Ну хоч руки розв'яжіть **перехреститись**. 2. **А бодай би ви не діждали**. Відчиніть двері! 3. Перекажи своїм хлопцям, що Івася пошукали. Я не давав наказ, виставляти його з Січі. – Чекайте, а навіщо він вам? **Матері твоїй ковінька**. 4. Ах ти підлої матері син! **Най би тя чорти вхопили і зашкварили**. 5. **В добру путь, синку**. Вирішуй свої справи і повертайся. 6. **Матері твоїй хивря**. Ви б дзвіночок собі якийсь повісили, чи що. Вмерти можна з переляку. 7. **Хай йому грець**. Ти бачив, я йому ледь в пику не заїхав за таку зухвалість. 8. Здається, я осліп. Я не бачу своїх рук. І світло гасне. Хлопці, відведіть мене до **знахарки**, благаю. 9. Фух. **Крий мене**,

Матір Божа. Це ж Мар'яна, Назарова суджена. 10. **Грець мені під дишло.** Що ж мені тепер робити? 11. І що ти думаєш, той волохатий пся крев допоміг мені?! **Най його колька сколе.** 12. Скажи, якого біса Федір напав на мене. – Я гадки не маю. **Ось вам хрест.** 13. Ну що? Кажи! **Щоб тебе підкинуло та гепнуло,** марафонцю недолугий. 14. Назар з маряною повинні були одружитися зранку та певно не судилось. Ляхи на село напали, **хай їм пір'я в роті поросте.** 15. **А щоб твоєю мордою просо молотили.** Що не скажеш, цьому невігласу все не так. 16. Ну що, цього торбохвата прямо на місці стратимо? – Якого торбохвата? **Та щоб вам язик відсох.** Я ж не для себе старався. 17. Якщо ми не повернемо нашому союзнику дорогу йому річ, то хто ми такі будемо? – Злодюжки. – **Та нехай тебе бджола за язик вжалить.** Але це правда. Так і буде. Невже ви хочете, щоб нас, козаків, вважали злодюжками?! 18. **Святі кобилячі підкови,** що це за ураган?

Вправа 6. Перекладіть україн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метафори:

1. 여기서 조용히 살다가 죽는 게 니 팔자라고 몇 번을 말해? 2. 저거 왜 저래? 손가락에 쥐가 났나? 3. 니가 세상에 드러나는 날은 내가 결정해할 것이다. 그때까지 쥐죽은 듯 지내. 4. 살려뒀선 안 된다. 반드시 숨통을 끊어. 5. 화랑. 와, 좀 멋진데. – 태후의 개를 뽑는군. – 이런 데 관심 있을 줄 몰랐네. 왜? 이거 하게? – 너나 가서 열심히 꼬리 쳐라. 6. 이 모든 권력을 태후 발 앞에 두겠다는 겁니다. 7. 행차를 포기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신국 황실이 백성을 만나는 단 한번의 행사요. 화백들이 따르지 않는다 해서 멈춘다면 황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겁니다. 이러다 화랑까지 만들지 못 하게 된다면 신국 황실은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상처를 입게 될지 모르오. 8. 빈연으로 하는 행차가 허울 뿐인 광대짓이라는 걸 뼈에 사무치게 해 줘야죠. 9. 살만 했던 모양이요. 아직 햇바닥에 독기가 남은 걸 보니. 10. 태후가 보냈든 말든 넌 우리하곤 절대 못 섞여. 너 같은 건 기름처럼 떠다니다 더러운 시궁창으로 떠내려갈 뿐이야. 11. 너 여기서 참으면 거열형이다. 12. 그걸 알아? 개가 겁이 많으면 오래 짊는데. 그만 짊고 깔까? 13. 모래성 하나를

세우는 데에도 깨져서 흐르는 모래가 있기 마련인데 신국의 미래를 세우면서 이 정도 깨지는 것도 못 참으신다는 겁니까? 14. **약한 짐승 한 마리를** 집어넣고 깨지고 망가지는 걸 보이면서 다른 놈들 기강 잡는 거, 내가 딱 좋은 먹잇감이라는 거 압니다. 15. 내 취향은 아니야. 어머니를 안 닮았어. 무슨 여인이 저렇게 차갑냐? 웃지도 않고. – 뭐래? 앵? 어머니가 더 **얼음** 아닌가? 16. 만국공법 천 마디가 **대포 한 발에** 진다 했다. 17. 그깟 **공염불**에 휩싸여서 동료들의 희생을 물거품으로 만들 셈인가?

Вправа 7. Перекладіть корей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метафори:

1. **Історія в тебе якось гладко пошита.** А отже брешеш ти, хлопче. 2. Я вважаю, зараз не на часі воювати з османцями. – Ось, послушайте справжнього козака. Скільки він за своє життя **пороху винюхав.** 3. Якщо шабелина – це **дружина**, то рушниця – **не гірш, як коханка.** І кожен справжній козак мусить впоратись з обома. 4. Та чого ви? То коня понесло. – Точно коня? Чи **віслиюка**, який на ньому сидів? 5. Це чортів плазун мало не **відправив мене до прадіда.** 6. Вітайте! Назар на прізвисько... – Борщик! – Саме так. Борщик. Тому що він усіх ворогів **на червону юшку змелює.** І тих, хто з нього кепкує, теж. 7. Та ви що тут усі **мухоморів об'їлися?** – Раджу підбирати слова, коли з кошовим говориш. 8. Попереду його ждала **хлібна робота.** 9. Батькове слово – **кремінь.** 10. Того, кого чекають, того **смерть обходить.** 10. Непогано в тебе виходить **замітати сліди.**

Вправа 8. Перекладіть україн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гіперболи:

1. 니 어미가 왜 널 여기다 버렸겠냐? 세상에 알려봐야 반길 사람이 없으니 이름도 안 지어준게지. 2. 저와 제 딸아이를 그 생지옥에서 살게 하셨는데 아직도 모자라십니까? 3. 우리가 그 날 결판을 못 냈던가. – 오늘 내자. 축국 언제? – 그냥 축국 가지고 되겠어? – 어, 그거. – 야, 안 한다고 해. 백전백패 매번 지는데. 4. 저 애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렸다간 넌 죽어. 5. 니 누이 면상이 그렇게 반반하다며 첩으로 삼고 싶을 만큼. 6. 내가 우리 오라비때문에 왕경 바닥에

고개를 못 들고 다녀요. 7. 니 방식은 뭐냐? – 나를 막을 수 있는 벽따위는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 8. 찢어죽여도 시원치 않을 대역죄인을 왜 화랑으로 만든 것일까? 9. 힘이 엄청 나. 스치기만 해도 머리통이 박살날 판이야. 10. 널 건드리는 놈이 있다면 뼈 마디마디를 끊고 혀를 뽑고 죽을 때까지 물 한 모금 안 주고 햇빛에 말려 죽일 거야. 11. 세상 어디 갔다봐도 살아남을 거야, 네 누이는. 12. 너 검은 쓸 줄 아냐? – 어, 잘 모를 수 있어. 내 비록 여기서 오징어나 말리는 신세지만 저 물에선 고려 제일 검은으로 불렸지!

Вправа 9. Перекладіть корей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гіперболи:

1. Кажуть, Краснопільська медовуха голову зриває. 2. Малому он примарилося, що ти його на Січ береш. Радіє, аж гопки скаче. 3. Ну і як там мій дядько поживає? Не розсипався ще? – Та де там. У нього сили, як у Котигорошка. 4. Цю історію кожна стамбульська собака знає. 5. Ми таке смачне їдло приготуємо, що кошовий зробить тебе своїм радником одразу після вечері. 6. Ти так налякав мене, що ледь серце не вистригнуло. 7. Якщо вже хочеш люльку палити, то пали її тут. Оно сідай у діжку з водою і пахай там, поки очі рогом не полізуть. 8. Оце свято вийшло. Ледь голову на плечах втримав. 9. Мене від твоїх оповідок у жар кидає. 10. *(Говорить собаці)* Вибач, що я не дав тобі тих ляхів до смерті зализати. 11. Ти цілий? – Ні, я смертельно поранений в самісіньке серце. Звістка про твоє весілля з Назаром розкрошила його на малесенькі клаптики. 12. Ти ба, Назаре, ти таки зламав йому щелепу. Так луснув, що аж хребет у штані посипався. 13. Красуля, присягаюсь, якщо ти помреш, я тебе на тому світі у рогалик скручу. 14. Красуля, як ти? – Погано, пане кошовий. Напевно, що до ранку не дотягну. Рана серйозна, майже смертельна. – Я тобі зараз язика твого дурного до зубів пришию. Через носа будеш їсти. 15. Давно не бачилися. – Не бачити б тебе ще сто років.

Вправа 10. Перекладіть полілоги із фільму "За двома зайцями", серіалів "Століття Якова", "Козаки. Абсолютно брехлива історія", "Гетьман" корейською мовою. Зверніть увагу на способи перекладу виділених фрагментів тексту:

1.

Проня: Тату, мамо, зачиняйте крамницю, ідіть у кімнату. Химко!
Химка: Га.
Проня: **Не гавкай.**
Химка: **А я не гавкаю, а гакаю.**
Проня: Мовчи.
Химка: Мовчу.
Проня: Мовчи, дурна.
Папуга: Химка дурна.
Проня: Закінчуй швидше прибору, будеш мене переодягати.
Химка: Зараз.
Мама: Доню, чого це ви нас кликали?
Проня: От. Мамо, знімайте цю **міщанську хустку**, одягайте цього **чепчика**. А ви, тату, цього галстука.
Мама: Та куди ж воно нам?
Проня: Така зараз мода.
Мама: І мати моя, і бабця таку носили.
Проня: Ой, що ви зі мною робите! **Говорити, як люди, не вмієте.** Ходити не вмієте. У хаті кругом **простота**.
Мама: **Простота – не гріх.**
Проня: Так нащо було мене **по-благородному вчити**?
Мама: Та ми ж хотіли...
Проня: Та помовчіть. Сьогодні у мене буде **благородний кавалер**. Може буде **сватати**.
Батьки: Хто?
Проня: Голохвастов.
Батько: **Цилюрник із-за канави?**
Проня: **Не цирульник, а палікмахтер.** Образований, вчений.
Батько: Він хоч багатий?
Проня: Багатий і дуже.
Мама: Дочка краще знає.
Проня: Так от глядіть, щоб усе було гаразд.
Батько: Химка, біжи по **горілку**.
Проня: **Горілка?** Ви ще б цибулі з **квасом** поставили.
Мама: Так а чого ж, доню?

Проня: Шампанського.

Батько: Так воно ж дороге.

Проня: Жалієте для дочки п'ять **карбованців**.

Батько: Химко, іди до **Кондуревича. Пансійон**.

Проня: А ви сидіть у себе в кімнаті, поки я вас не покличу. **А то ляпнете щось таке мужицьке при кавалері**. І дивіться, щоб ваша тітка **хамка не притютюрилась**.

Секлета: Хух, добрий день **вам у хату**. Ой, бігала ж, **як хорт за зайцем**, поки не розпродала всіх яблучок. Думаю, зайду до Сірків та вип'ю чарку другу горілки. А вам кішечку подарую. А Сірка яблучками почастую.

Батько: Який я Сірко. У мене собака була Сірко, так я його програв з двору, бо так погано дражили. Я не Сірко, а Серков.

Секлета: А про мене, хоч і Рябков.

Мама: Випий, сестро, чарку, бо ми до **вечірні** відряджаємось.

Батько: Ми так поспішаємо.

Секлета: Та поспієте ще. **Будьмо**.

Проня: Так і знала. Що це ви до нас у гості?

Секлета: Ага. Сама бачиш, небого.

Проня: У нас сьогодні **неприємний день**.

Секлета: А у мене якраз дуже **приємний**. Усі яблучка спрдала. Випийте до мене, Прокоре Свиридовичу.

Проня: Господи, і він частувати.

Секлета: Та вам тут невільно і випити.

Проня: Тату, поставте. Тут не **шинок**.

Секлета: Прісько, піди на кухню та постав тітці **самовара**.

Проня: Не діждете. Як ви смієте? Мамо!

Мама: **Щоб моя дочка після пенсіона та по самовар?**

Секлета: **Пенсіона, пенсіона. Побула десь три дні на за попихача та й прийдеться**. А ви потурайте, потурайте **більше** вашій Прісці.

Проня: **Не смійте** мене називати Пріською. **Муштруйте** свою Галю.

Секлета: О, якби моя Галька отак вередувала, я б їй добре **натерла потилицю**.

Проня: От і вчіть свою Гальку, а мене уже вчино.

Секлета: Вчено, та мало. Доведеться переучувати.
Мама: Не вашого, сестро, це розуму діло.
Секлета: Носитесь з нею, **як з бандурою**.
Проня: Та попросіть її, тату, на вставки.
Батько: Ми, Секлето Пилипівно, що інше, а ви щось інше.
Секлета: Що інше? Хіба я не знаю, які пани були Сірки? Ваш тато **шкіри м'яв** і з того хліб їв, а я яблучка продаю і з того хліб їм. І нікого не боюсь, навіть вашої великорозумної Пріськи.
Проня: Не злякались і ми вас, бо **руки короткі**.
Секлета: Ой, до такого носа, як у тебе, я і короткими дістану.
Мама: Який же у неї ніс?
Секлета: Як у чаплі.
Мама: То у твого чоловіка був ніс, **як копиця розвернута**.
Секлета: А ти мого чоловіка не чіпай. **На ньому верхи ніхто не їздив**. Він не був таким **хамлом**, як твій.
Батько? Який я **хамло**?
Проня: Женіть її звідси.
Секлета: Кого? Мене, секлету Лемериху, гнати?
Проня: Ти – **перекупка**.
Секлета: Жаба. Ух ви, **недóпанки чортові. Перевертні дурноголові**. Ех ви, **водить вас ця дурепа, як цуциків на орчику, а ви губи розвісили. Тьфу**.
Проня: Геть. **Мужло немите**.

Фрагмент із фільму "За двома зайцями" (1961, режисер і автор сценарію В. Іванов),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2.

Проня: В чому діло?
Секлета: **Нащо ти дурив моє дитя, коли не думав брати?**
Проня: Свирид Петрович, про що вона каже?
Голохвостий: Брехня. Брехня.[...]
Секлета: Люди, я не брешу.
Проня: Докажіть! Докажіть!
Секлета: **Кумоньки, голубки, присягніться, що він заручився з моєю дочкою**.

Кума 1: Власними очима бачила і оцими вухами чула, як він учора заручився. **На тому і присягаю.**

Кума 2: **Хай мене грім поб'є, коли я не співала їм заручених пісень.**

Кума 3: І ще танцював він без одіяння спокусительно.

Проня: Мрак. Рятуйте. Води.

Голохвостий: Не вірте їй, не вірте. Вона підкупила свідків. Я їх у суд. Я їх у газету. У мене є знайомі очень і очень.

Проня: Ідіть, тітка.

Секлета: **Дурна ти, дурна.** Та він тебе за гроші бере.

Голохвостий: Не правда, по любові.

Секлета: **Кумоньки, голубки,** ану розкажіть.

Кумоньки: **Лаяв її совою. Називав жабою кислоокою. Чаплею. Плював, як на сатану.**

Голохвостий: **Це наклеп.** Проня, послухайте, наклеп.[...]
Чого ви ходили до мене? **Нащо ви божилися? Клялися.** Падали переді мною на коліна. **Казали, що то в груді шкварчить, а то шкварчала ваша папіроска.** Не за ваші магазини я йшла. Я вас любила. **А ви осоромили на весь Київ, на весь Подол. Геть, цирюльник.**

Фрагмент із фільму "За двома зайцями" (1961, режисер і автор сценарію В. Іванов),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3.

Мама: **Гріх тобі, Яшко.**

Яків: Що знов, мамо? В селі нова брехня про мене?

Мама: **Гріх, бо свято нині велике. Миколи Угодника. А ти до служби не пішов.**

Яків: А мені Бог і не таке прощав, мамо.

Мама: Та взагалі забулося вже про всі твої **вibriки.** Тепер біля церкви баби про інше шепочуться. Тимко Вергун у **всіх на язиках.** Кажуть, жінку свою молоду щодня **товче.**

Яків: Нема мені діла до Тимка. **Побралися, то і товче чоловік свою жінку, як когут курку.**

Мама: **Та не в ліжку товче. Кулаками. На горіхи перепадає жонці кожного дня.** А Уляна все синці приховує та й за тим Тимком до **корчми** бігає.

Яків: До **корчми**?

Мама: До Гершеля, **будь той жид не ладен.** Бач як. Раніше Федько там **крутився.** Тепер молодший за **розум узявся.** А старший, як оженився, то, здається, **зовсім той розум загубив.** Так він і зараз там, той Тимко. Як Уляна до церкви, Тимко до чарки.

Яків: Нема мені інтересу ні до Уляни, ні до Тимка. До церкви піду. Справді давно не був.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Століття Якова" (2016, режисер Б. Недич, автор сценарію А. Кокотюха),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4.

Тиміш: Війна вже давно проситься.

Корчмар: Так про то і в газетах пишуть, **прошу пана.** Але одразу нагадують, що війни не треба. І я з ними згоден. Я правий, Голдо?

Голда: Ти завжди правий, Гершель.

Тиміш: Війна вижене **ляхів** з нашої землі. Не встоять вони перед **німаками.** Вірно я кажу, Якове?

Яків: Служив я у польським війську. Вистоїть. Міцне воно.

Тиміш: Вистоїть? **Зметуть ляхів до бісової матері.** І буде тут у нас інша влада.

Корчмар: От хто вас сказав, хлопаки, що за нової влади буде краще?

Тиміш: А вам, пане Гершель, у вашій корчмі при любій владі буде добре. Нічого-нічого. Побачите ще нашу владу.

Яків: Влада є влада. З усякою треба жити. Аби війни не було. А мені війни не треба. **Війна не годусь.**

Тиміш: Та що ж тобою говорити. **Хата з краю.** А ти чого такий, Іване? Боїшся, що у пана Гершеля пиво закінчиться?

Іван: А ви що, хіба не чули? Пан **поліцай** казав, війна.

Яків: Як?

Тиміш: З ким?

Іван: **Німаки кордон перейшли польський.**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Століття Якова" (2016, режисер Б. Недич, автор сценарію А. Кокотюха),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5.

Яків: Уляно!

Уляна: Господи. Я Бога молила, щоб ти повернувся.

Яків: **Не заговорюй зуби.** Чого біжиш додому, ніби щось украла?

Уляна: Та пусти мене. А по радіо сказали, що війна скінчилась, а миру нема. Ну добре, не буду перед тобою критися. Не чужі все таки. Тимко з хлопцями в лісі. **Там всі, хто не хоче коритися совітській владі. А я за зв'язкову.**

Яків: Уляно, але за **советами сила.** Ти мусиш то визнати. **Ну а як ти голову складеш за Тимка, дітей в Сибір заберуть як дітей ворогів народу.** Ти такого хочеш своїм дітям?

Уляна: Я не хочу цього своїм дітям. **Тимкові пропонували скласти зброю. І всім хлопцям пропонували амністію, якщо вийдуть з лісу.** А він не склав. Воює далі. То я мушу прийняти, бо я його жінка, а він – мій чоловік.

Яків: І за ним отако до лісу бігати?

Уляна: Не радісні ті зустрічі, Якове. Взагалі у нас життя мало радісне. То ти з нами?

Яків: Уляно, **я сам по собі.** Ні з тими, ні з тими. У мене жінка, діти. Наші діти. Для мене війна скінчилась, Уляно.

Уляна: Не для всіх війна скінчилась.

Яків: Для мене скінчилась. А ви собі, як хочете.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Століття Якова" (2016, режисер Б. Недич, автор сценарію А. Кокотюха),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6.

Тиміш: Уляночко!

Уляна: Тиміш, я тебе вчора чекала.

Тиміш: Коли вийшло.

Уляна: Тебе шукають, ти знаєш?

Тиміш: Нехай шукають. Слухай, а це правда, що Яків вірить, що це ми Зосю вбили?

Уляна: Яків про то не говорить.

Тиміш: Мої хлопці вже шукають тих **паскуд**, що **переодягаються у наші строї та під виглядом УПА** вбивають людей по селах. Улясю,
я їх власними руками давити буду. Я їх на ремені поріжу.

Уляна: Послухай, звідки ти то знаєш усе?

Тиміш: Наша **служба безпеки** хоч і сидить глибоко, але працює добре. **Це або НКВД, або ж з місцевих.** Тут таких теж багато. **Їм перша гілляка.**

Уляна: Мені страшно, тому що люди починають вірити у ці **байки.**

Тиміш: Улясю, ти мені віриш? **Моє сонечко.**

Уляна: Ходімо. Ми надворі стоїмо. Ходімо у хату.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Століття Якова" (2016, режисер Б. Недич, автор сценарію А. Кокотюха),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7.

Назар: Вітаю, пане **характернику.** Ось цей хотів **поцупити трофеї.**

Іван: Брехня. Тобто випадкове непорозуміння. Я просто хотів узяти **свою частку здобичі.** Але мені не дали.

Характерник: А з якого це дива ти на здобич сподівався. Хіба ти **козак?**

Іван: Що? Я? Ну а як же. Козак. А хто ж? Просто я з лівобережних. Про **битву під Лисою горою** чули? Так то я **редут ляхів розбив.**

Характерник: І як же ви підійшли? Чому вас **гармати на підступі не розбили?**

Іван: У **ляхів на редуті лише дракон-волани стояли** (назва *гармати*). Вони майже такі самі, як у вас. **Гаспиди.** Але вдвічі довші. **Прицільна дальність у тих гармат страшенна, майже тисячу кроків. Та от халепа, якщо підійти до них близько, смертності дракони стають косооким**

и ящірками. Тоді ми тихесенько підповзли їм під ніс, а тоді вже... Ну ви знаєте.

Характерник: Не може бути, сам Вернидуб.

Іван: Так-так, це я.

Характерник: Я багато чув про твої **бойові звитяги**. Але тепер хочу послухати подробиці.

Фрагмент із серіалу "Козаки. Абсолютно брехлива історія" (2020, режисер О. Березань, автори сценарію О. Зборовський, О. Іванюк, К. Хінкулова, М. Симонік, П. Остріков),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8.

Хмельницький: А що, панове браття, що скажете? Ми можемо допомогти **польському королеві Владиславу у війні проти Іспанії?**

Петро: Ти ба. Він уже там б'ється з **королем Франції**. Нам з того що?

Хмельницький: Сірко, а ти що скажеш?

Сірко: А я ось що скажу. Вони вже воюють тридцять років. Вже навіть забули, з чого все почалося. А якщо ще й ми вліземо, **як собаки на стріху**, то не годиться нашому славному воїнству козацькому та **йти під усяких там королів закордонних та царів**. На Січ треба йти, батьку. На Січі тебе чекають.

Богун: Він правий.

Хмельницький: А тут, браття, виходить **хитра політика**. Польський король не має великих прав. Їх відібрав у нього **сейм**. І коли король польський і французький **зламають хребта іспанцям**, король Владислав знову матиме силу.

Богун: А на який лад нам сильний польський король?

Хмельницький: А вони зможуть **приборкати сейм і повернути права козакам і їх привілеї**.

Богун: А ти віриш **ляшському королю?**

Хмельницький: Не вірю. **Та заради влади він на всі піде**.

Петро: І на наші умови?

Хмельницький: І на умови теж, Петре. **А куди він дінеться?** Отже, план такий. Богун і Сірко збирайте старшин. **Вирушаємо у похід на Францію. І хай нам допоможе Бог**.

(Богун грюкає кулаком по столу) Ну що, Іване?

Богун: **І Потоцький вдарить нам у спину.**

Хмельницький: **Ось для цього у нас тут дехто залишається. Отже, панове, з Богом.**

*Фрагмент із фільму "Гетьман" (2015, режисер В. Ямбурський, автор сценарію В. Веретенников),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9.

Хмельницький: Ну, що скажеш, кошовий?

Кошовий: У Потоцького військо велике, полковнику, а нас мало.

Хмельницький: **А якщо ми домовимось з кримським ханом? Матимемо більше війська.**

Кошовий: **Орда ясир** зажадає.

Хмельницький: Ну а **розбите військо Потоцького чим тобі не ясир?**

Кошовий: **Ой не кажи гоп.** То вже Рада буде вирішувати. І знай, Хмелю, чутки про тебе різні ходять.

Хмельницький: Чутки? Які чутки?

Кошовий: Та кажуть, через **дівку Хмельницький зі шляхтою горшки побив.** Ти ж **вірою і правдою** служив польському королю.

Хмельницький: **І сьогодні служити буду. Проти шляхти хоч дідькові лисому буду служити.** А тепер про діло. Маю грамоту від короля. Тож **збирай Раду, кошовий.**

*Фрагмент із фільму "Гетьман" (2015, режисер В. Ямбурський, автор сценарію В. Веретенников), доступний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YouTube.
Використано в обсязі, виправданому навчальною метою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України.*

Вправа 11. Перекладіть україн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сталі вирази:

1. 마인해. 내기 생각이 짧았다. 내가 잘못했다. 2. (시장에 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시전에 가서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 보던가. 3. 그런 말 아십니까? 산 속에 있는 도둑 열 놈은 잡아도 마음 속 도둑 한 놈은 못 잡는다는. 4. 그놈이 어디 갔어? – 신출귀몰입니다. 5. 뭐니 뭐니 해도 우리 반류가 진골 중에서는 최고의 진골이지. 갑 중에 갑. 6. 뜰 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 봐. 7. 너 진짜 꼭 나와라, 오늘. 도망가면 국물도 없다. 7. 한 때 정혼자였던 안지공의 아들이니 제 아들이나 다름없다 생각해주시지요. 8. 여인의 질투는 오뉴월에 서리를 내린다고 했소.

9. 진짜 간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10. 풍월주의 속셈을 모르십니까? 백성들 앞에서 화랑들을 지소의 것으로 못을 박겠다는 겁니다. 11. 이번 왕경 한가위 축연 때 공연을 하신다 들었습니다. 그날 내 분명히 우리 오라버니에게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전할 것입니다. 12. 너나 나나 영실공의 눈밖에 나면 하루아침에 끈 떨어진 연 신세야. 13. 주보님은 평안하신가? 내 안 본지가 오래돼서. – 권세도 꺾밭도 다 떨어진 석씨 가문에 그나마 가진 골품을 놓치실까 전전긍긍 밤잠 못 이루시죠. 14.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거겠지. 15. 하기사 뭐 사주는 바뀌도 팔자는 못 바꾼다고. 16. 이곳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의 지배하에 있지만 일본의 눈이 사방으로 뻗어 있어.

Вправа 12. Перекладіть корей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сталі вирази:

1. У нашому селі спокійніше, ніж у Христа за пазухою. 2. Ти знов за рибу гроші. 3. Обхід, кажете. А чого тоді стоїте, горобцям дулі крутите? Ідіть далі. 4. Я після сварки з Назаром місця собі знайти не можу. 5. Ах ти ж, чортяка, зранку очі вже залив. 6. Тепер все піде, як по маслу. 7. Пам'ятай, які б ти коники не викидав, я завжди піклуюся про твоїх козаків. 8. Видно, я комусь дорогу перейшов. Ти мусиш з'ясувати, кому. 9. Нам зайві очі не потрібні. 10. Мамо, а ви знали, що Ігор плавати не навчений? – Господи, невже він..? – Ні, він за водою не пішов. 11. Ти ж знаєш, що Петро – у Києві велике цабе. Треба зроби так, щоб полювання йому сподобалось. 12. Фортеця Орлових – такий міцний горішок, що ніхто не наважиться напасти на них. 13. Після бійки Мелетій провалився, немов під землю. 14. Мені не можна на Січ. Я ж не кину Мар'яну тут саму при надії. 15. Правду кажуть, хліб – всьому голова. 16. Назаре, ти чого? Тебе що, курка копнула? 16. Вона стількох з того світу витягла своїми травами і молитвами. 17. Тобі що, знову під хвостом коле? 18. Чого ви з дочкою стільки років, як кіт із собакою? 19. А ти чого мовчиш? Води в рота набрала? Ти хоч слово скажи!

Вправа 13. Перекладіть україн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вульгаризми:

1. 너 뭐야? – 아휴, 번거로운 새끼. – 누구냐고 물었다! 건방진 놈! 2. 아이, 저런 미친 것들. 대낮에 칼부림을 하고 난리야. 3. 그 사내는 외모 번듯하고 지적이고. 근데 좀 차달까. 헌데 또 여인들은 나쁜 사내한테 끌린다니까. 까칠 대마왕. 여인한테 관심이라곤 없는 냉혈한이죠. 4. 너 때문이야! – 똥 낀 놈이 성낸다더니. – 너 지금 나한테 똥이랬냐? 5. 언제는 서로 죽일 듯이 싸우더니만 지금은 좀 친해졌다 이거냐? 꽤심한 놈들. 6. 나도 너희 오라버니가 좋아. 부러운 년. 7. 싫든 말든 난 니 오라비로 살 거니까. – 거짓말쟁이. 입만 열면 거짓말, 다 거짓말이었어. 8. 뭐야? 왜 이래? – 앞으로 형이라고 불러라. 나 더이상은 양보 못 한다. – 나 진골이란 말이야! – 이런 개뻥다귀 같은 녀석! 9.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야! 니들이 죄 없는 조선인을 어떻게 죽였는지 알고도 그딴 소리를 해? 시건방진 노무 새끼. 10. 그래도 걸리적거리는 놈들이 없어서 싸우긴 편하겠네. 11. 저 의리 없는 새끼들. 강습이, 네가 진짜 의적이다.

Вправа 14. Перекладіть корей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вульгаризми:

1. Ах ти ж, **псяча кров!** Він комусь цей лист показував? Хтось, окрім вас, бачив?
 2. Старий я став. Раніше міг пів дня з цією довбнею танцювати, а потім ще з цим **хитрим лисом** раду давати. А тепер сил тільки на довбню лишилось.
 3. Ви, два **безголові шакали!** Я за чим вас посилав? За хмизом, а не за цими двома **костогризами**.
 4. Синку, ти що, **нажлуктився?**
 5. Мар'яна того **бевзя** дуже любе.
 6. Мені цей **телепень** живим потрібен.
 6. Ти що верзеш, **кнуряко?**
 7. Кажі, **блазень паскудний**, де ти сховав тіло кошового?
 8. Цей **сучий син** скоїв страшний гріх. – Якщо ви про втечу з тюрми, то я просто вийшов водички попросити. За таке не можна страчувати.
 9. Було б недобре, якби ця **козяча пика** до страти не дожила.
 10. Скоро ці **нелюди** повернуться. Єдиний спосіб зупинити цю навалу – вдарити першими.
 11. Ти мене дуже розчарував. Ти – **хвалько**.
 12. Ану геть, **шмаркач**. Це наша **дівуля**.
 13. Стули **писок**, **нікчемне базікало**.
 14. Ці **дикуни** і гадки не мають, куди їхати.
 15. Я тебе не забув, **здихля сухорєбра**.

Вправа 15. Перекладіть україн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порівняння:

1. 니가 신국의 지엄한 골품을 무시하고 감히 여기까지 기어들어와? 너희 같은 것들은 별레나 다름없어. 2. 그따위 헛소문은 진흥폐하께서 진정한 지존에 오르시는 날이면 눈 녹듯 사라질 것 아니겠사옵니까? 3. 천인은 그냥 짐승처럼 죽어야 하는 거야? 4. 지금 태후와 맞서는 건 기름을 뒤집어쓰고 불로 뛰어드는 것 만큼이나 무모한 짓이야. 5. 모든 게 아구가 딱딱 맞아 들어가지 않나? – 삼맥종이 왕경에 들어왔고 해서 지소가 공지에 불이 붙은 것처럼 화랑을 만들었다. 6. 신국의 화랑으로서 저 태양처럼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뜨거워져라. 7. 혹시 나무 닦았던 말 안 듣냐? 시종일관 싸가지 없는 게 늘 푸른 소나무 같은데. 8. 몸으로 자연을 흉내내는 것이 춤이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해가 뜨고 강물과 바다가 물결치듯이 너희 몸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9. 넌 또 뭐냐? 늙은 수세미 같이 생긴 놈이. 10. 뭐냐? 할 말 있냐? 지금 너 같은 걸 똥 마려운 강아지 같다고 하는 거야. 11. 인간이 부끄러움을 모르면 금수랑 다를 게 없는 거야. 12. 바다의 용왕이 둘이 아니듯 해적단의 단주 역시 둘이 될 수 없다.

Вправа 16. Перекладіть корейською мовою речення, що містять порівняння:

1. Зараз піду надягну парадні лахи і буду ходити важний, як той павич. 2. Ну що мовчите, наче гадюку проковтнули. 3. Що ти липнеш до мене, як та муха до медовухи. 4. Ми ледве на той світ не відправились, а вони тут курять. Та ще й як курять. Ти подивись, Івасику, наче дві бісові пічки у пеклі розпалюють. 5. Мої ж ви сизокрилі. Мов лебідь і лебідка. Наче створені одне для одного. 6. Ми підійдемо цілим військом, візьмемо фортецю в облогу і передусимо там всіх, як курей. 7. Іван же, як та хуртовина. Налетить невідь звідки. 8. Добре, синку, що ти стаєш блідий, як та поганка. Отже розумієш всю відповідальність. 9. Якщо хлопці будуть питати, то я ледь не вмер і бився, як лев. 11. Треба піти поназбирати хмизу. Тільки сухого, бо мокрий хмиз прокоптить нас, мов ту курку. 12. А куди це Яшко Мех побіг, наче смалений заєць? 13. Сиди тихо, як мишка. 13. А ти у нас, як зона відчуження. В радіусі 30 км навколо для тебе роботи немає.

ДЖЕРЕЛА ІЛЮСТРАТИВНОГО МАТЕРІАЛУ

- Березань, О. (Режисер). (2020). *Козаки. Абсолютно брехлива історія* [Телесеріал]. IQ Production.
- Бровко, Р., Ткаченко, Р. (Режисери). (2020–2023). *Дільничний з ДВРЗ* [Телесеріал]. Mamas Film Production, телеканал ICTV.
- Бурлака, А. (Режисер). (2014–2017). *Казки У* [Телесеріал]. Студія «Квартал 95», Студія «Драйв Продакшн».
- Бурлака, А. (Режисер) (2014–дотепер). *Одного разу під Полтавою* [Телесеріал]. Студія «Квартал 95».
- Бурлака, А. (Режисер). (2017–2018). *Готель «Галиція»* [Телесеріал]. Студія «Квартал 95», Студія «Драйв Продакшн».
- Даруга, О., Литвинов, М., Яковенко, В. (Режисери). (2021). *Люся інтерн* [Телесеріал]. CBS Studios Inc., «Теле Про», телеканал Україна.
- Депонян, М. (Режисер). (2016). *Микита Кожум'яка* [Фільм]. Panarama Grand Prix, Karandash Animation Studio.
- Іванов, В. (Режисер) (1961). *За двома зайцями* [Фільм]. Кіностудія імені Олександра Довженка.
- Ітигілов, О. (Режисер). (2020). *Казка про старого мельника* [Фільм]. Euromedia.
- Максімов, І. (Режисер). (2021). *Гуллівер повертається* [Фільм]. Gulliver films Ltd., 95 animation studio.
- Маламуж, О. (Режисер). (2018). *Викрадена принцеса. Руслан і Людмила* [Фільм]. Animagrad.
- Маламуж, О., Рубан, О. (Режисери). (2023). *Мавка. Лісова пісня* [Фільм]. Animagrad, Film.UA Group.
- Недич, Б. (Режисер) (2016). *Століття Якова* [Телесеріал]. 1+1 медіа.
- Ямбурський, В. (Режисер). (2015). *Гетьман* [Фільм]. Студія «Злагода», Студія «Дарзіні».
- 김대진, 김정옥 (감독). (2023). *닥터 차정숙* [드라마]. 스튜디오앤뉴.
- 김재현 (감독). (2025). *키스는 괜히 해서!* [드라마]. 삼화네트웍스, 스튜디오 S.
- 김정식 (감독). (2023). *힘센 여자 강남순* [드라마]. 바른손 C&C, 스토리피닉스, SLL.

김정훈 (감독). (2022). *해적: 도깨비 깃발* [영화]. ANEW, 오스카 10 스튜디오.

박선호, 정동윤 (감독). (2017). *수상한 파트너* [드라마]. 더스토리웍스.

박홍균, 김정현 (감독). (2017–2018). *화유기* [드라마]. 스튜디오 드래곤, JS 픽처스.

부성철 (감독). (2010).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드라마]. Bon Factory, Softline.

송현욱 (감독). (2021). *연모* [드라마]. Story Hunter Production, Monster Union.

안길호, 이병헌 (감독). (2025). *다 이루어질 지니* [드라마]. 스튜디오 드래곤, 화앤담픽처스.

오충환 (감독). (2016). *닥터스* [드라마]. 팬엔터테인먼트.

오충환, 김정현 (감독). (2019). *호텔 델루나* [드라마]. 지티스트.

우민호 (감독). (2024). *하얼빈* [영화]. 하이브미디어커피, 잼스톤픽처스.

윤성식 (감독). (2016–2017). *화랑* [드라마]. 오보이프로젝트, 몬스터유니온.

이형민 (감독). (2017). *힘센 여자 도봉순* [드라마]. JS 픽처스, 드라마하우스 스튜디오.

Підписано до друку 25.03.2026 р. Формат 60×84 1/16
Папір друк. № 1 Спосіб друку цифровий
Обл.-вид. арк. 8,05. Умовн. друк. арк. 8,16
Зам. № 26-042

Видавничий центр КНЛУ
Свідоцтво: серія ДК 1596 від 08.12.2003 р.
